

2007 • 제23호

ANNUALLY

속초문화

THE SOKCHO CULTURE JOURNAL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다가오는 미래, 열려있는 세상

준비하는 사람만이 무한미래를 거머쥐고 자기 것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주)대 명의 가족들은 21세기 건설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 오늘도 땀흘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미래 (주)대 명이 그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아파트



도로



조경



건축

고객과 늘 함께하는 기업 —————



(주)대 명 (주)대명종합건설

TEL:(033)632-8899 FAX:(033)631-3171

(주)대명주택

(주)대명건설산업

(주)대명산업개발

(株)三都 엔지니어링

技術士事務所

代表理事 技術士 박태호
(韓國男聲合唱團/ B1)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638-22
(원당빌딩 301, 302, 303호)

TEL : 02)887-9368~9
FAX : 02)887-9367
Mobile : 011-255-0430
E-mail : samdo@hitel.net

속초문화

ANNUALLY · 2007 제23호

속초문화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 217-010

전화 (033)632-1231, 639-2439 / 전송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history.com>

E-mail : sc2439@sokcho.org

■ 펴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노광복

편집인 / 한정규 · 김인섭

CONTENTS



cover story

■ 권두시 / 다시 속초로 오는길	박대성 · 7
■ 활동해시대의 관광 · 해양 중심도시, 속초 건설	· 8
■ 발간사	노광복 · 9
■ 문예중흥선언	· 10
■ 속초시민헌장	· 11
■ 속초시가	· 12
■ 문화단상 / 책, 책, 책 그 새삼스런 이야기	박주영 · 13
■ 2007 속초문화원 365	· 15
- 2007 속초 해맞이축제	· 16
- 2007 정월대보름맞이민속놀이한마당	· 18
- 2007 효행청소년 시상	· 20
- 2007 한국문화학교 15기생 입교식	· 21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22
-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23
- 제3회 화랑 영랑축전	· 24
- 북청사자놀음 전수	· 26
- 도문농요 전수	· 28
- 땅땡땡 실버문화학교	· 30
- 제12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 32
- 어린이 문화교육단 3기	· 33
- 제13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 34
- 청소년방학프로그램	· 36
- 2007 설악미니콘서트	· 38
- 숲속의 국악캠프	· 40
- 설악제례	· 41
- 주민자치박람회 개막 공연	· 42
- 월드뮤직팀과 함께하는 '설악관광 · 쇼핑거리 페스티벌'	· 44
- 친구랑 함께 하는 우리 문화 한마당	· 46
- 한국문화학교 제15기생 수료식 및 발표회	· 48
-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 50

발행일 / 2007년 12월 30일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 사진제공 : 속초시문화공보과 남동광

- 문화유적답사	· 51
- 실향민문화콘텐츠 세미나	· 52
- 매곡일기, 속초문화 제대로 알기	· 54
- 언론에서 본 속초문화원 / 원장동정	· 55
■ 특집 / 속초 실향민 문화콘텐츠	· 57
- 실향민문화의 콘텐츠화	김의숙 · 58
- 속초 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	장정룡 · 75
- 실향민테마축제의 방향과 구성	함석종 · 91
- 실향민 음식의 상품화 개발방안	송주은 · 110
■ 문화원 포커스 / 속초 실버문화 종합기관 구축	편집부 · 116
■ 줌업, 속초문화	
- 지방자치단체의 발해역사문화 보존의 의의	김지윤 · 122
■ 문화탐방 / 속초, 문화로 거닐다	엄선미 · 134
■ 문화논단 / 북한지역 북청사자놀음	장정룡 · 141
■ 문화논단 / 설악동 장재터 서낭제	한정규 · 155
■ 문화인물 / 이기섭박사	편집부 · 161
■ 문화현장 / 중국국보전	한초자 · 164
■ 문화상수상자	김상복 · 167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임 · 직원	· 169
- 회원	· 171



일상을 벗어나 자연이 그리울 때,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설악산

멀리 탁 트인 동해, 산자락을 끼고 도는 운해,

신록과 뉘음, 단풍, 눈 덮인 산,

설악의 변화 무쌍한 사계를 감상할 수 있는 곳

그 곳에는 설악케이블카 가 있습니다.



설악케이블카 주식회사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 www.sorakcablecar.co.kr

TEL : 033) 636 - 4300

여기까지가 목표라는 생각,

그 생각을 넘어서야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크기를 키워라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으로
NH 농협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NH농협의 더 큰 생각! NH농협은 국민의 신뢰,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합니다.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 **NH** NongHyup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 033) 633-2733

권두시



다시 속초로 오는 길

7번, 44번, 46번 국도로 오세요.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을 넘어

배를 타셨다면 울진, 삼척, 사천, 수산, 대포항으로

바람을 타셨다면 청진, 원산, 저진, 가진, 야진을 지나
달빛으로 내리시려거든 장재터,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로
물결치듯 오시려거든 청초호, 영랑호, 영금정, 도문천, 세심천으로
단풍으로 오시려거든 비선대, 와선대, 마등령, 학무정, 노루목으로

백설로 오시려거든 우령골, 사진리, 도리원, 쌔리재, 범바위로
서커스단으로 오시려거든 노리, 장리, 만천리, 이목리, 새마을로

그리고

청얼대던 갯배를 업어주던 검은 제복의 누이, 형아가 그립다면

재건중학, 명신공민학교 운동장을 달려

골목 골목들이 푸른 파도를 행구어 너는

수복탑 돌아 직행터미널 지나

영랑보육원 사철나무 울을 따라

울컥 울컥 초록이 울음 우는

보광사 숲으로 오세요.



박 대 성 시인(설악문우회)

1960년 속초 생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졸업

2001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현 야야진초등학교 교사

환경해시대의 관광·해양 중심도시, 속초 건설

심볼 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묻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 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시목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펴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화



국화

국화는 번식률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시조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된 단결을 대변하는 속초시의 염원을 담고 있다.

발간사

지역 문화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 담당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23번째 속초문화를 발간합니다.

그동안 「속초문화」는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여 전승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동안 속초문화원은 급변하는 문화환경에 발맞추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문화는 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으로 획을 그을 수 없는 삶의 축적이자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쉼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통한 문화의 저변 확대, 문화 소외 계층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복지, 잊혀진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속초문화원은 1년 365일 다양한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인프라 확충과 문화지킴이 역할에 충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속초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속초사자놀음’과 ‘도리원 농악’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지난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속초도문농요’는 강원도 대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문화의 새로운 발견을 보여 준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를 통해 노인문화의 가능성을 꾸준히 실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속초시립박물관과 함께 만들고 있는 ‘실향민문화콘텐츠’가 속초 문화관광 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알차게 만들 예정이오니 시민 모두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문화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諦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荣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值意
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的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
도록 힘쓰며, 文化的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시민헌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 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엄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체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1990년 10월 11일

속초시민일동

속초시가

$\text{♩} = 92 - 96$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mf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2. 해 - 안 선 금 이 금 이 아침해 며 오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에 새 벽 잠 깨 - 이 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 리에 월 - 치 네
천 - 불 동 골 - 짜 기 에 흰 구름 몸 을 물 네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 닷 가 거 널 어 라

mp

정 성 파 보 - 람 으로 다 족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 라 보 니
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mf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래 제 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넋 이 그 - 육 히 짚 어 지 네
항 - 구 에 목 인 배 가 대 양 으로 차 비 하 네

f

가 자 배 를 젖 - 자 산 으로 바다 향 - 해

f

우 리 얼 것 - 든 곳 여기 가내 고 - 향

책책책, 그 새삼스런 이야기



박 주 영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장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꺼내면 다들 새삼스러운 얘기를 뭘 또 하냐고 타박할 것 같기도 하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구석이 있는 말이기도 하다. 요즈음 신문을 보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책읽기에 관한 얘기들이 많다. 논술 학습지 광고부터 시작해서 거실을 서재로 꾸민 집이야기, 독서경영에 관한 이야기, 1도시 1책읽기 운동 등 말이다. 쏟아져 나오는 책읽기에 관한 이야기들은 모두 새삼스럽기만 한 얘기들일까?

1. 세상이 모두 “창의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고속성장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 1997년 IMF 이후 어쩐 일인지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이만달러 달성이라는 빛나는 간판에도 불구하고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방식을 다시 한번 불러 온다면 한국경제의 영광의 30년은 재현될 수 있을까?

대답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이다. 그 이유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포드주의 하의 소품종 대량생산,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세계경제 시스템 하에서 한국은 저가 공산품과 철강, 석유화학, 조선과 같은 장치형 산업을 맡았다. ‘영광의 30년’이니 ‘한강의 기적’이니 라고 불리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포드주의 시스템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포드주의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대체되는 세계경제의 전환점에서 한국경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는 IMF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IMF 경제위기의 발생원인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IMF 경제위기의 원인은 이러하다.

포스트 포드주의란 디파운드 소량생산체계 라고 설명할 수 있다. 포스트 포드주의는 품질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경제시스템이다. 또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세상이 모두 창의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지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생각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사고의 망을 만들어라, 삶의 질을 높여라.

이처럼 책읽기가 새삼스럽게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세상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변한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새삼스럽게도 독서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더 잘 살기 위해서라는 말의 뜻은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라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만약 독서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인 효용가치로 따진다면 논술학습지의 광고 글과 이 글은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더 잘 산다’는 것은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여야 할 것이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사고의 망을 만들 수 있다. 독서는 우리 주변 환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의식을 질서 있게 조직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외부에서 강요되는 시각과 생각에 시달리는 것과 자신의 사고 망을 통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비교해보라. 삶의 질 측면에서 당연히 후자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다양한 생각이 넘쳐나게 된다면 우리 개인의 정신적인 삶이 풍요로워 질 것이다. 또한 변화한 세계경제 체제에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개인 하나 하나가 변화한 경제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책읽기는 쉽다.

독서가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막상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책 읽기는 성장기 학생들의 일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책을 읽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책읽기 자체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책읽기는 쉽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는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한다면 하루 중 독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생활이 바빠서 시간이 없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바이지만, 사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따져본다면 결코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술 약속을 하고, 등산 약속을 하고, 식사약속을 하는 것처럼 독서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과 따로 시간을 내겠다하는 약속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삼십분 일찍 일어나서 독서를 하겠다고 시간을 잡는 다든가, 잠자기 전 삼십분은 무조건 독서하는 시간으로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음으로 독서에 보다 능숙해지는 방법으로는 꾸준히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하다. 꼭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흥미를 갖는 내용의 책부터 읽기 시작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독서 후 감상이나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며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하지만 짤짤매며 거창하게 독서 감상문을 써야만 한다는 말은 아니다. 개인적 체험과 독서 후 감상이나 단상, 책의 내용을 연결시켜 간단하게 독서일기를 써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는 ‘전달독서’라는 것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읽은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전달독서라고 하는데, 가족 간에 식사를 하면서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가족간에 대화가 많아지고 그 내용도 풍성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 말이다.

4. 개인적 독서를 넘어서

여기까지 독서에 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해 놓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찹찝한 것이 사실이다. 독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규정짓고 이야기를 펼쳤기에 밑도 끝도 없이 책 많이 읽으라고 잔소리만 해대는 부모가 된 기분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독서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도 개인적 독서를 넘어선 사회적 독서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는 무심했던 편이다. 책을 읽는 것은 분명 한 개인의 일이지만 독서가 즐겁고 생활 속에서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은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미 개인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들에 관한 제안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맺으며 속초시도 속초시민들이 독서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 본다. 지역경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속초시에 있어서 속초시민들의 독서활동이 분명 굉장한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365

2007 속초문화원 ✓

365%의 열정으로 달려온 지난 1년
36.5도의 따뜻함으로 만난 문화네트워크
365일 언제나, 속초문화와 함께했던
그 열정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2007

속초 해맞이 축제

한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07 속초 해맞이 축제'를 2006년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2007년 1월 1일 오전 8시까지 개최했다.

〈해님이 행사〉는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새로운 시간으로의 초대'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립풍물단의 "모듬북공연"과 새로운 발걸음의 시작을 알리는 "퓨전국악" 공연,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할 "7080콘서트"와 "Rock공연", 한해 마무리와 새로운 약속을 담은 빈순애(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의 "비나리"와 함께 "아듀 2006!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속초시립풍물단의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해님이 행사를 열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해맞이축제를 개최했다.

이후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의 의미를 담아 새해 첫날 오전 6시 시인 최명길 씨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새벽을 깨우는 "대북공연", 희망을 담은 "레이저 쇼", "전자현악" 공연을 비롯하여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또 한번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알렉스" 외국인 밴드와 초청가수 "안치환" 공연으로 모두가 어우러진 행사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새해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맞이할 "황금돼지를 잡아라" 행사를 마련하여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丁亥年の행운과 함께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사했다.



- 주 제 : 새 출발! 새 희망 ! 함께하는 2007!
"2007 속초의 빛과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 일 시 : 2006. 12. 31(일)~2007. 1. 1(월)
- 장 소 : 속초해수욕장

주요행사

해넘이 행사

속초시립풍물단과 갯마당의 '모듬북, 판굿', 퓨전국악 '위화령', 미쓰고 밴드

해맞이 행사

신천무용단의 '새아침 기원 무용', 최명길 시인의 시낭송, 전자현악 '샤인', 퓨전타악 '공명'

부대행사

레이저 쇼, 불꽃놀이, 소원지 하늘로 날리기, 오색풍선 날리기, 촛불소원빌기, 가훈써주기, 정해년 운수대통 '돼지가족' 점보기, 어선해상 퍼레이드



제27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제27회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는 3월 4일 오후 3시~7시까지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다양한 민속놀이로 꾸며졌다.

전통민속 재연행사로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과 갯마당이 주관하는 액집태우기 및 지신밟기가 열렸다. 특히 이날 선보인 액집은 도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전통 체험행사로 무속인들이 무료로 한해 운수를 봐주고, 서예강사들이 가훈을 써주며, 연과 제기, 소원지를 직접 만드는 민속놀이도구 만들기 체험과 속초시립풍물단의 판굿과 북청사자놀음이 열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이날 함께 열린 민속경기경연대회는 속초수협이 연날리기대회를 개인전과 창작연 제작 부문으로 나눠 열었고, 전통떡메치기(새마을금고연합), 제기차기(한화리조트), 널뛰기(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윷놀이(속초신협), 투호(속초양양축협)가 동대항전으로 펼쳐졌다.

- 행 사 명 : 2007(제27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잔치
- 일 시 : 2007. 3. 4(일) 15:00~19:00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최 : 속초시 · 속초문화원
- 주 관 :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외 7개 기관 및 단체
- 내 용 : 전통민속 재현 및 각종 민속놀이 체험 · 경연(13개 행사)

행사종목	행 사 내 용	주 관
액집태우기	행사장에 액집(달집)을 만들고 시민과 함께 소원성취를 기원	속초시설관리공단
판굿, 북청사자놀음	시립풍물단 공연(판굿, 북청사자놀음)	속초시박물관
지신밟기	횃불행진, 농악공연 등	갯마당
한해운수보기	시민 및 관광객 대상 무료로 한해운수 봐주기	속초문화원
가훈써주기	시민 및 관광객 대상 무료로 가훈 써주기	속초문화원
연, 제기만들기	시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전통놀이기구인 연제기 만들기	속초문화원
소원지쓰기	소원지쓰기 체험추진	
전통떡메치기	洞 대항전	마을금고연합
제기차기	洞 대항전	한화리조트
널뛰기	洞 대항전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윷놀이	洞 대항전	속초신협
투호	洞 대항전	속초양양축협
연날리기	개인전(방패연, 가오리연), 창작연 부문	속초수협



▲ 액집태우기



▲ 떡매치기



▲ 한해운수보기



▲ 연날리기



▲ 가훈써주기



▲ 웃놀이



▲ 널뛰기



▲ 투호



▲ 제기차기



▲ 연날리기

2007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은 매년 속초 관내 15개 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청소년 시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 2월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품행이 방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한 학생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선발, ‘효행청소년상’을 시상했다. 속초문화원은 매년 치르는 이 상의 시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풍토 조성에 앞장서기를 바라고 있다.

학 교	표창자	학 교	표창자
속초중학교	전성규	설악중학교	주태훈
속초여자중학교	윤다희	설악여자중학교	신은지
교동초등학교	엄송이	대포초등학교	최지혜
설악초등학교	장혜미	소야초등학교	최혜련
속초초등학교	최지희	영랑초등학교	강현진
온정초등학교	김보라	조양초등학교	이선화
중앙초등학교	박혜란	청대초등학교	유지수
청호초등학교	박소현		

2007 한국문화학교 15기생 입교식



속초문화원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감성의 계발, 새로운 지식기반 창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개설하고 있는 한국문화학교 제15기생의 입교식이 지난 3월 13일 개최되었다. 올해 개설된 강좌는 총 일곱개. 장구초급, 사물놀이, 민요, 한지공예, 서예교실, 노래교실, 북청사자놀음연희반이 개설되었으며 이들 강좌의 수강인원은 모두 200여명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보여주었다.

교육 강좌안내

강좌명	운영기간	요일	교육시간
장구초급	3월~11월	월·목	10:00~12:00
사물놀이	"	월·목	12:30~14:30
민요	"	목	15:00~17~00
서예	"	화·금	10:00~12:00
노래	"	화·금	14:00~16:00
한지/종이 공예	"	수	10:00~12:00
북청사자놀음 연희반	"	수	13:00~15:00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Pre 걷고 싶은 거리 공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Pre 걷고 싶은 거리 공연’은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속초시민과 중앙시장 상인들의 화합을 이루고, 재래시장을 훈훈한 정과 냄이 있는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앙로 상가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시립풍물단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쓰러져가는 지역상권의 화려한 부활을 기원하며 펼쳐졌다.

- 일정/장소 : 2007. 2. 27(화)~28(수)
 - 2. 27(화) 20:00~21:30 리복앞
 - 2. 28(수) 10:00~11:30 리복앞, KT앞, 갯배입구, 청학4거리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속초문화원

행사기간	장 소	시 간	행사내용
2.27(화)	리복앞	19:30~19:50	행사준비
		19:50~20:05	- 모듬북공연 “회오리”
		20:06~20:21	- 지역가수 “추예인”
		20:22~20:42	- 색소폰 “최경복”
		20:43~20:50	- 힙합댄스 “그루부하우스”
		20:51~21:05	- 지역가수 “김진우”
		21:06~21:30	- 지역가수 “어필”
2.28(수)	리복앞	10:00~11:30	- 문화원 주부사물놀이
			- 지역가수 “추예인”
			- 모듬북공연 “회오리”
			- 그루부하우스
			- 지역가수 “고민수”
			- 색소폰 “최경복”
			- 지역가수 “어필”
	KT앞	10:10~11:30	- 트럼펫 연주
	갯배입구	12:20~11:30	- 지역가수 “김진우”
			- 한화리조트 PO팀
			- 지역가수 “이대천”
	청학4거리	10:10~11:30	- 모듬북공연 “회오리”
			- 색소폰 “최경복”
			- 시립풍물단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속초문화원이 양성하고 있는 도리원농악대가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홍천에서 열린 '제22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속초 도리원농악대 참가작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나왔기에 아쉬움을 자아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동해시 '망상동괴란고청제농악' 민속놀이가 최우수상, 화천군 '화천냉경지 어부식놀이'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화랑 영랑 축전

화랑영랑축전은 속초지역에 전하는 신라화랑 영랑의 전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지난 4월 13일~14일 영랑호 범바위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 화랑영랑축전은 콧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그 중 속초문화원이 주관하여 처음 열린 ‘화랑선발대회’는 화랑영랑축전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로 주목을 받았다.

화랑선발대회는 속초를 다녀간 신라시대의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을 선발하는 대회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행사. 올해 첫 대회에는 속초지역 관내 학교에서 초등부 72명, 중등부 53명 등 모두 125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대회 참가학생들은 이틀간 OX 퀴즈, 활쏘기, 봉술대련, 허리춤 당기기, 시제짓기, 속초의 뿌리찾기 과거시험 등 6개 종목에 걸쳐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중 초등부 2명, 중등부 2명 등 모두 4명의 화랑을 선발했다.

이틀간의 경쟁 결과 중등부 1위 영랑에는 성윤정(속여중 3년), 2위 술랑에 박유진(속여중 3년), 초등부 1위 안상에 김준호(교동초 6년), 2위 남석행에는 송언진(청대초 6년)이 각각 선발됐다.

이번 대회에서 화랑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시립박물관 연중무료 이용권, 내년 제4회 화랑영랑축전 리플릿 표지모델, 시 행사시 우대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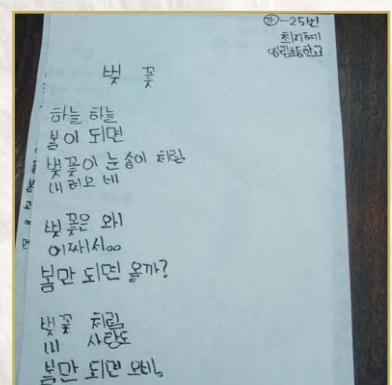


화랑선발대회

- 기간 : 2007. 4. 14(토)~15(일)
- 장소 : 속초시 영랑호 범바위 잔디광장
- 참가대상 : 관내 초등(4~6학년)학생 및 중등학생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속초문화원

▷ 선발 프로그램 구성

- * 1일차 : 13:00~17:00
 - 단체행사 : 모두 함께하는 OX퀴즈
 - 개별 : 활쏘기, 봉술대련, 허리춤당기기
- * 2일차 : 10:00~15:30
 - 시제짓기, 속초의 뿌리 과거시험



복청사자놀음 전수

속초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유입으로 토착민과 피난민간의 혼합된 문화가 전승되면서 지역 민속과 함께 함경도 사람들에 의해 북청사자놀음이 전승되었다. 북청사자놀음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전승지가 서울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속초에서 처음 전승되었다는 의미를 잊게 되었다.

속초문화원은 타 지역에 비해 자생적인 민속문화 소재가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문화보급과 전승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속초사자놀음을 전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향토사랑의 기회는 물론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속초사자놀음을 무형문화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정통성을 보전하며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속초사자놀음 전수회에는 시립풍물단과 신천무용단의 젊은 예술가들은 물론 속초문화원의 문화학교 회원들과 함경남도 청년회 등이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일구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수회 단원들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속초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사자성형틀 등 공연에 필요한 소품들을 직접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춤과 악기 연주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북청사자놀음을 체계적으로 전수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 제3회 화랑영랑축전을 비롯하여 제42회 설악문화제 등 속초 지역의 각종 행사에 속초사자놀음을 선보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다. 속초문화원은 2008년부터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정기공연을 추진하여 속초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7 북청사자놀음 초청공연 및 발표회 현황

- 4/14 - 화랑영랑축전 공연
- 8/06 - 2007 설악미니콘서트 공연
- 9/29 - 2007 월드뮤직팀과 함께하는 설악관광 쇼핑페스티벌 공연
- 10/14 - 설악문화제 실향민축제 공연
- 10/28 - 함경도민의날 공연
- 11/28 - 북청사자놀음 발표회
- 12/15 - 실향민 문화콘텐츠 세미나 공연



속초 도문농요 보전 전승운영

속초문화원은 우리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업노동요인 도문메나리농요를 발굴, 연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2월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속초도문농요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지속적인 전승 및 보급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속초 도문농요 보존회는 도문동 마을주민인 메나리 농요단 회원과 시립풍물단, 갯마당 풍물패 및 청소년 풍물패, 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보존회는 소리 및 유희 전승을 주 1회 운영하고, 연습은 분기당 1회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문농요 전수 교육 활동을 하며 도문농요의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강릉단오제를 비롯하여 제42회 설악문화제, 설악미니콘서트 등의 행사에서 초청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땡! 땡! 땡!

실버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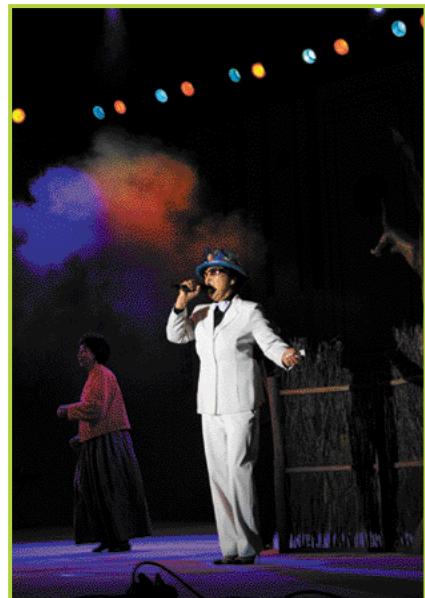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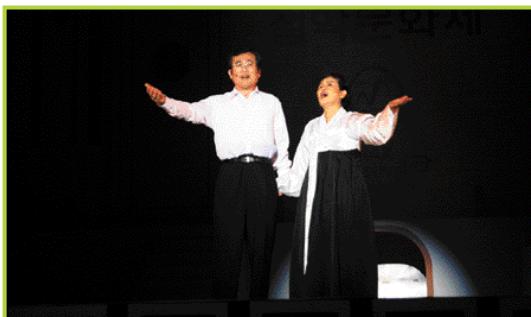
유쾌한 어르신들의 신나는 문화체험,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올해 복권기금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우리 지역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인문화복지 프로젝트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문화학교는 우리 지역의 60대 이상 실버 38명으로 출발해 6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속초문화원은 ‘땡땡땡! 실버문화학교’의 이수과정을 통해 ‘실향민 문화를 전파하는 실버예술단’을 양성한다는 계획. 이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실향민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속초 지역의 특색을 살린 기획으로 전쟁을 겪은 세대가 ‘실향의 아픔’을 직접 만들고 공연을 올린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일반 관공서나 기업체는 물론 실향민문화촌에서의 상설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실향민 문화해설사, 실향민 이야기 구연, 실향민 연극 등의 다양한 실향민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올해 사업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노래와 연극을 배워 무대에 올리는 ‘악극’ 공연을 목표로 교육을 했다. 악극은 보다 많은 노인층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고, 연극만 했을 때의 체력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또한 ‘연극’이라는 생소한 장르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6~9월까지로 노래와 연극을 집중교육받는 문화예술교육, 2단계는 직접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사회참여, 3단계는 독립적인 소득 창출이다.

이에 따라 실버문화학교 회원들은 극단 쿨링쇠의 도움으로 악극을 배운 후 제42회 설악문화제의 메인무대에서 속초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쳤다. 또한 속초시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2007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하여 총 11회의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제12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속초문화원 소속 주부풍물단이 제12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3일 오후 1시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개최된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건정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대회. 이번 대회에는 도내 각 시·군 주부들로 구성된 문화원 사물놀이 패 16개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동상을 받은 속초문화원 소속 주부풍물단은 "고른 기량으로 무리없이 연주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연주의 흐름에 강약 조절이 없어 신명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주부풍물단에 참가한 전일선(69세)씨는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으로 참가하여 강릉 MBC의 인터뷰를 받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07 어린이 방학 문화프로그램

일시 : 2007. 7. 30 ~ 8. 10 장소 : 속초문화원 문화체험방 주최 : 속초군립미술관 주관 : 속초문화원 후원 : 강원문화재단



2007 어린이 방학 프로그램

어린이 문화교육단 3기



이 사업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재밌고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린이 방학 문화프로그램이다. 속초지역 초등학생 30여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까지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장구초급교실, 단소교실, 전통춤 배우기, 풍선아트, 종이공예, 탈그리기, 속초문화 배우기, 석봉도자기 미술관 체험 등으로 참가학생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속초문화원은 이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평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들고, 우리 지역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기 간 : 2007년 7월 30일~8월 10일(월~금, 2주간)
- 장 소 : 속초문화원 사랑방, 석봉도자기 미술관,
- 주 죄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참가대상 : 관내 초등학생 30명
- 교육내용 : 장구초급교실, 단소교실, 전통춤 배우기, 풍선아트, 종이공예, 탈그리기, 속초문화 배우기(선사유적지, 학무정, 김근수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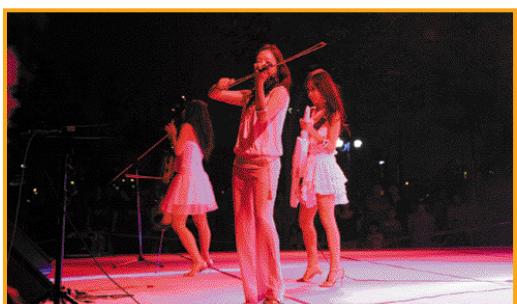


제13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제13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강원의 아침, 꿈을 이루는 속초에서'라는 주제로 속초시민 화합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청초호 유원지 내 상징탑 광장 옆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유명가수와 지역 예술인이 참가하여 흥겨운 화합의 장이 되었다. 모듬북 공연과 스포츠 댄스 등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힙합댄스, 밸리댄스, 지역가수, 전자현악그룹 샤인, 초청가수 이솔과 리아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영화감상 시간이 마련되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행 사 명 : 제13회 강원도민의 날 "속초시민 화합 한마당"
『강원의 아침, 꿈을 이루는 속초에서』
- 일 시 : 2007. 7. 21(土), 19:30~
- 장 소 : 청초호 유원지내 상징탑 광장 옆 특설무대
- 주 쾌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후 원 : 강원도
- 내 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연 "모듬북공연, 스포츠댄스"
 - 힙합댄스 "속초의 아침"
 - 밸리랑 댄스랑
 - 김진우, 어필
 - 전자현악그룹 '샤인'
 - 초청가수 이솔, 리아
 -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감상 '미녀는 괴로워'





2007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친구랑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체험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뜻깊은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 올해는 “친구랑 함께 하는 즐거운 문화체험”이라는 주제로 지역문화 축제와 별자리 탐방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2박 3일동안 직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첫날에는 석봉도자기 미술관에서 1시간동안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한 후 이어서 선사유적지와 학무정, 김근수 가옥을 탐방하고, 저녁에는 속초시립박물관에서 도문농요를 배웠다. 둘째날은 시립박물관의 민속놀이 및 공연관람을 오전에 한 후 오후에는 횡성에 있는 우리별 천문대를 방문하여 별자리 및 태양계 관측을 하는 별자리 체험을 했다. 마지막인 셋째 날은 야생화와 수목관찰, 천문관련 슬라이드 교육 등을 받은 후 속초로 돌아왔다.

- 일시 : 2007. 7. 30~8. 1(1차 35명), 8. 1~8. 3(2차 35명)
- 대상 : 초등4~6, 중등(선착순)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속초문화원
- 내용
 - 석봉도자기 미술관 도자기 만들기 체험
 - 문화유적 탐방(선사유적지, 학무정, 김근수 가옥)
 -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영상 관람
 - 속초시립박물관 민속놀이 및 공연 관람
 - 횡성우리별 천문대 별자리 체험



▲ 속초시립박물관 견학



▲ 석봉도자기미술관 도자기만들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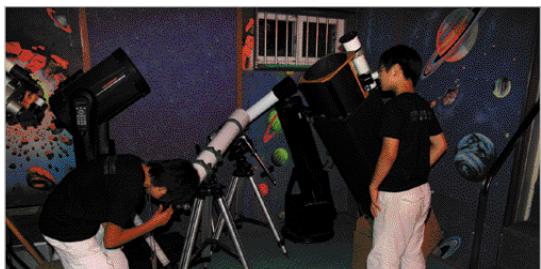
▲ 선사유적지 방문



▲ 학무정 방문



▲ 속초실향민문화촌



▲ 별자리 관측



▲ 캠프파이어



▲ 민속놀이체험



▲ 태양계 관측



▲ 별자리교육



2007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설악미니콘서트

속초문화원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2007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속초예총, 속초민예총과 함께 개최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청초호 유원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속초 지역의 다양한 문화공연과 최신 가족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특히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2007 설악미니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든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과 함께 속초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속초도문농요’와 ‘속초사자놀음’ 공연이 열려 그 의미를 더한 공연이었다.

- 일 자 : 7. 31~8. 7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 장 소 : 청초호 유원지 상징탑 광장 옆 주차장 부지
- 행사일정 : 7. 31 - 도문농요, 도립예술단, 가족영화 : 박물관이 살아있다.
 - 8. 1 - 광명 두드락, 가족영화 : 퀘이담(태양의 서커스)
 - 8. 2 - 유진박 밴드, 가족영화 : 괴물
 - 8. 3 - 국악과 재즈(박윤초, 꽃별, 신판웅재즈밴드), 가족영화 : 마음이
 - 8. 4 - 추억의 7080(이동원, 소리새, 이경우 외), 가족영화 : 샬롯의 거미줄(애니메이션)
 - 8. 5 - 블랙홀, 가족영화 : 포세이돈
 - 8. 6 - 북청사자놀음, 전통풍물놀이, 가족영화 : CAR(애니메이션)
 - 8. 7 - 색소폰, 추예인, 퍼니밴드, 캡 크루, 가족영화 : 슈퍼맨리턴즈



▲ 국악과 재즈



▲ 추억의 7080



▲ 추예인



▲ 초청공연 - 블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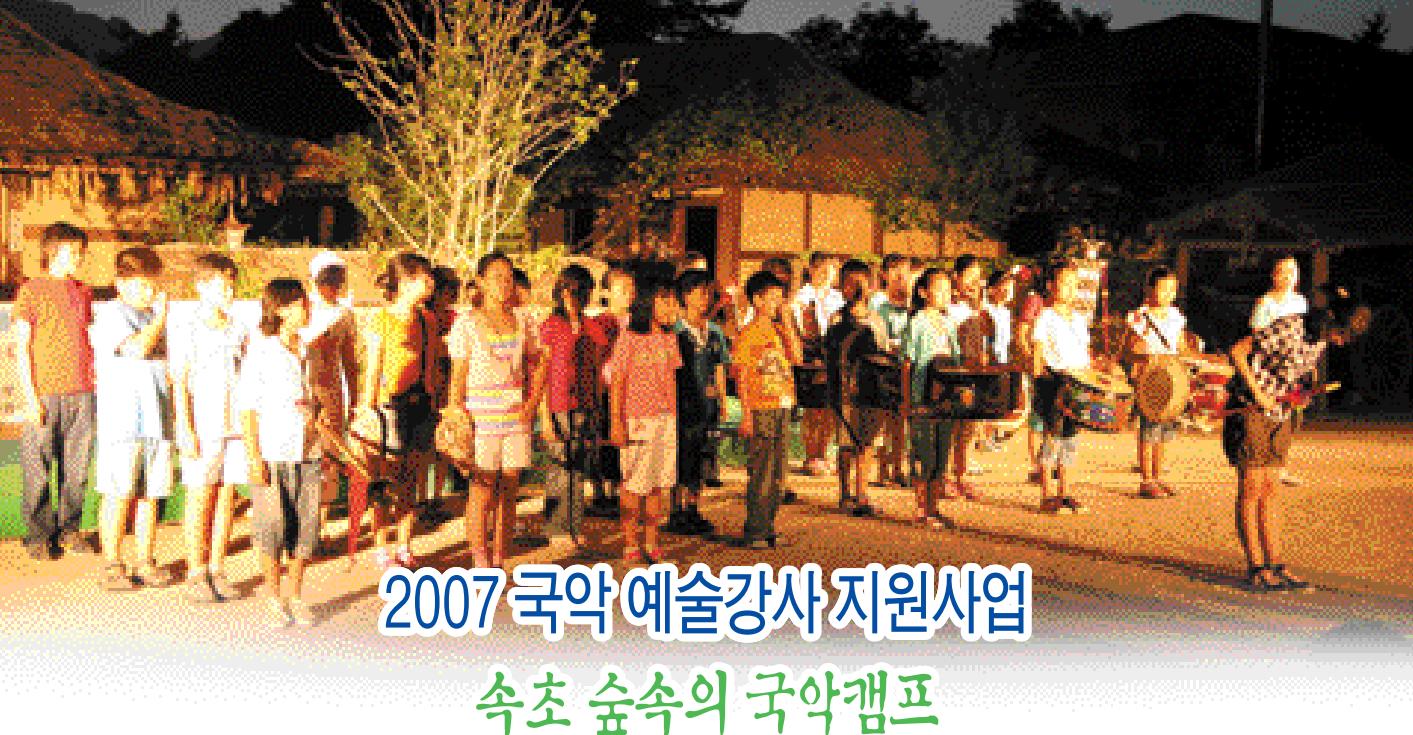


▲ 속초시립풍물단



▲ 북청사자놀음





2007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 속초 숲속의 국악캠프

2007 국악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속초 숲속의 국악캠프’가 지난 8월 13일에서 15일 까지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참가학생들에게 학교교과 수업에서 벗어난 새로 운 국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놀이와 교육을 겸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국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 참가학생들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공동체 놀이활동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친화력과 협동심을 배양하게 되었다.

특히, 참가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만큼 교육의 집중도를 높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전통악기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속초문화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문화체험의 폭을 넓혀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참가자 모두 향토문화의 지킴이가 되어 향토문화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기 간 : 8월 13일~15일
- 장 소 : 속초시립박물관
- 교육내용 : 사물놀이, 취타대, 도문농요 배우기





제42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설악제례는 설악문화제를 맞아 산신제, 용왕제, 성황제, 망향제, 삼신합동제, 조전제, 송신제 등의 제례의식을 거행하여 속초의 번영과 속초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지난해부터 속초문화원에서 담당한 이후 그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난 설악제례는 지난 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더욱 알찬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설악제례를 통해 설악문화제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례의식 그 자체가 설악문화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기간 : 10.11~14
- 장소 : 설악산신 제단 외 5곳
- 주관 : 속초문화원
- 내용 : 설악산신제, 용왕제, 성황제, 망향제, 삼신합동제, 조전제, 송신제

- 10. 11 10:00~10:30 산신맞이굿(무속인협회)
10:30~12:30 설악산신제(설악산소공원)
14:00~14:30 용왕맞이굿(무속인협회)
14:30~15:30 용왕제(해맞이공원)
17:00~18:00 성황제(동명동)
- 10. 12 15:00~16:00 망향제(수복탑)
18:00~19:00 삼신합동제(설악제례 제례당)
- 10. 13 09:30~10:00 조전제(설악제례 제례당)
- 10. 14 09:30~10:00 조전제(설악제례 제례당)
18:30~19:00 송신제(설악제례 제례당)





주민자치박람회 개막공연

속초문화원은 지난 10월 11일 속초시가 주최하는 ‘2007 주민자치박람회’의 개막 공연 행사를 진행하였다. ‘2007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청초호 유원지에서 열린 행사로 속초시와 (사)열린사회시민사회연합이 공동 주최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학술행사와 문화교류행사, 참여행사, 강원도 특산품 홍보 등의 다양한 문화 및 체험행사가 열렸다.

주민자치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개막공연은 바비킴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개막축하 라디오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었다.

- 주 죄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일 시 : 2007. 10. 11(목) 16:30~20:20
 - 장 소 :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 특설무대
 - 초청공연 : 바비킴, 우현석(클릭비), 타카피, 카이블루, 데미갓, GTF
문희옥, 한서경, 전승희, 김종환, 정민, 한봉우, 파파스





과



월드 뮤직 팀과 함께하는 설악관광 · 쇼핑거리 페스티벌

속초문화원은 지난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속초시 중앙로 리복 앞과 블루마린 관광호텔 광장 등 두 곳에서 ‘월드 뮤직 팀과 함께하는 설악관광 · 쇼핑거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이 공연은 설악관광 · 쇼핑거리 조성과 연계한 야간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열리는 이번 공연은 월드 뮤직팀 공연과 지역 가수 공연, 국악, 무용, 청소년 참여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4인조 러시아 퓨전제즈 밴드인 ‘알렉스밴드’와 4인조 라틴팝 뮤지션 ‘차니라티노’, 3인조로 구성된 안데스 및 북미 인디언음악 밴드 ‘잉카사마이’가 참가하는 월드뮤직팀 공연은 이색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 기간 : 9월 7일(금)~11월 17일(토)
- 시간 : 매주 금, 토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 장소 : 2곳(리복 앞, 블루마린호텔 광장 앞)
- 공연내용
 - 음악분야 : 통키타, 색소폰, 지역가수
 - 국악분야 : 사물놀이, 모듬북, 타악연주
 - 무용분야 : 전통 및 창작 무용,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 청소년 참여마당 : 힙합댄스, 랩, 건전가요, 최신가요 등
 - 외국인 공연 : 라틴팝, 북미 및 안데스 음악, 퓨전제즈밴드 등



▲ 알렉스밴드



▲ 지역가수 '어필'



▲ 신천 무용단



▲ 힙합댄스 '오락실'



▲ 갯마당 '설장구'



▲ 지역가수 '김진우'



▲ 잉카사마이



▲ 벨리댄스 '카스파'



▲ 속초사자놀음



▲ 어머니 민요합창단



2007년 문화전수교육

“친구랑 함께하는 우리문화 한마당”

지난 11월 28일 10시부터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과 특강이 어우러진 ‘친구랑 함께 하는 우리 문화 한마당’을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속초문화원 노광복 원장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희망을 들려주는 생활문화 특강을 시작으로 2007년도 실버사랑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의 악극 ‘사랑일레라’가 공연되어 세대간 문화교류라는 색다른 의미를 전했다.

이어서 속초문화원이 지역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양성하고 있는 ‘속초사자놀음’과 지역가수 김진우씨의 공연에 이어 전자현악그룹인 ‘샤인’과 밸리댄스, 비보이 오리지날 웨스턴 크루의 공연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학업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수준 높은 지역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었다.

한편 이날 공연은 속초고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속초상업고등학교 등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50여명이 함께 했다.

- 일 시 : 2007. 11. 28(수) 10:00~12:00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참가대상 : 속초고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속초상업고등학교 3학년 (총 950명)
- 행사내용
 - 사회문화 특강 노광복 속초문화원장
 - 초청공연
 - *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악극 공연 : ‘아, 사랑일레라!’
 - * 밸리댄스 “카스파”
 - * 속초사자놀음
 - * 지역가수 “김진우”
 - * 전자현악 “샤인”
 - * 비보이 그룹 “오리지날 웨스턴 크루”



▲ 노광복 속초문화원장 특강



▲ 악극 ‘아, 사랑일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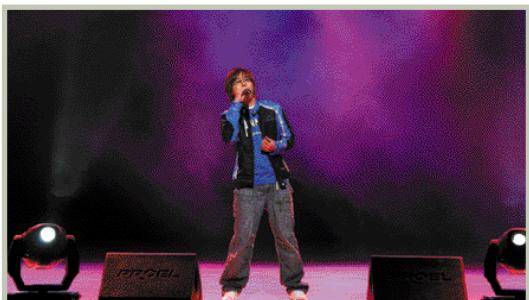
▲ 밸리댄스 ‘카스파’



▲ 속초사자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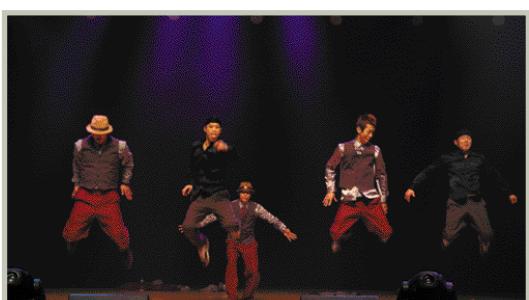
▲ 사회자 ‘김귀선’



▲ 지역가수 ‘김진우’



▲ 전자현악 ‘샤인’



▲ 비보이그룹 ‘오리지날 웨스턴 크루’

한국문화학교 제15기생 수료식 및 발표회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및 전시실에서 한국문화학교 제15기생의 수료식과 발표회가 열렸다.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는 1993년부터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설하여, 현재까지 2만여 명의 문화가족들에게 문화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서예교실, 민요교실, 노래교실, 사물놀이, 장구초급반, 북청사자연희반, 한지공예반이 개설되어 300여명의 회원이 기량을 닦아 왔다.

11월 29일 첫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예교실과 한지공예반'에서 준비한 전시회의 개전식이 열린 후, 11시부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수료식에서는 우수 수강생 표창과 강사소개, 수료증 수여 등의 행사가 열렸다. 이후 11시 20분부터는 민요, 노래, 사물놀이, 장구, 북청사자연희반의 발표회 공연이 이어지고 특별행사로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의 악극 공연이 선보였다.





○ 일 시 : 2007. 11. 29(목)~12. 1(토)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 및 소강당,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주 최 : 속초시, 속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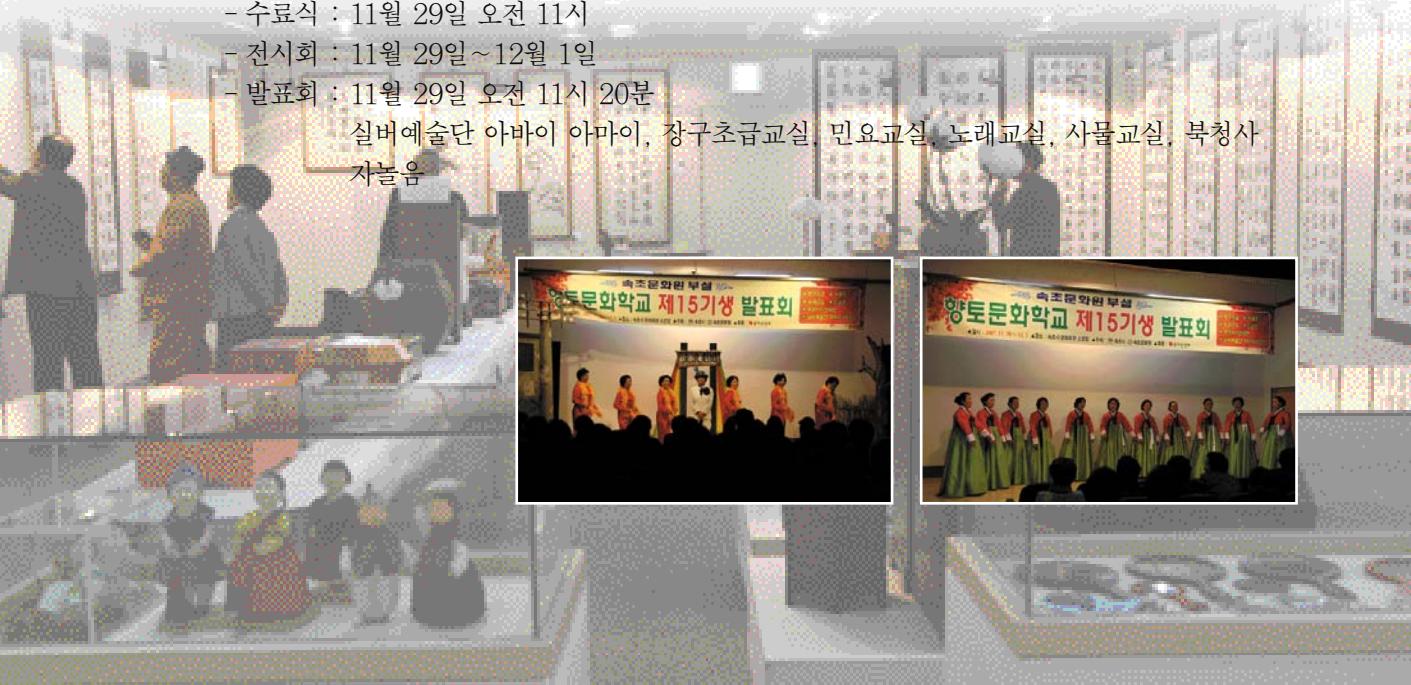
○ 내 용

- 수료식 : 11월 29일 오전 11시

- 전시회 : 11월 29일~12월 1일

- 발표회 : 11월 29일 오전 11시 20분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장구초급교실, 민요교실, 노래교실, 사물교실, 북청사
 자놀음





실버문화사랑축제 공연부문 최우수상 수상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속초문화원이 양성해온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가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에서 공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는 2007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간 문화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국무총리복권위원회에서 후원하는 행사. 지난 10월 20일(토)부터 22일(월)까지 일산 호수공원 내 꽃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문화부장관상인 대상에는 평택문화원의 <실버세대가 만드는 희망의 안테나 “솟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76개 문화원과 전국의 실버스타, 실버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한 이 행사에서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가 공연한 작품은 악극 ‘사랑일레라’. 속초민의 고장인 속초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작품으로 6·25 전쟁의 와중에 헤어져야 했던 연인이 속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의 묘미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연기와 노래, 춤을 공연한다는 점. 이들 모두 속초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실버들로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5개월간 속초문화원, 극단 ‘굴렁쇠’(대표 김귀선)의 대표강사들과 함께 맹연습을 하였다. 작품을 감상한 심사위원들 모두 전문연기자에 벼금가는 실버들의 연기실력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다양한 노래도 악극의 재미를 살렸다. ‘감격시대’, ‘굳세어라 금순아’, ‘희망의 나라로’, ‘이별의 부산정거장’, ‘가거라 삼팔선아’ 등의 주옥같은 옛노래가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는 이 상의 수상 이후 각종 매스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고,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펼쳤다.

속초문화원은 2008년도에는 이 공연을 속초시립박물관의 상설공연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속초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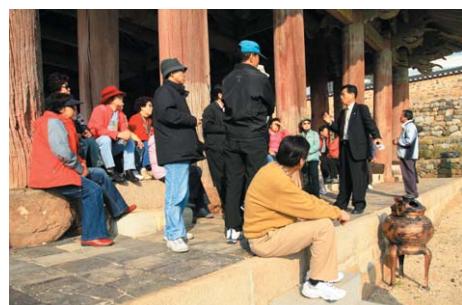




2007 문화유적답사

2007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동안 '2007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올해 속초문화원의 문화유적답사는 2012년 여수엑스포가 확정된 여수의 한려해상국립공원과 APEC 이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 동백섬 누리마루홀을 다녀왔다. 기간은 2007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이고 속초문화원 임원과 회원 40여명이 문화유적답사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문화유적답사를 통해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습과 행사유치 후 새로운 문화명물로 떠오른 누리마루를 통해 문화의 또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속초실향민 문화콘텐츠 학술 세미나

· 일시 : 2007. 12. 15(토) 13:00 ~ 16:00 · 장소 : 속초시립박물관 대강당 및 문화마당
· 주최 : 속초문화원 · 후원 : 영릉지구 이북도민회



속초실향민

문화콘텐츠 학술세미나

- 실향민 문화의 문화콘텐츠化 -

지난 12월 15일(토) 오후 1시부터 속초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속초실향민 문화콘텐츠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속초지역 특유의 실향민 문화를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

이 날 세미나의 기조 강연은 강원대 김의숙 교수의 ‘실향민 문화의 문화콘텐츠化’. 김교수는 실향민문화촌과 민요, 구비전승의 문화실태를 조사한 후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제1발표는 함석종 교수(강릉대 관광학과)의 ‘실향민 테마축제의 방향과 구성’, 제2발표는 송주은 교수(동우대 호텔조리학과)의 ‘실향민 음식의 상품화 개발 방안’, 제3발표는 장정룡 교수(강릉대 국문학과)의 ‘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 개발’이 각각 발표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엄경선 투어설악닷컴 대표는 실향민문화축제의 실질적인 추진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고, 장재환 설악신문 편집국장은 실향민 문화를 보존하고 집약할 수 있는 이북5도민자료보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 학예담당은 보다 치밀한 기획과 컨셉으로 실향민문화의 원형보존과 계승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실향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세미나 개최 전에 속초문화원이 양성한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의 악극 ‘아, 사랑일레라!’를 공연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속초사자놀음보존회의 ‘속초사자놀음’이 공연되어 속초가 전승지인 속초 특유의 사자놀음을 만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북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순대’가 마련되어 세미나 참가자들이 실향민 음식문화를 체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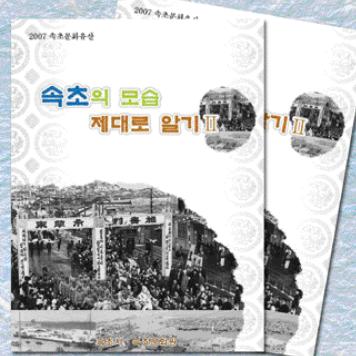




『국역 매곡일기』

『국역 매곡일기』는 속초의 대표적인 유학자 매곡 오윤환 선생이 19세인 1891년 2월부터 74세로 돌아가시기 전일인 1946년 7월 11일까지 55년간 쓴 일기를 국역한 책이다.

개인적인 일기여서 문체는 비교적 비망기(備忘記)처럼 간략하고 평이한 문체로 쓰여져 있지만 날씨와 절기, 문인들이 왕래한 내용, 학도들을 지도한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속초지역의 지리, 날씨 등 향토문화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Ⅱ』

400쪽 분량의 이 책은 속초의 자연환경, 속초의 역사, 속초의 지명, 속초의 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속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1930년대부터 최근까지 속초시 각 동과 관광지의 변천을 담은 ‘사진으로 보는 속초의 발자취’와 ‘만화로 보는 속초문화’도 실려 읽는 재미를 더했다.

주간 설악신문

주간설악신문 제813호 | 2007년 6월 25일㈮ | 대표전화 033-636-2222 | http://eonnews.co.kr

아이라이트 제1회 회랑산발대회

속초 다녀간 영랑·술랑·안상·남석행 선발

이번 제3회 회랑산발대회의 참가팀이 드디어 회랑산발대회였다. 속초를 다녀간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을 선별하는 회랑산발대회에는 초등부 27팀, 중등부 53팀 등 모두 125팀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회랑산발대회는 아름간 IX 퀴즈, 활쏘기, 봉송대연, 허리

춤 단기기, 시제짓기, 속초의 뿌리찾기 과거시합 등 6개 종목에 걸쳐 경쟁을 벌여 4명의 회랑을 선별하였다.

첫 종목인 IX 퀴즈의 전술대연, 8리충당기기는 대체로 비슷한 실력을 보여 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활쏘기에서 고貂장을 차지한 경우 점수 확보가 유리했다.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회랑산발대회는 새마을들이 서예봉사에서 기획단위를 기준으로 단위 단체로 토너먼트를 펼쳤다.

도 무형문화재 도문농요 강릉단오제 초청공연 가져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이름난 전통 연희들만 펼친다는 강릉 단오제 전통연희한마당 행사에 속초도문농요가 초청돼 사연을 펼쳤다.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강릉 낭대천 일원에서 열린 2007 강릉단오제에서 도 무형문화재 지정 20호인 속초 도문농요가 초청, 공연을 가졌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전통 연희들만 초청된다 는 강릉단오제 전통연희한마당 행사에 도문농요가 초청 공연을 펼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해로 두 번째.

도문농요보존회(회장 오순석)는 강릉 문화재 전문공연장인 어울미당에서 하회벌 신굿탈놀이, 정선아리랑, 봉산탈춤 등 중요무형문화재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이우철기자

이틀간의 경쟁 결과 중등부 1위 양단에 는 심윤진(속초중 3년), 2위 송윤원(백운진(속초중 3년), 초등부 1위 인성에 김준호(교동초 6년), 2위 남석행에는 송언진(청대초 6년)이 각각 선발됐다.

이번 대회에서 회랑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30명은 상당히 상불관과 시집박물관 연중으로 이용권, 내년 제4회 회랑산발대회 전 라플릿 키지모델, 시 행사사 우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이우철기자

회랑선발자 인터뷰

○…영랑 성윤정(속초 중 5년): 총점 93.8. “비록 만큼의 성적이 나온 것 같아 기쁘요. 속초에 대한 책자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IX 퀴즈와 과거시합을 준비했어요. 다른 것은 다 민족민족 활쏘기와 시제 짓기에서 좋은 성적을 끛낸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민족스러웠어요.”



○…술랑 박유진(속초 중 5년): 총점 84.8. “첫 날 활쏘기를 망쳐서 솔직히 기대를 안았어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미를 두고 계속 참기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아 기뻤어요. 친구들하고 속초문화원장을 보고 의견을 나누는 효과를 볼수록 본 것 같아요.”



속초문화원 서예교실 홍재미술대전 8명 입상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제35회 한·중서화교류전 및 제19회 홍재(정조대왕) 미술대전에서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서예교실 수강생들이 대거 입선했다.

속초문화원은 지난달 27일 실시된 심사결과 안희성씨가 특선을 차지했으며 정진무, 이외배, 한초자, 유향근, 조두영(이상 해서부문), 한정희(행서), 한경희(예서)씨 등 7명이 입선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7월 14일 과천시 민화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이우철기자



속초문화원 부설 재민기 문화학교 수료식이 지난달 29일 속초문화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문화학교 15기 140명 수료 속초문화원, 한자공예 등 7개 강좌

속초문화원 부설 한글문화학교 15기 수강생들이 1년간의 수업을 마치고 지난달 29일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아날 수료식에서는 올해 신설한 복합사자인회교실 11명, 한자공예교실 8명을 비롯해 노래교실 57명, 사물놀이교실 25명, 서예교실 22명, 민요교실 13명, 장구교실 4명 등 모두 7개 강좌 140명의 회원들에 게 수료증이 전해졌다.

또 손문자씨(한자공예)와 이용복씨(장구), 김경숙·이태숙씨(사물놀이), 유한근·한효자씨(서예), 김금순·심종길씨(노래), 유인래씨(민요), 김준형씨(복합사자) 등 10명이 우수 수강생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속초문화원은 올해 문화학교 7개 교실을 운영한 결과 전통문화의 떡을 이으면서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한 단계 발전 문화사진 것은 물론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광가했다.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은 “1년간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문화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철 기자

‘실향민 문화’ 관광상품화한다

속초문화원서 15일 학술세미나·음식체험 행사 등 진행

【속초】속초시의 실향민 문화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대형 축제인 ‘이야이’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속초읍립박물관 대강당에서 속초성민 문화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김여숙(강릉미술관) 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살펴보는 문화관련 혼란, 실향민문화와 민요, 구례승승의 문화활약과 조선시대 후 문학관련으로 만들

기 위한 정의를 제시한다.

이어 황금우(강릉미술관학과) 교수의 ‘실향민 대마제지의 향과 구역’, 송은은(충무대호국학과) 교수의 ‘남한산을 찾은 사람과 개성방언’, 정관용(강릉미국학과) 교수의 ‘실향민 문화관련 축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 후에는 속초시자연보존회와 속초시자연을 공연에 이용한 이벤트로 실향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형 축제행사도 진행된다. 세미나가 열리면서 앞서 속초문화원은 실마리예술단 ‘이야이 이야기’와 함께 이어온 전통문화를 계승해나갈 예정이다.

권원근기자

실향민 애환담은 악극 전국 유팽다

속초문화원 ‘봉평령 실픰문화학교’, 전국 실픰축제서 최우수상 차지

속초문화원 ‘봉평령 실픰문화학교’ 수료생들로부터 실픰민 지역의 특수성을 소재로 잘 살렸으며, 출단 ‘이야이 이야기’가 지난 전문 연구자 및 많은 연기력을 보여준다며 평가를 받았다. 20~22일까지 경기 곳곳에서 열린 2007 실픰문화학교에서는 전국 실픰축제 최우수상과 함께 ‘희망의 나루토’, 노래 ‘봉평령’, ‘희망의 나루토’, 노래 ‘봉평령’, ‘기기타’ 등 무대가 소개되는 등 주제곡은 물론 노래가 그것이 주제로 춤을 추었을 때는 춤을 안은 것도 좋은 풍수를 얻는데 도움이 됐다.

속초문화원은 이번 축제에서 지난 6월 7일 문을 연 ‘봉평령 실픰문화학교’는 최근 국립극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극장 김기현 대표의 식당문화, 주예인의 ‘봉평령’을 주제로 춤과 노래, 전통무용으로 춤을 추었다. 이날 축제에는 전국에서 100여 팀이 참가한 가운데 10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것이다.

속초문화원은 이번 축제에서 지난 6월 7일 문을 연 ‘봉평령 실픰문화학교’는 최근 국립극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극장 김기현 대표의 식당문화, 주예인의 ‘봉평령’을 주제로 춤과 노래, 전통무용으로 춤을 추었다. 이날 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열린 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것이다.

2007 실픰문화학교에 참가한 속초문화원 출연팀은 전국에서 ‘이야이 이야기’라는 제

제로 출연을 맡고 있다.

(60), 김경선(60), 민경자(60), 이

영문(58), 이강무(58), 김준자

선자(64), 김준하(53), 김예분

(56), 안상수(57), 유헌(56), 최

경(57), 이정자(57), 이태숙(63), 최

순(54), 이정숙(57), 남정순

(52), 이정숙(57), 김정자(62), 강

0주철기자

‘은발’의 열정 ‘금전’으로 보상

속초시 실비예술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속초】속초시가 노인자리 사업으로 예술활동 등에 관심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실비 예술단을 운영, 기본의 회복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속초시가 대폭면 속초문화원이 지난 6개월간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인 실비예술단의 지속적인 활동과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실비예술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속초문화원에서 양성해 온 실바예술단 ‘이야이 이야기’를 속초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속초시 노인 일자리



○속초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극연단을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으로 연계하게 됐으며 문화예술사업을 실시해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을 찾아

문화활동을 펼침 계획이다.

실비예술단은 제42회 실픰문화제 기간 운영을 결론으며 현국민문화연합에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국무총리복권위 원에서 후원하는 2007 실픰문화사랑 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실픰예술단은 30일 문화회관에서 해오 미작입장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는 등 12회 펼쳐지며 총 11회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실픰예술단은 6세 이상 노인 3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월 20만원의 근로비가 지원된다.

이기용기자 kyuen@knews.co.kr

원장동정

춘천지방청 속초지청 특강



지난 2007년 6월 5일 속초지청에서는 뜻깊은 강의가 열렸다.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이 춘천지방청 속초지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속초의 문화 역사에 대해 1시간 가량 강의를 한 것. 이번 강의는 속초지청 진경준 지청장의 요청으로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속초시가 승격된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처음으로 갖는 특강이었다.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은 이번 강의에서 속초의 역사적 유래와 문화에 대해 강의를 하여 속초지청 임직원들이 속초에 대해 더욱 친근감을 갖도록 하였다.

/특집/

실향민 문화콘텐츠

- 실향민문화의 콘텐츠화
- 속초 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
- 실향민테마축제의 방향과 구성
- 실향민 음식의 상품화 개발방안

실향문화의 문화콘텐츠化

김 의 숙(강원대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1. 실향민의 정체성

어느 집단이나 조직의 문화는 구성원이 이루어낸 공간적,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실향민문화를 바로보기 위해서는 실향민의 정체성을 추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향민(失鄉民)이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댐 건설로 고향이 수몰되어 버린 사람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고향이 없어져버린 사람도 실향민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고향을 떠난 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망명, 경제적 궁핍, 강제 동원, 전쟁 등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인 난민(難民, refugee)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에게 쫓겨난 팔레스타인,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황량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까레스키(고려인), 중국의 침략과 합병으로 조국을 떠나 인도나 주변국의 변방에서 살아가는 티베트인들, 1999년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세르비아인에 의해 국경 밖으로 쫓겨난 50만에 이르는 알바니아계 코소보 지역 주민, 지금 중국 등지에서 학대를 받으며 공포 속에서 떠돌고 있는 북한 탈주민들이 실향민이며 난민이다.

한국땅에서 실향민이란 8·15광복 이후 남북분단으로 왕래가 끊겨 북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한에 그대로 정착한 북한 출신들, 또는 6·25전쟁 때 공산사회체제를 반대하여 자유를 찾아 월남한 사람들을 총칭하여 이른다.¹⁾

현재 남한에는 본인의 2,3세까지 합쳐 대략 1천만 명의 실향민(이산가족)이 있다. 이들 중에는 일가족이 모두 남하하여 정착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분단이나 피난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연로한 부모님이나 부녀자를 고향에 두고 온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다.

1)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으니 즉 강제납북했던 자진월북했던 간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동포들도 두고온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천만에 이르는 실향민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도 민족 전체가 수향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바로 통일이다.



인간은 본래 수구초심(首丘初心)과 항수(鄉愁)를 안고서 사는 존재이다. 수많은 실향민들은 고향에 가까운 곳에 둑지를 틀었다.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의 조양상사(서울) 박상섭 회장이 말년에 북한의 고향과 가까운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원대학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한 사실이 그 근거이다.

실향민들은 반세기 동안 이러한 본심을 접은 채로 살아왔다. 그래서 개중에는 항수병에 걸리고, 이방인으로서 방황하고 좌절하거나, 혹은 술잔을 기울이며 대중가요 <머나먼 고향>의 가사를 바꿔 부르면서 실향(失鄉)의 설움을 달랜다.

머나먼 북쪽(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
사랑하는 부모형제 이 몸을 기다려
천리타향 낯설은 길 헤매는 발길
한잔 술에 설움을 타서 마시면
마음은 고향하늘을 달려 갑니다.



▲ 피난민 수레(속초실향민문화촌)

그리고 조국분단의 비극을 한탄하고 급기야 “나 죽기 전에 고향가기는 틀렸다”고 한숨을 쉬며 체념한다.

그러나 이들은 고향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바로 이들의 앞에는 생존(生存)이라는 급박한 현실이 있었다. 이들은 불굴의 의지력으로써 스스로 현실을 극복하고 맨손으로 자수성가하였다. 이들은 특히 동향인 간에 단결력이 뛰어나 이미 광복 초기부터 친목과 상조를 위하여 각 도에 도민회를 조직하였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맷힘은 풀어야 한다. 풀지 못하면 한(恨)으로 남는다. 실향민의 해원(解冤)굿은 이산가족끼리의 서신왕래와 제한된 공간이나 시간을 넘어 가족상봉이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을 때에야 신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실향민’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지 않는 그런 날이 조속히 도래하여야 한다.

실향민은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향민은 민족분단이라는 비극적 역사의 희생자로서 상실의 고통을 지닌 사람들이다.

둘째, 실향민은 대체로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객지에서 자기실현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셋째, 실향민은 끼리끼리의 모듬살이를 추구하면서 늘상 고향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향민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엄연한 비극적 역사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50년(반세기) 세월의 실향민사(失鄉民史)를 찾아내어 접근하기 껄끄러운 전쟁사 쪽보

다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쪽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정서적, 교육적, 실험적 심성이 콘텐츠와 만나 역사인식과 교훈이라는 대주제를 선명히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실향민문화촌>의 설립과 금번 <속초실향민과 문화콘텐츠 학술세미나>는 그 의의가 매우 중차대하다.

2. 실향민문화의 현주소

인간은 육신과 정신이라는 이중구조로써 존재한다. 이들이 활동하려면 에너지원을 섭취해야 하는데 육신은 음식물을 먹어야 하고 정신은 문화를 섭생해야 제대로 존재가치를 발휘한다. 그렇다면 실향민들은 어떤 문화를 만들고 섭취하면서 오늘까지 왔을까?

우리 사회와 국가는 그간 살기에 바쁘고 정치적 혼란이 빈번한 탓으로 실향민들의 고통과 문화 정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1949년에 이북5도청이 설립되었으나 이북 5도민회를 비롯하여 각 군민회와 향우회 등의 조직과 모임은 실향민들이 자구 노력한 결과이다. 제 목소리를 내는 통일부가 설치되고 이산가족찾기사업을 실시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실향민들은 같은 동향인끼리 모여 정착촌을 이룬 경우도 많았으니 서울 용산구 남산 기슭의 해방촌²⁾을 비롯하여 속초의 아바이마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마을에서는 각종 친목회와 · 장학회 등이 운영되고, 명절에는 합동으로 실향제(失鄉祭)를 올린다. 임진각에는 망향단이 있어서 명절에 북쪽을 향해 절하고 제사를 지낸다. 파주의 동화경모공원은 실향인사들이 선호하는 묘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북5도청 및 이북5도민회 등은 각종의 기관지를 발행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통일의 염원을 실어낸다. 일례로 평남민보(平南民報)에 대한 평을 들어보자.

“평남민보는 130여만 평안도민의 소식지로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공기(公器)로,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까지 도민들의生生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민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키워주고, 동시에 통일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귀중한 존재이다.”³⁾

실향민 음식문화로는 아바이순대와 오징어순대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함경도 명천의 태씨(太氏)가 처음 잡았다는 명태로 빚은 명란젓과 식해 및 황태구이도 실향민 음식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해방촌은 강원도 화천군 다목리에도 있다. 적송인 황장복이 많다고 해서 多木里로 부르는 이 마을에 해방 및 수복 후에 실향민들이 아무나 와서 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해방촌이라 하였다.(화천민속지, 화천군, 2004, 145쪽)

3)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의 박상섭 회장이 평남민보에 후원금 1억원을쾌척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박상섭 회장 회고록, 애향봉사 반세기, 그 발자취, 78쪽, 2005.10.31, 서울 조양상사)



실향민의 공연문화로는 〈속초사자놀음〉이 재현되고, 〈속초정착이야기〉가 실향민 아바이아 마이 악극으로 공연된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속초시립박물관과 연계하여 실향민문화촌을 준공한 때는 지금부터 딱 두 해 전인 2005년 11월이다.⁴⁾ 시립박물관에는 민속 및 문화재 자료가 소재별, 시기별로 테마 전시되어 있다. 실향민문화촌에는 개성의 모자형 한옥(똬리집)과 평양의 냐자형 한옥(꺽임집), 평안도의 쌍채집 등 이북 5도의 전통한옥 5채를 비롯해 옛날 속초 역사, 실향민 가옥과 각종 자료 등이 복원돼 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그리고 전통가옥에서 숙박 체험도 가능하다.

3. 실향민문화의 문화콘텐츠화

21세기는 주지하는 바대로 ‘정보’와 ‘문화’의 시대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이다. 특히 문화산업은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해서 작금에 그 부가가치를 확인받고 있다.

그러한 문화산업의 꽃이 ‘문화콘텐츠’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관련 연구소와 관련 학과 설립 등이 다양하고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다.

1) 실향민박물관과 문화촌

2년 전 속초 노학동 바로 여기에 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이 건립되었다. 이것은 실향민의 역사와 문화를 콘텐츠화해서 보여준 폐거이다. 필자는 진작부터 실향민문화를 콘텐츠화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실향민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보존하는 그리운고향박물관 또는 문화촌의 건립을 구상하여 왔다. 그 구상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매사에는 완벽이라는 것이 없는 법이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촌이나 박물관이 보완할 점이 있을 때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사업 목적

- 실향민들과 민족분단의 역사를 자취로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
- 실향민들의 소장품, 채록물, 영상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하고 체험하도록 하며,
- 실향민 연구와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그리운고향박물관』건립을 추진한다.

4) 단위 건축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인 1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5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지하 1층, 지상 3층 1,257평 규모의 박물관과, 이북 5도의 전통가옥, 실향민 가옥 등을 복원한 실향민문화촌은 울산바위를 품에 안고 동해바다를 아우르는 속초시 노학동 한옥 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2) 『그리운고향박물관』내용

- 실향민 전시실
 - 자서전, 인물열전, 체험담, 녹취물
 - 소장 민속품(개인 및 단체)
 - 사진자료(가족, 옛집, 고향 및 명산대천)
 - 그리운 고향의 민요와 옛이야기, 사투리(방언) 채록물
 - 그리운 고향의 지도 및 영상물
- 그리운 고향 체험관
 - 전통 주거공간 설치 및 민속품 사용 체험
 - 개성, 평양, 함흥 음식(냉면), 김치 만들고 맛보기
 - 그리운 고향의 사투리 체험
 - 그리운 고향의 민속놀이 체험
- 명예의 전당
 - 실향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귀감이 되신 분
 - 실향민 사업에 공헌 하신 분
 - 일반에 귀감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

(3) 실향민의 삶과 역사자료 발굴 및 내용

-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 자서전, 인물열전, 체험담, 녹취물
- 내가 아끼던 거야요 - 소장 민속품, 사진, 기타
- 내가 좋아했던 민요와 옛이야기, 사투리(방언) 채록물
- 그리운 고향의 지도, 명산대천 사진, 영상물

(4) 『실향민 재단』설립 및 설립 내용

- 민족 분단의 한과 역사를 주제로 한 영상물 채록 및 제작
- 그리운 고향의 지도, 명산대천 사진, 영상물
- 실향민 후세에 대한 장학금 조성 및 지급
- 실향민에 대한 연구 논문 및 저술 발간
- 실향민 관련 강연회/특강 개최
- 그리운 고향의 민요, 설화, 체험담 채록 등 자료수집
- 명사의 자서전 편찬
- 민족 분단의 한과 역사를 주제로 한 영상물 채록 및 제작

(5) 사업의 기대효과

- 기증자의 개인 소장품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



- 실향민 유산의 산 증거를 기록 전시
- 우리 민족의 역사적 증거물 보존
- 후세교육의 자료로 활용
- 실향민 후세의 자기 정체성 확인
- 실향민의 자존심과 자긍심 고취

2) 실향민의 구비전승

무릇 문화콘텐츠의 중심에 스토리텔링이 있다. 문화콘텐츠의 성패는 바로 ‘스토리’가 좌우 한다. 이를테면 영화 <디워>가 외국에서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점은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의 효과가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적 구비전승인 <이무기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무기이야기>는 귀에 익숙하여 진부한 이야기에 해당할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그들이 알고있는, 무섭고도 악독한 용과는 달리 그것과 유사하기는 해도 낭만과 사연이 있는 <이무기이야기>는 처음들어보는 신기한 이야기이므로 그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각종의 한국적인 설화(신화, 전설, 민담) 가운데는 조신설화, 심화요탑, 아기장수설화, 장자못전설, 자청비 등과 같이 그것을 적절히 스토리텔링해서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연극, 뮤지컬, 축제 등에 접맥시키면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클 수 있는 잠재소(潛在素)들이 풍부하다.

실향민들이 알고있는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금강산과 관련된 스토리이다. <울산바위 이야기>와 <나무꾼과 선녀>도 금강산권 이야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나무꾼과 선녀>를 스토리텔링하여 보자.

과거에 금강산에는 착하고 순진한 나무꾼이 살았다. 어느날 그가 나무를 하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한 마리를 살려주고는 사슴 덕으로 선녀와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사슴의 당부를 어기고 아이를 셋을 날 때까지는 주지 말라는 날개옷을 내주는 바람에 옷을 입은 선녀가 양팔에 아이 하나씩을 안고 천상으로 승천하여 버린다. 절망하던 나무꾼은 다시 사슴의 지시로 천상에서 내려온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 선녀와 자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스토리이다.

이상의 구비전승 스토리는 보다 입체적인 반전적 구조를 갖추지 못한데다가 주제의식을 추출하기도 어려워서 문화콘텐츠로서 존립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더 확장된 이야기를 천착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자.

<나무꾼과 선녀>의 또 다른 버전들이 있다. 그 다른 버전의 스토리는 이상에 제시한 버전의 스토리와 같으나 다만 나타나지 않은 후반부가 전개되어 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천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통과의례를 다양하게 받으나 마침내 합격하여 일원이 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지상에 혼자 남겨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메어 천상의 삶도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서 선녀에게 어머니를 한번만이라도 뵙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묻는다. 드디어 옥황상제의 윤허를 받는다. 그런데 천마를 내주면서 옥황상제는 금기를 제시한다. 즉 지상에 내려가도 발로 땅을 밟으면 다시 천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명심한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금강산으로 내려와 그리운 어머니를 반갑게 상봉한다. 그러나 말에서 내릴 수 없기에 말을 탄 채 어머님을 뵙는다. 어머니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되어 한없이 반가우나 또 떠나야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맛있고 귀한 팔죽이라도 끓여서 먹여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뜨끈하게 잘 끓여서 말등 위에 있는 아들에게 건넨다. 그때 아들이 잘못 받아 하필이면 뜨거운 팔죽이 말등에 쏟아졌다. 놀란 말이 들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말등에서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꾼은 천상의 아내와 애들이 그리울 때면 지붕 위로 올라가 하늘을 우러러 슬프게 울며 애태게 불러대었다. 그러다가 나무꾼은 먼 곳을 향해 길게 목을 빼어 울어대는 장닭이 되었다.

B - 천상에서 선녀와 애들과 함께 살던 나무꾼은 웬지 천상의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 자꾸만 금강산의 그 아름다운 풍경과 정서와 이웃이 그리웠다. 마침내 향수병에 걸린 나무꾼은 선녀와 상의하여 동의를 얻고는 가족이 함께 금강산의 옛집으로 내려와서 행복하게 산다.

이상에 제시한 두 버전 중에서 A는 비극적 결론에 이르고, B는 해피엔드이다. 우리의 정서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건 비극적 결말을 지닌 A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건 희극보다는 비극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론적으로 평가할 때 문화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갖는 건 A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상황논리에 의거할 때, 이 버전을 동화극으로 전환한다면 A보다는 B의 버전으로 가야할 것이다. 아동들에게는 단순한 구조와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기 때문이다.

실향민들 특히 연로한 노인들은 그들만이 지닌 이야기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은 거의 사라져갔고 또 사라져간다. 한시라도 빨리 나머지라도 채록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 채록된 이야기를 선별하여 문화콘텐츠화해야 한다.

3) 실향민의 민요

필자는 2002년도에 속초의 청호동 속칭 ‘아바이마을’에서 3회에 걸쳐 27편의 실향민민요를 채보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북강원의 민요 77편을 채보하였다. 실향민인 가창자들이 불러



준 이들 민요는 모두 민중의 삶과 의식이 잘 나타나있는 전통문화유산이다. 이 민요들은 과거에 북한에서 불리어진 민요이지만 현재도 실향민들을 통해 전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민요가 뛰어난 문학성, 음악성, 민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속초 청호동은 이른바 ‘아바이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은 북한 특히 함경도민들이 피난을 나와서 모여 사는 마을이다. 이들은 통일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자 휴전선에서 가까운 속초에 동지를 틀었으나 반세기가 지나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망향의 그리움을 달래고자 고향에서 부르던 민요를 부르며 시름을 달래고 있다.

이 분들의 인생은 그자체로 드라마요 뮤지컬의 소재요, 이 분들이 불러준 민요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실향민 역사의 한 장(場)이다. 여기서는 채보한 민요 27편 가운데 그 일부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 속초시 청호동(아바이마을) 10통 양경숙 씨 댁 2002. 4. 13 l T 02-19-01

가창자 : 이노사 : 여, 76세, 속초시 청호동 9통

양경숙 : 여, 76세, 속초시 청호동 10통

박귀남 : 여, 79세, 속초시 청호동 9통

이노사 할머니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 석후면 의호리이다. 양경숙과 박귀남 할머니의 고향은 이씨 할머니의 이웃인 함경남도 북청군 석후면 창성리이다. 이들은 고향이 다 같이 북청이고 또 나이도 비슷해서 옛날부터 친구처럼 자매처럼 속칭 ‘아바이마을’에서 지내왔다. 그래서 심심하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실향민의 설음을 달랜다고 한다.

(1) 이강산 철산에(가창유희요)

이노사 : 이강산 철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좋아졌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좋아졌다..

이강산 동산에 달이 올라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좋아졌네

이노사 : 이렇게 하는데 무슨 동산이란 것은 생각이 아니난다구. 달이 올라온다는 것은 해방이 됐다는 거야.

(2) 자장가(아기재우는소리)

이노사 : 자장자장자아장 우리애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자아장 저집 애기 못도 잔다
우리 애기 잘잔다 자장자장자장자
옛날에 애들이 울면 호랑이 배 껴진다

(3) 다리세기(가창유희요)

박귀남 : 하나코 닦고 동시밍고 도밍고
가사 머리 양 두 카(다리 하나 빼고)
하나코 닦고 동시 링고 도밍고
가사 머리 양 두 카(다리 하나 빼고)
하나코 닦고 동시 링고 도밍고
가사 머리 양 두 카(다리 하나 뺀다)
하나코 닦고 동시 링고 도밍고
가사 머리 양 두 카(다리 하나 뺀다)
애라 빠져라

(4) 자장가(아기재우는소리)

박귀남 : 자장자장자아장
우리애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자아장
자장자장자아장
저집 애기 못 자고
우리 애기 잘 잔다
자장자장자장자

(5) 미나리(가창유희요)

박귀남 : 미나리야 미나리야 나를 높이라
무스매 이 가슴에 빈(변)할 수 있나
이천만의 마디마디 눈물이로다
미나리야 미나리야 나를 높이라
무스매 이 가슴에 빈(변)할 수 있나
이천만의 마디마디 눈물이로네

@ 명절날 놀 때 바가지 장단으로 물을 떠놓고 바가지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6) 이강산 철산에(가창유희요)

박귀남 : 이강산 철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적어진네
 절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지네.
 이강산 철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절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7) 돈돌라리(가창유희요)

박귀남 :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모래청산에 돈돌라니야
 금수강산에 돈돌라리야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모래청산에 돈돌라니야
 금수강산에 돈돌라리야

양경숙 :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니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리야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니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리야

(8) 목단꽃이(가창유희요)

박귀남 : 목단꽃이 곱아도 마당 쓰래비요
 여자 고와도 남자 노리개요
 명주치마 돌돌말아 옆구리 끼구서
 그남자 가자고할적에 내 어찌 못갔던가
 그남자 가자고할적에 내 어찌 못갔던가
 목단꽃이 고와도 마당 쓰래비요
 여자 곱아도 남자 노리개요
 명주치마 돌돌말아 옆구리 끼구서

그남자 가자고할적에 내 어찌 못가겠네

(9) 흰배를 띄워놓고(가창유희요)

박귀남 : 흰 배를 띄워놓고
너하고 나하구 둘이서
그제야 인제나

라리라떨띠리리(가창유희요)

박귀남 : 띠릴릴띠리리리 리릴리띠리리리
라리라떨띠리리 라리라떨띠리리
띠릴릴띠리리리 리릴리띠리리리
라리라떨띠리리리 라리라떨띠리리
띠릴릴띠리리리 리릴리띠리리리
라리라떨띠리리리 라리라떨띠리리
라리라떨띠리리리 라리라떨띠리리

@ 이 노래를 ‘구음소리’라고도 한다.

(10) 봉천시내(가창유희요)

박귀남
양경숙 : 봉천시내 가고싶소
봉천시네 어디미야
봉천시내 아득해서
사는처자 빙허리만 쌓이네
봉천시내 가고싶소 봉천시네 어디미야
봉천시내 아득해서
사는처자 빙허리만 쌓인다

(11) 아지랑이(가창유희요)

박귀남 : 아지랑이가 왔구나
풍산고개로 올리라



라이라이라 라이라이라
아지랑이가 왔구나
풍산고개로 울리라
라이라이라 잘 모르겠다.

(12) 삼수갑산(가창유희요)

박귀남

(13) 잡가(가창유희요)

물에 앉은 군학은 바가지 장단만 치는데
물안에 고기는 꼬리만 툙툭친다

(14) 사랑가(가창유희 요)

박귀남 : 물에 앉은 군학은 바가지 장단만 치는데
물안에 고기는 꼬리만 툭툭친-다
에헤야에헤에헤야 에헤야데야
얼삼마 둥기디어라 내 사랑아
사령사령 임이나 노던 사랑
수술한 이세상 누구나 믿고 노나
에헤야데야에헤야 모르겠다…

박귀남 : “이 노래는 말동서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야”

(15) 무정가(가창유희요)

박귀남 : 고향 떠나온지 52년(52년이다)
고향 떠나온지 52년 되기만해도-
편지한장 없는 오빠 무정하구나

리라-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리라 리랄라리요
고향 떠나온지 52년 되기만해도
편지한장 없는 오빠 무정하구나
리라-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실어간다 실어간-다
우리청년을 실어간-다
조선반도로 실어간다
실어온다 실어온-다
우리청년을 실어온-다
조선반도로 실어온-다

(16) 간다니(가창유희요)

박귀남 : 간다니 간다니 내가 돌아간다네.
그곳으로 내어찌 간다니...
당신은 나를 데리야주고 생각하니
백원짜리 우도밖에 간다니...

(17) 도라지타령(가창유희요)

박귀남 :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오 바구니가 반심만 되누나
에헤야데야 에헤야
어허라 난다 거져져 좋다
니가 내 간장 서리살살히 다 녹인다.
에헤야데야 에헤야

(18) 어랑타령(가창유희요)

박귀남 : 시집살이 하기 싫으믄 문전에 밖으로 돌아라
시어머니 무섭거든 남자 품이나 들어라
어랑어랑어허야 어랑어랑 더야야 사랑간으로 가노라



이노사 : 놀아라 놀아라 절이나 젊어서 놀아라
나먹고 병드리면 내가야 못노니 노오다
어랑어랑 어허라 어허야 더야 사랑 간으로 돌려라
독수리 낯뜨자 병아리 간곳이 없구나
정든 님이 낯뜨자 병아리 간 곳이 없구나
어랑어랑 어허라 어허야 더야 사랑 간으로 돌려라
함홍기차 유리는 햇빛이나 번쩍
맞아비 금니는 웃음이나 번쩍
어랑어랑 어허라 어허야 더야 사랑 간으로 돌려라

(19) 수심가(가창유희요)

박귀남 :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누야
요 내 가슴 타는 것은 잠자던 친구도 모른다.
에헤야 디어라 허송세월을 말어라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누야
요 내 가슴 타는 것은 잠자던 친구도 모른다.
에헤야 디어라 허송시월을 말어라

(20) 라리라릴라(사자 밥먹이는 노래)

박귀남

이노사

양경숙 : 라리라릴라 라릴라리라리 라릴라리라리 라리라
라리라릴라 라릴라리라리 라리라
라리라릴라 라릴라리라리 라릴라리라리 라리라
라리라릴라 라릴라리라리 라리라
띠릴리띠리리리

@ 정월 보름날 북청사자놀음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

* 속초시 청호동 13동4반 유순녀씨 댁 | 2002. 4. 14.

가창자 : 유순녀 : 여, 74세 | Tape 02-19-02

유 할머니의 고향은 함경도 북청군 신창면 고정귀리이다. 6.25때 월남하여 속초의 아바이마

을에서 계속 살아왔다. 슬하에는 1남1녀를 두었다.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움직일 수 있을 때 한푼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매일 노구를 이끌고 생선장사를 다닌다. 그러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속이 상한다고 자주 눈물을 지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생활도 옛날의 북쪽 생활에 비하면 좋으니 김정일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씨는 입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장구를 잘 친다. 단칸방에 장구가 있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꼭 장구로 박자를 맞추었다. 장구가 많이 헐어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그의 한풀이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돈돌라리(가창유희요)

유순녀 :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니야
모래강산에 돈돌라리야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모래강산에 돈돌라니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리야

(2) 수심가(가창유희요)

유순녀 :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누야
요 내 가슴 타는 것은 어느나 누구나 알아주나
에헤야 난다 디어라 허송세월이 넘어간다

(3) 뱃노래(가창유희요)

유순녀 :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너하나가 잘났다고 빼기지를 말아라
조선십삼도에 너하나뿐이냐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믿지를 마세요 믿지를 마세요
화류개 여자를 믿지를 마세요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비야 비야 오지를 말어라
노랑저고리 나물 초매 얼룩이 가노나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갈길이 바빠서 택시를 탔더니
운전수하는 말이 연애만할꺼네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4) 자장가(아기재우는소리)

유순녀 : 자장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자장 자자자자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이상의 가창자들은 이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연세의 노인들이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불러준 노래도 현장에서 사라질 날이 멀지 않다. 그분들의 노래는 현재 찬양가와 행진가 일색인 북한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에 더구나 소중하다. 따라서 보전과 채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채보된 노래들은 CD와 음반 등으로 콘텐츠화하거나 악극이나 뮤지컬로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4. 맷 음 말

실향민의 정체성은 크게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향민은 민족분단이라는 비극적 역사의 희생자로서 상실의 고통을 지닌 사람들이다. 둘째, 실향민은 대체로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객지에서 자기실현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셋째, 실향민은 끼리끼리의 모듬살이를 추구하면서 늘상 고향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실향민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엄연한 비극적 역사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50년(반세기) 세월의 실향민사(失鄉民史)를 찾아내어 보전해야 한다. 이때는 접근하기 깔끄러운 전쟁사 쪽보다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쪽으로 복원하면 개개인의 정서적, 교육적, 실험적 심성이 콘텐츠와 만나 역사인식과 교훈이라는 대주제를 선명히 부각시킬 수 있다.

21세기는 주지하는 바대로 ‘정보’와 ‘문화’의 시대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이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은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해서 작품에 그 부가적 가치를 확인받고 있다.

실향민문화를 집중적으로 문화콘텐츠한 사례로는 2년 전에 속초시립박물관과 연계하여 건립한 실향민문화촌이다. 이것은 실향민의 역사와 문화를 콘텐츠화해서 보여준 쾌거이다. 그러

나 매사에는 완벽이라는 것이 없는 법이므로 실향민문화촌이 음식 및 민속놀이 등 체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볼거리를 보다 풍부하게 갖추어야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실향의 설움을 담은 문집을 보다 많이 수집하여 전시하거나, 실향민의 민요를 채보하여 들려주며, 그들의 구비전승을 스토리텔링하거나 영상으로 콘텐츠화해서 지속적으로 방영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실향민들이 향유한 보편적인 구비전승으로는 금강산과 관련된 스토리들 곧 <울산바위 이야기>와 <나무꾼과 선녀>등이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동극이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더러 콘텐츠화하였지만 <오세암 이야기>나 영화 <디워>의 <이무기 이야기>처럼 문화산업적인 경쟁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실향민들 특히 연로한 노인들은 그들만이 지닌 이야기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은 거의 사라져갔고 또 사라져간다. 서둘러 그들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실향민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 채록된 스토리를 선별하여 업그레이드된 문화콘텐츠로 정립하여야 한다.

실향민의 민요는 민중들 특히 실향민의 삶과 의식이 잘 나타나있는 전통문화유산이다. 그들은 때때로 망향의 그리움을 달래고자 고향에서 부르던 민요를 부르며 시름을 달랜다. 이를 민요는 과거에 북한에서 불리어진 민요이지만 현재도 실향민들을 통해 전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민요가 뛰어난 문학성, 음악성, 민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창자(실향민)의 인생은 그자체로 드라마요 뮤지컬의 소재요, 이 분들이 불러준 민요는 실향민 역사의 한 장(場)이며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채보된 노래들은 CD와 음반 등으로 콘텐츠화하거나 악극이나 뮤지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뛰어야 보배다.”



속초 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 개발

장정룡(강릉대 국어국문학과교수)

I. 머리말

북한의 민속예술은 1950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분단이 고착화된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월남한 이주민들은 북쪽 고향과 인접한 속초지역에 집단 거주함에 따라 속초는 '실향민의 고장'이라는 도시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실제로 월남 실향민들은 속초 토착민과 융화되면서도 북한의 민속과 언어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1세대이후 현재의 2~3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

반세기간 남북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1960년대 이후 북쪽은 전통문화를 교조적 민속, 정책적 민속, 일인에 의한 통제와 규격화된 사회주의적 교시민속으로 전환하여 체제,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위배된 문화를 주체사상의 확산과 봉건잔재 타파라는 미명하에 과감하게 燮改하였다.

따라서 같은 북한의 민속놀이라 하여도 월남 실향민의 것과 현존 북한의 것이 심각한 異質化의 길을 걷고 있는 형편이고, 내용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속극의 경우도 북한은 유물사관의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새롭게 복원, 개작한다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민속예술 또한 북한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지만 당시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창조자들의 세계관 미숙성으로 일련의 제한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현대성의 원칙에서 비판적으로 연구·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측의 문화관에 입각하여 민족문화예술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온전한 통일한국의 한민족 문화지향을 위해서는 북한체제로 변개되기 전의 이북5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고유의 민속문화를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속초지역에서는 실향민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함경도 주민을 중심으로 한 민속조사나 이북5도 실향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¹⁾ 이는 속초실향민문화촌 건립의 초석이 되었다.

오늘날 분단의 고착화는 단일민족문화를 이질적인 것으로 양분시키고 있다. 북한은 그들만

1) 장정룡·김무림,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장정룡 외, 『속초시거주 피난민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념과 이해, 방법과 접근, 조사와 보존 등 일체의 학문적 접근을 획일화하고 통제하여 남북간의 이질화는 더욱 넓고 깊어졌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적 교시민속정책은 민속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민속놀이의 생산성과 고유한 정서를 왜곡시켜 영웅성·전투성을 강조한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구비문학에서 민요는 일인독재의 찬양이나 노동당 정책가요로 개작하고 민속무용도 정치성을 강조하였으며, 옛날이야기는 개작·개편·첨가하여 변형시켜 체제수호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민속은 일부 설날이나 단오명절의 복원처럼 형식상으로는 옛것을 복원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인독재 찬양문화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북한 민속자료는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탓에 분단전 조사 자료나 월남민들에 의한 간접조사, 중국연변이나 북한문헌에 의한 자료 등을 활용해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한국 민속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진전된 북한민속의 원형적 연구와 체계적 정리, 변화된 북한민속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²⁾

분단의 일면지인 속초시에서는 실향민문화촌을 개관하여 이북5도의 생활을 재현하였으며 피난민복색체험, 행렬체험, 음식체험 등 피난살이체험행사와 실향민 가옥숙박체험을 통해 전쟁의 아픔과 실향의 고통을 이해시키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북한지역 민속예술 보다는 월남 실향민들이 지니고 내려와서 계승하거나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재현한 북한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 북한에서 나온 민속놀이들도 언급하고자 한다. 결국, 북한관련 민속놀이와 구비문학 등 전반적인 북한실향민문화원형 콘텐츠개발과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서 속초시가 한민족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지향할 수 있는 북한 실향민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II. 북한지역 민속놀이의 분류와 특징

북한에서는 민속놀이가 인민성이 풍부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알기 쉽고 양반착취계급을 반영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낙천적 기상과 풍부한 정서가 넘치는 고유한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세시풍속과 관련된 민속놀이 대부분이 북한정권과 관련된 군사놀이나 체육경연 등으로 바뀌었는데, 널뛰기나 그네뛰기도 정월 대보름날이나 단오날과 관련 없이 민족체육대회용 놀이로

2) 199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북한민속종합조사연구》의 경우도 1950년대에 월남한 실향민 중심의 간접적 북한민속조사였다. 그 내용은 구비전승, 신양전승, 세시풍속, 관혼상제, 식생활, 의생활, 음악, 무용, 공동생활구조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바뀌어 거행되며, 농악도 5월 1일 국제노동절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에서 극장이나 야외공연 종목이 되었다. 줄다리기 역시 인민봉기의 형상으로 집단역량을 시위하며 투쟁정신을 배양하는 놀이로 장려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민속놀이를 (1) 무술연마놀이, (2) 체력단련놀이, (3) 지능겨루기놀이, (4) 인형 및 탈놀이, (5) 어린이놀이 등 다섯으로 나눈다.³⁾

무술을 연마하거나, 몸을 단련하는데 유익한 놀이, 머리를 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 노래와 춤이 한데 엉켜있는 가무놀이, 탈을 쓰고 춤을 추거나 행동을 보여주는 탈놀이, 인형을 조종하여 재미있는 이야기 줄거리를 보여주는 인형놀이, 어린이들이 즐겨 노는 어린이놀이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통놀이를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하여 수박희는 〈태권도〉, 투호는 〈화살던지기〉, 람승도놀이는 〈내나라 돌아보기〉로 바꾸었으며, 윷놀이도 ‘후돌’·‘함정’ 등을 만들어 재미를 더하는데 ‘후돌’은 윷가락 한 개에 줄을 그어 표시하고 이 ‘도’가 나오면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고, 도밭에 말이 있을 때 ‘후돌’이 나오면 한 바퀴 돌지 않고 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변화를 주었다.

〈내나라 돌아보기〉는 조선지도에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주요도시 등을 표시하여 평양에서 출발하여 전국을 돌아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놀이도구는 지도, 여러 색의 말과 육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에 걸기(1), 자전거(2), 자동차(3), 기차(4), 비행기(5), 배 그림을 표시하여 던져서 나온 그림에 따라 옮겨간다. 배가 나오면 항구도시에 있을 때만 표시된 선을 따라 옮겨가고 섬들은 비행기나 배 그림이 나와야 하고, 기차는 반드시 기차 길을 따라서 가는 방식이다.

황해도와 함경도의 탈놀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킨다 하여 고전적인 탈놀이들은 민족유산으로서 발굴·복원·개작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탈놀이들이 창조하고 있다. 1987년 3월 봉산탈놀이가 민속무용으로 재현되어 무대에 등장하고 기록영화로도 촬영되어 보존되었으며, 2006년에는 봉산탈을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복원 및 개작하

3) 『조선의 민속전통』 5, 민속명절과 놀이,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51쪽 “무술연마놀이6개(활쏘기·칼쏘기·창쓰기·수박희 수박놀이·석전 돌팔매놀이, 말타기) 체력단련놀이 14개(씨름·바줄당기기·차전놀이·집나르기놀이·공기놀이·달리기·윤목놀이와 투호·널뛰기·그네뛰기·놋달이놀이·격구와 타구·장치기·그밖의 구기놀이·기교놀이) 지능겨루기놀이 6개(장기·바둑·윷·람승도 종정도 성물도 작성도놀이·쌍륙·시세와 가투놀이) 인형 및 탈놀이 40개(팽이치기·자치기·딱지치기·연띠우기·못치기·비사치기·팔씨름·손잡아당기기·대발타기·말타기·썰매타기·제기차기·통차기·숨박꼭질·맞차기·무릎싸움·한발씨름·토끼뜀놀이·기마전놀이·길따라잡기놀이·깨끔발놀이·다리씨름·줄넘기·꼬리잡기·눈싸움놀이·목침뺏기놀이·그림자놀이·돌아잡기·까막잡기·닭잡기놀이·진놀이·진지점령놀이·수박따기놀이·수건돌리기·바람개비돌리기·사람찾기·가락지찾기놀이·가마타기·남대문놀이·그물치기놀이) 지능겨루기놀이17개(산가지놀이·칠교놀이·실뜨기·꼬니·따辨别기·고을모둠·글자찾기·풀묻기·공기놀이·풀싸움과 꽃싸움놀이·아이업어오기놀이·귀속말놀이·알치기·다리셈놀이·두꺼비집짓기·각시놀이·손뼉치기)

였다. 또한 북청사자놀음은 무대공연, 대중오락, 체육경기응원에 도입되어 사자춤을 추고 체육대회 응원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형극은 꼭두각시놀이 혹은 박첨지놀이라 불린 제한된 주제의 놀이를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며 옛이야기, 과학환상작품, 계급교양과 애국주의교양작품, 우화와 동화 등 여러 주제와 형식의 작품으로 바꾸었다. 인형극은 학생소년들에게 과학적환상의 나래를 펼쳐주는 것,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용감성과 대담성을 가져야 한다며 인형극이나 탈놀이에 등장하는 인형과 탈은 조형 예술적으로 세련되고, 산 사람이나 실물에 못지않게 다시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의 꼭두각시놀음은 전승되지 않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인형극인 <놀보와 홍보> <무던이> <꼬마사령관>등이 창작 공연되고 있다.

주제별로 북한의 민속놀이를 나눈 것에 따르면 (1) 맞히기놀이(활쏘기·알치기·비사치기·돌팔매) (2) 바람놀이(연띠우기·바람개비놀이) (3) 썰매타기놀이 (4) 손발재주놀이(제기차기·줄넘기·망차기·공차기·공기놀이) (5) 찾기놀이(숨박꼭질·사람찾기·까막잡기), (6) 힘과 피쓰기놀이(바줄당기기·씨름·무릎싸움), (7) 수쓰기놀이(장기·윷놀이·꼬니·바둑), (8) 높이오르기놀이(그네뛰기·널뛰기), (9) 치기놀이(팽이치기·자치기·타구·장치기), (10) 잡기놀이(진놀이·수박따기·돌아잡기), 맞추기놀이(칠교놀이·손벽치기·고을모둠놀이·꽃과 풀이름맞추기)등이 있다.⁴⁾

『조선의 민속놀이』에서는 놀이방식에 따라 (1) 가무놀이 (2) 경기놀이 (3) 겨루기 (4) 아동놀이로 나누었다. 가무놀이는 16개로 농악놀이·탈놀이·옹해야·돈돌라리와 달래춤·쾌지나칭칭나네·강강수월래·놋다리놀이·화전놀이·마당놀이·방천놀이·시절윷놀이·봉죽놀이·길삼놀이·다리밟이·꼭두각시놀음·등놀이와 불꽃놀이가 있다. 경기놀이는 15개 종목으로 그네뛰기·널뛰기·씨름·활쏘기·줄다리기·돌팔매놀이·쥐불놀이·횃불싸움·차전놀이·제기차기·장치기·공차기·격구·마상재·소싸움놀이 등이다. 겨루기는 11개로 윷놀이·쌍륙·장기·바둑·고누·수투·종정도놀이·람승도놀이·고을모둠·칠교놀이·산가지놀이가 있다. 마지막 아동놀이는 20개 종목으로 단심줄놀이·연띠우기·팽이돌리기·썰매타기·바람개비놀이·수박따기·진놀이·숨바꼭질·까막잡기와 사람찾기·망차기와 돌아차기·비사치기·자치기·대말타기·줄넘기·공기놀이·실뜨기·풀싸움과 꽃싸움·다리셈놀이·수박치기·각시놀음 등이다.

북한은 아동유희를 체제수호, 전쟁준비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1) 학습유희 (2) 운동유희 (3) 군사유희 (4) 오락 (5) 알아맞히기 등으로 갈랐다. 이 가운데 학습유희에는 <보천보꼬니>, <혁명사적지알아내기> 등이 있고, 운동유희에는 <잠수함놀이>, <해로운 동물까기>가 있고, 군사유희에는 <미제놈까부시기>, <해안포사격놀이>, <적진지에 쳐들어가기>, <땅크병과 보병놀이>, <습격전투놀이>가 있다. 오락으로 <보물찾기>, <토끼꼬니>가 있고, 알아맞히기는 <어느포가 맞혔을까> 등의 놀이가 있다.⁵⁾

4) 한성겸, 『재미있는 민속놀이』금성청년출판사, 1994



인민학교 학생들의 군사유희 가운데〈미제놈 까부시기〉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준비품은 눈으로 만든 미제놈과 눈덩이이다. 노는 법(1) 30명까지 두 편으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시작하는 신호가 나면 두 편에서 각각 한 사람씩 먼저 기선에 나와서 눈덩이를 2개씩 던진다. 미제놈의 대가리가 다 부서져 떨어지게 하되 먼저 미제놈의 대가리를 까 없애는 편이 이긴다. 진 편의 미제놈의 대가리는 두 편이 같이 까부시고 만세를 부른다. 노는 법(2) 눈으로 만든 미제놈을 세워놓고 그 둘레에 직경 10m되게 원을 긋는다. 그 다음에 인원을 두 편으로 갈라서 자기편이 까부실 미제놈을 정한다. 놀이할 동무들은 눈덩이를 빼어 가지고 있다가 시작신호가 나면 원둘레에 서서 미제놈의 대가리를 겨누어 눈덩어리를 막 던진다. 던지노라면 처음에는 긴 코가 떨어나가고 다음에는 모자와 귀, 눈깔이 부서지고 마지막에는 대가리가 대구루루 떨어져 나간다. 미제놈의 대가리를 먼저 떨군 편은 만세를 부르면서 원안으로 뛰여 들어가 남아 있는 몸뚱이를 발길로 막 차서 마사 버린다. 이렇게 하여 먼저 미제놈을 까부신 편이 이기는데 진편도 역시 자기들이 만든 미제놈을 습격하여 까부시고 만세를 부른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철천지 원쑤 미제놈을 모두 다 까부신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어느 포가 맞혔을까〉 유희는 “우로부터 처음의 포가 해안포인데 이 포로써 적의 군함을 깡고 다음의 박격포는 미제놈들을, 다음의 직사포는 적땅크를, 마지막 고사포는 적의 비행기를 맞혔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민속예술을 통해 적개심을 강조하고 당성, 인민성, 노동계급성의 강화를 핵심적 지표로 삼는다. 북한은 민속예술뿐 아니라 전통문화 전반에 있어 애국적 · 인민적 · 진보적인 것을 계승하되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궁극적으로 북한의 민속예술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목표로 지배층이나 부르조아 사상이 짓든 문화, 봉건유교사상이 내재한 문화 등을 배제하고, 일인 독재의 현장교시에 의해서 평가되고 지속과 단절이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III, 속초 실향민 민속놀이 콘텐츠 개발

1. 북한의 민속놀이

1) 함경도 민속놀이

(1) 함남 북청 돈돌라리와 달래춤, 관원놀이



5) 평양학생소년궁전유희오락실《재미나는 유희와 오락》사료청출판사, 1974

6) 최철 · 전경욱, 《북한의 민속예술》고려원, 1990, 53쪽

북청 돈돌라리는 신창, 덕성, 단천, 이원, 갑산, 풍산지역의 민속놀이다. 특히 북청 모래산(현재 신창군 속후)의 돈돌라리가 가장 유명하며 북한에서도 현재 집단가무놀이로 널리 퍼졌다. 돈돌라리는 북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으로 모래판의 춤판을 둘러싸면 사람들이 원형을 이루고 그 중 몇 사람이 춤판 복판으로 들어간다. 이때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홍을 돌구는데 손벽장단, 북장단, 그리고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리 리라리 돈돌라리요, 시내강변에 돈돌라리요, 모래 산천에 돈돌라리요, 보배 산천에 돈돌라리요’라는 노래에 맞추어 경쾌한 돈돌라리춤을 춘다. 춤사위는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머리를 숙인 채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손목을 움직이며 잔가락을 쓰는 넋두리 춤이 고유한 특징이다. 돈돌라리는 사자놀이, 달래춤과 함께 널리 즐기는 민속놀이다.

관원놀이는 북청읍 토성리에서 정월 보름전후로 행한다. 관원의 행차의식을 모방하고 새로 도임한 신임 사또가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다. ‘감영놀이’라고도 하는데 이 놀이는 3일 동안 계속되며 관원과 백성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2) 함남 북청 · 이원 햇불싸움

햇불싸움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민속놀이나 함남 북청과 이원의 햇불싸움이 유명하다. 북청군에서도 토성 · 양천 · 속화 · 양화에서 성행했는데 정월 대보름날 젊은이들이 성지를 돌고 난 후에 마을과 마을이 서로 대결하여 햇불싸움을 했다. 눈에 덮인 벌판에서 햇불싸움을 하고 끝나면 각자 ‘도청’(마을공회장)으로 돌아가서 춤추고 놀았다. 청소년들의 용감성과 단결심, 투지를 길러주는 민속놀이다. 이원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낮부터 준비를 하고 달이 뜨면 각자 손에 햇불을 들고 산위에 올라가서 서로 맞붙는다.

(3) 함남 광천 마당놀이

함남 광천일대에서는 마당에서 놀 때 ‘마당률’ ‘음률’ 논다고 한다. 주로 음력 단오날에 노는데 농악과 칼춤이 중심이다.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놀이패를 조직하고 마을의 ‘서재’(공동집회장)에서 준비를 한다. 마당놀이는 세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과장은 ‘마당률’로 농악놀이다. 팽과리, 북, 장구, 징, 새납, 무용수 등이 등장하며 무용수는 고깔을 쓰며 놀이꾼들은 상모를 돌리지 않는다. 무용수는 손목동작을 주로 사용하는데 긴 손수건을 들고, 장삼을 든 손목을 좌우로 펴고 젖히고 돌린다. 이러한 손동작은 함경도 지방 무용에만 전한다. 둘째과장은 ‘원률’로 칼춤이다. 이것은 소년들이 나와서 쌍무 또는 4인무로 되어 있으며 여자 옷차림으로 흰 저고리, 분홍치마를 입고 한삼을 끼고 쾌자를 입는다. 양손에는 칼목이 꺾이는 무용칼을 준다. 셋째과장은 통소경연이다. <애원성> <아스랑가> 등 함경도 민요를 주로 불었다. 기본종목은 <신아우>로 선율이 강렬하여 ‘고상한 애국주의와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혁명적인 기백과 전투적인 정신으로 고무되게 하였다’고 북한에서는 평가한다.



(4) 함북 종성 방천놀이, 재가승 마을 주지놀이

방천놀이는 종성지방 여성들이 야외로 나가서 화전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오월단오와 유두 사이에 행하며 애원성, 성주풀이 등을 부르고 일제침략에 대한 반항, 조국의 운명예견, 계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재가승마을은 함북 북부 회령군, 부령군, 종성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의 산간마을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특수한 민속을 유지하고 있는데 승려의 후예로 승려의 형식을 갖추나 아내를 취하고 고기를 먹었으므로 ‘재가승’이라 하였다. 이들의 주지놀이는 남녀가 가장을 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놀았으며 가면을 쓰고도 행하는 가면극의 일종으로 <주지춤>이라고도 한다. 남자는 여자옷을 입고 머리에 달래로 머리꼭지를 틀어 염고 여장을 하며 여자는 남자옷을 입고 삿갓을 쓴다. 이렇게 남녀가 부부의 모습으로 웃기는 맞춤을 추면 노래하는 사람이 나무함지를 식칼로 치며 칼장단을 맞춘다. 이것은 정월대보름 날 가면을 쓰고 노는 북방계 가면극 일종으로 ‘주지’는 ‘사자’를 뜻하는데 함경도 산간마을 사람들이 호환을 피하고자 놀았던 민속놀이다.

(5) 함북 회령 다리밟기

회령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다리를 밟는데 자기의 나이만큼 왕복하였으며 그렇게 한 다음에 저고리 동정을 떼서 그 끝에 돈을 맨 다음 남이 보지 않는 사이에 그것을 다리 구석에 두고 간다. 이 다리밟기는 개성에서 온 풍속이라고 하는데 조선조 이태조가 함흥 본궁에 와 있을 때 그를 따라온 신하들이 개성에서 하던 풍습을 따라 <만세교 다리밟기>를 한 것이 시작이라고 전한다. 만세교 다리밟기는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낮에 하는 다리밟기가 더 흥겨웠다고 하며 밤에는 다리를 밟기 전에 <달을치기>를 하면 놀았다고 한다.

2) 황해도 민속놀이

(1) 장연 시절윷놀이, 꼭두각시놀음

황해도 장연에서는 음력 정월대보름날 농민들이 농사일을 노래와 춤으로 엮어서 노는데, 집단 가무놀이에 앞서 한 해의 농사풍흉을 윷놀이로 예견한다. 이것을 ‘종군놀이’ ‘부종군놀이’라고도 하며 씨 뿌리는 것을 형상한 놀이가 대부분이다.

(2) 평산 · 백천 석전놀이, 등놀이

황해도 평산과 백천의 돌싸움은 유명했다고 한다. 정월대보름날 돌싸움에는 양반계층에 속하는 행세하는 사람들이 참가한다는 것이며 처음에는 노복들이 하지만 전초전이고 나중에는 성대하게 양반까지 참가한다고 한다.

(3) 황주 소먹이놀이

황해도 송림면에 전하는 소먹이놀이는 일종의 풍년기원행사로 정월이나 추석 때 한다. 장정 두 사람이 엉덩이를 서로 마주대고 엎드린 후 그 위에 멍석을 뒤집어 씌운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고무래 두 개를 내어 밀고 한 사람이 작대기를 내밀어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소의 형상을 한다. 앞뒤에 주인과 머슴이 동행하며 부유한 집에 가서 소의 소릴 내며 '앞집의 누렁소가 평생에 즐기는 차피꼬챙이와 입쌀 뜨물을 먹고 싶어서 찾아왔으니 어서 내어 주시오'라고 하면 주인이 술과 음식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의 농사가 대풍이라고 한다.

(4) 개성 극락길맞이

봄철에 개성사람들은 폐를 지어 북성터를 넘는다. 이 성터를 넘으면 이승에서의 죄는 모두 속죄되고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신앙심에서 비롯되었다. 북성터는 험준한 곳이므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게 되면 도중에 길마중을 하는데 대개 박연폭포나 괴정 변에서 만나 음식을 먹는다. 이 길맞이의 목적은 죄과를 속죄하고 극락길을 길 닦고 돌아오는 가족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뜻이라 한다.

3) 평안도 민속놀이

(1) 평남 온천 봉죽놀이

봉죽놀이는 어촌에서 전승된 가무놀이로 평남 온천군 안석리, 평북 정주 창도,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성행하였다. 뱃노래인 봉죽타령을 부르는 것이 기본이며 배가 떠나고 들어올 때 북을 치고 팽파리를 치면 선창자가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어민들의 바다에 대한 애착과 낭만을 엮어 놓은 놀이로 투지를 고무하는 수단의 하나라고 한다.

(2) 평남 순안 길쌈놀이

순안지방에서는 겨울철에 물레잣기를 공동으로 했는데 물레를 10명 내외가 돌리면서 민요를 불렀다. '물레야 돌아라 가락아 싸라라, 무레나 가락은 살살 도는데, 기지개펄펄 나고 졸음만 온다, 시어머니 오며는 욕먹겠네'라고 불렀다. 길쌈민요에는 고부간의 갈등, 노동, 근면, 남편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 있다.

(3) 평북 정주 풍어놀이

평북 정주는 200여 호 되는 어촌으로 풍어를 비는 행사로 정월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보름 동안 마을 복판에 축복기를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오색기와 등불을 걸쳐놓는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민들은 춤을 추고 논다. 노래의 주제는 '청남 청북에 도장원이 되어 주



시오’라는 뜻이고 보름동안 쉬지 않고 가무가 계속된다.

2. 북한의 민속극 · 인형극

1) 함경도 가면극



(1) 북청사자놀음

고향 속초에 정착한 북청사자놀음 이수자 김덕례씨⁷⁾ 경우처럼 속초는 함경도민들이 집거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북청사자놀음이 1957년 정월대보름날 속초에서 김수석 씨 등에 의해 처음 공연되었으며.⁸⁾ 전국에 선을 보인 때는 1961년이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린 1961년 9월 24일~29일, 육군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대회로 함남 북청사자놀음이 참가하였으며, 공로상으로 윤영준, 마후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덕수궁에서 열린 제3회 대회인 1962년 장려상을 차지하면서 마후섭이 개인상을 받았다.⁹⁾ 이후 1967년 3월 31일 중요무형문화재 15호가 되었다.

필자가 1991년 7월 16일 북청출신으로 속초에 거주한 김수석, 김하륜 옹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57년부터 속초에서 행해진 북청사자놀음은 9곳거리 12마당이었다. 9곳거리 ① 입장곡 ②애원성곡 ③에구내딸봉섬이 ④연풍대 ⑤칼춤 ⑥사자춤초장 ⑦중장 ⑧말장 ⑨자유곡, 12마당 ①양반꼭쇠의 해학마당정리 ②애원성노래 ③사당춤 ④무동춤 ⑤꼽새춤 ⑥칼춤 ⑦사자춤초장 ⑧중장 ⑨말장 ⑩승무 ⑪풍자 ⑫군무다. 이외에도 2마당 9거리로도 나뉘는데 1. 애원성마당 ①해학 ②애원성(노래와 춤) ③사당춤 ④칼춤 ⑤무동춤 ⑥꼽새춤 2. 사자놀이마당 ⑦사자춤과 승무 ⑧풍자 ⑨군무(넋두리춤)로 나뉜다.¹⁰⁾

현재의 연희내용은 마당놀이마당 ①마당돌이과장 ②애원성춤과장 ③사당 · 거사춤과장 ④ 무동춤과장 ⑤넋두리춤과장 ⑥꼽추춤과장 ⑦칼춤과장이고, 사자놀이마당은 ①사자춤 초장 ②사자춤 중장 ③사자춤 말장이다.¹¹⁾ 북한에서는 ‘북청사자탈극’이라 부르는데 북상리(대

7) 〈설악신문〉, 2006.8.28, 사람 · 사람들 ‘고향 속초정착한 북청사자놀음 이수자 김덕례씨’ -사라져가는 이북 춤 전수 힘쓸 터- “우리나라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북청사자놀음 이수자인 김덕례씨(56, 중앙동)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66년 고 김수석 씨 등이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의 명맥을 이어온 그는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기력이 쇠하기 전, 북청사자놀음 뿐 아니라 이북 전통춤을 고향에 전수하기 위해 내려오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8)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198~216쪽

9) 북청사자놀음이 제7회(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신문보도(설악신문, 2006. 8.28일자)는 잘못된 것으로 당시 대통령상은 전북농악이 차지하였고, 함남북청사자놀이는 공로상을 받았다. 당시에 김수석 씨 등이 사자앞머리로 출연하였다.

10) (사)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중요무형문화재 2제15호 북청사자놀음대본》확정판, 1979년 9월 3일

벌)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대본형식으로 만들었다. 제1 도청과장, 제2 길군악과장, 제3 경연과장, 제4 마을돌이과장, 제5 마감과장으로 나누었다.¹²⁾ 북한에서는 북청사자놀음의 내용과 사상을 계급투쟁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청사자놀이는 실로 우리나라 근로 농민대중이 장구한 봉건적 억압착취와 또 후에는 일제의 혹심한 억압 착취하에서 신음하면서도 일년에 한 차례씩 정월 보름날 밤을 기하여 자기들의 우렁찬 기세를 시위하는 행사였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그 해 년사의 풍작을 빌고 병마와 사귀를 물리칠 것을 기대하는 행사이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자놀이는 우리나라 피압박 농민계급의 전진한 계급의식의 반영이었으며, 민속행사를 통한 투쟁의식의 집중적 표현이였다.¹³⁾

2) 황해도 가면극 · 인형극

(1)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봉산탈춤의 경우 남북한은 상호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봉산탈 전반형상에서 조선탈의 해학적인 특징을 살리면서 22종의 탈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조형예술적으로 복원 및 개작하여 원전적 가치가 있게 완성하였다.”고 하였다.¹⁴⁾

북한의 봉산탈춤은 1946년 6월 4일 평양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 회의실(현재 당창건사적관)에서 첫 공연이 되었는데 사리원지방민 2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후 1946년 11월 사리원극장에서 봉산탈춤보존회가 결성되었고, 1955년 봉산탈춤을 기록영화로 영구보존하

11) 전경우, 『북청사자놀음 전수교본』북청사자놀음보존회, 1996, 130~137쪽

12)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화』평양출판사, 2006, 86~91쪽

13)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과학원출판사, 1958, 80쪽

14) 《민족문화유산》2006.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5쪽 <봉산탈의 복원 및 개작> “평양미술대학 주체미술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탈놀이로 발전한 봉산탈놀이에 쓰이는 탈을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새롭게 복원 및 개작하였다. 황해북도 봉산지방을 중심으로 인민들속에서 창작되어 즐겨온 봉산탈놀이는 그들이 행복에 대한 지향과 봉건동치배들을 반대하는 항거의 정신을 반영한 진보적인 내용과 인민적인 춤동작이 들어 있는 귀중한 민속무용유산의 하나이다. …동지께서는 주체92(2003)년 6월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농장원들의 봉산탈춤을 보아주시고 작품에서 나오는 탈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전통적인 민속무용을 널리 보급하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가슴깊이 새긴 새세대 연구사 강남식을 비롯한 평양미술대학, 주체미술연구소 연구사들은 지혜와 힘을 합쳐 연구사업을 정열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가무놀이의 하나인 봉산탈놀이의 탈이 훌륭히 복원 및 개작됨으로써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민간미술의 우수한 전통을 소개 선전하며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학술적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또한 봉산탈의 원형을 보존하고 조선미술사교육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며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더욱 빛내일 수 있게 되였다.(조선중앙통신)”



도록 제작하였다. 이후 무성영화 봉산탈춤을 1987년 3월 다시 촬영하여 완성본을 만들었으며 2003년 6월 13일 봉산군 온정리에서 농장원들이 봉산탈춤을 추었다고 한다.¹⁵⁾

우리나라에서 봉산탈춤이 처음 선 보인 때는 1958년 제1회 전국민속경연대회로 내각수 반상(국무총리상)을 차지하면서 김진옥 씨가 공로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2회 때인 1961년 9월 24일~29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현행의 북한 봉산탈극은 11과장이다. 제1과장 상좌놀이, 제2과장 팔목놀이, 제3과장 범고놀이, 제4과장 거사·사당놀이 제5과장 노승놀이, 제6과장 신장사놀이, 제7과장 취발이 놀이, 제8과장 양반놀이, 제9과장 포도비장놀이, 제10과장 미얄할멈놀이, 제11과장 남극노인놀이(사자놀이 삽입과장, 봉산탈놀이의 일부 출연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이 사자놀이 과장은 19세기경에 끼워 넣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 과장은 제2과장 팔목놀이 다음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7과장 취발이 놀이 뒤에 넣기도 하였다.¹⁶⁾

3) 강원도 가면극

강원도 지역에는 여러 가면극이 전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홍석묘가 쓴 《동국세시기》에 전하는 고성가면극과 국가지정무형문화재 13호인 강릉관노가면극, 그리고 통천가면극이다. 고성의 가면극은 이른바 내방신격으로 고을 사당에 비단으로 만든 귀신탈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섣달 스무 날이 지난 뒤에 고을 성황당신이 읍으로 내려오면 그 신이 내린 사람이 그 비단 탈을 뒤집어쓰고 춤을 추며 관아와 마을로 돌아다니면 집집마다 그를 맞이하여 즐겁게 놀고, 이듬해 정월 보름날 전에 비단포대탈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한다.

강릉관노가면극은 옛 강릉부의 관노들이 구한말까지 놀았던 서낭제탈놀이다. 지금도 이

15) 《민족문화유산》 2007,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6~7쪽 <민속무용 봉산탈춤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 “오랜 역사를 가진 탈춤이 일제놈들에 의하여 파묻혀 있었지만 봉산지방에서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선조들이 남긴 유산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아내여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봉산탈춤을 더 훌륭한 민속무용으로 완성한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었다. 탈춤에 나오는 춤가락들은 활달하고 독특한 맛이 있지만 야외에서 추던 춤을 무대에서 추었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야외에서 추던 춤을 무대에 옮길 때에는 거기에 맞게 추려서 해야 한다고, 탈을 쓰고 하는 넉두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고 춤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였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적 재부를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민속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과분한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작품의 가면문제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전통적인 민속무용을 널리 보급하여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16)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16~85쪽

탈춤은 하회가면극과 함께 마을서낭제때 행해지는 가면극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통천가면극은 현재의 북한지역에서 행해지는 가면극이다.

(1) 통천가면극

'통천탈극'이라고도 하는데 통천을 중심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창조 공연된 전체 3과장의 민간극이다. 동해안 중부지대의 대표적 탈극으로 동해와 남해의 바다기슭에서 차지는 중간 위치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함경도 해양지대의 탈극과 서로 밀접하고 남쪽 남해안 지대 탈극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통천가면극에는 강원도 금강산 일대의 생활과 자연환경이 중심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과 함께 '함경도에서 온 양반' 탈이 등장하고, 남해안 탈극에 등장하는 오광대탈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한다. 시작되는 첫 과장에서 작중인물이 다 탈을 쓰지 않고 나와서 자기가 맡은 연기를 하고, 작품에서 대상의 비율이 많고 양반을 폭로하는 내용과 수법에 특색이 있다. 통천가면극에서 3과장만 탈을 쓰고 나오는데 말뚝이가 양반을 내쫓고 헤어졌던 마누라와 다시 만나 춤추며 즐기는 내용으로 행복한 결말을 보여준다.¹⁷⁾

3.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북한민속예술 출연

1) 함경도 민속예술

(1) 함남

- ① 민속놀이 - 재가승마을극놀이, 재가승마을세시놀이, 재가승주지놀이, 토성관원놀이
- ② 민속무용 - 삼삼이와 돈돌라리
- ③ 민속극 - 북청사자놀음, 신창탈놀이
- ④ 민요 - 북청돈돌날이

(2) 함북

- ① 민속놀이 - 구정대보름놀이, 홍해룡의놀이
- ② 민속무용 - 어베주지춤
- ③ 민요 - 고무산타령, 월기타령, 두만강뗏목노래, 애원성

17) 최철 · 전경욱, 『북한의 민속예술』 고려원, 1990, 101쪽

18) 문화부,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1958~1992), 1992, 34회~48회(2007) 자료는 문화관광부,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발간자료를 참고함.



2) 황해도 민속예술

- ① 민속놀이 - 대동굿(해주본영), 연평도놀이, 작두타기, 평산지경닦기소 놀음 및 작두그네뛰기, 해주장군놀이, 황해도민속범몰이, 만수대탁굿
- ② 민속무용 - 해주검무
- ③ 민속극 - 강령탈춤, 봉산탈춤, 은율탈춤, 호랑이탈춤
- ④ 민요 - 배따라기, 황주난봉가, 황해도민요

3) 평안도 민속예술

(1) 평남

- ① 민속놀이 - 다리굿, 베짜기놀이, 인간칠십고려장 하직굿놀이, 제석방아놀이, 조심기놀이, 항두계놀이
- ② 민속무용 - 평양검무
- ③ 민요 - 긴아리, 서도가요, 서도소리제석방아찧기, 서도소리경사거리, 서도입창, 서도잡가, 평양염불과 제석방아찧기

(2) 평북

- ① 민속놀이 - 달구놀이, 달래강망패싸움, 발망아놀이, 성황부군도당굿, 영변성황대제, 평안도다리굿
- ② 민요 - 배따라기, 수심가엮음, 영변가놀량, 입체공명가 및 영변가

이상의 이북 5도 민속예술을 살펴보면 함남지역은 민속놀이, 민속극, 민속무용, 민요 등 고루 발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함북은 민속극이 없고 민요가 많이 발굴되었다. 월남민들에 의해 재현된 북한의 가면극은 봉산탈춤은 김진옥과 이근성, 북청사자놀음은 윤영준 씨 등이 초창기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봉산탈춤은 김진옥을 중심으로 봉산군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가면과 의상을 새롭게 만들어 보여주었는데 월남한 이북사람들의 망향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후원으로 재현되었다.

이와 같이 황해도는 민속놀이로 굿놀이와 민속극이 많고 평남은 서도소리를 중심으로 발굴되었고, 평북은 민요와 민속놀이가 많은 편이다. 서도민요는 평안도와 황해도 민요를 말한다. 콧소리를 가미하여 한탄스런 느낌을 주는데 수심가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함경도지역은 민속놀이, 황해도는 탈·굿놀이, 평안도는 민요가 중심적인 남쪽에서 민속예술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실향민 민속 및 구비문학 데이터 베이스화

속초시의 실향민문화촌은 개성적인 테마파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분단의 일번지인 강원도 속초는 이른바 실향민의 고향으로 불린다. 따라서 이를 시정책 자원화하기 위해 이북5도민 실향민 민속 및 구비문학을 목록 자료화하고 통일문화의 정체 연구자료와 실향민관광문화자원화를 추구한다. 민속자료는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세시풍속, 통과의례를 영상과 자료로 구분하여 구연자료, 동영상, 사진자료 등을 수집정리하며 구비문학자료는 설화, 민요, 속담·수수께끼 등을 정리한다. 이밖에도 실향민 자료는 현재의 북한민속사, 생활사, 문화사, 언어사 자료도 함께 수집 정리하여 문화변동을 파악하고 이질화된 남북문화를 통합하는 원천자료로 활용하며, 실향민 문화아카이브를 통해 북한민속자료 원전전시, 영상물 상영, 사이버실향민문화박물관등을 운영하고 실향민문화원형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간다.

1) 북한의 생활민속자료

- (1) 민속놀이
- (2) 세시풍속
- (3) 통과의례
- (4) 의식주

2) 북한의 구비문학자료

- (1) 구전설화
- (2) 구전민요
- (3) 속담·수수께끼
- (4) 이북방언



5. 북한민속예술 공연장 조성 및 실향민문화연구소 설립

현재 실향민문화촌의 경우 야외놀이마당은 확보되어 있으나 실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각종 민속놀이와 공연물을 연희할 수 있는 실내공연장이 필요하다. 상설공연장이 조성하여 북한민속극과 인형극, 서도민요, 평양검무를 비롯한 이북5도 공연물을 정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남한에서 재현된 북한의 민속예술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청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으나 전승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능보유자를 대폭 지정하여 청소년층과 젊은 세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향민문화촌 내에 실내공연장과 영상관을 건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실향민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향민문화연구소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여 실향민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대표 이미지화하는 문화관광자원화에 노력해야 한다. 이북5도 민요나 설화, 놀이문화, 의식주 생활문화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속초실향민학’을 ‘남북통일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속초실향민학의 정립을 통해서 이북5도 문화길잡이 역할과 통일문화 길찾기 기능, 실향민문화자원 라이브리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실향민문화콘텐츠를 연구하는 전문연구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실향민에 대한 지역마케팅, 실향민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목을 통한 다양한 소재개발 등이 가능하다. 즉 실향민문화원형을 재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처럼 실향민문화는 원소스 멀티유스(OSMU)를 통해서 문학, 영상,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이북사투리방송, 북한사투리연극, 캐릭터 활용, 지적재산등록 등 여러 지역산업을 동시에 부흥시킬 수 있는 무한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자집, 주먹밥, 괴나리봇짐, 통일열차, 망향의 술, 오징어순대, 아바이국밥, 창의배, 피난길, 북한말씨 등 실향민 역사, 실향민 생활사, 실향민 문화사, 실향민 구술사는 속초시의 새로운 발전을 담보할 향부론(鄉富論)이 될 것이다.

이제 속초는 분단이후 유일하게 실향민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실향민문화의 원형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향민문화산업을 부흥시켜야 하겠다. 실향민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형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창작하고 상품으로 개발하며 유통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금강과 백두산 개방으로 인해 날로 침체를 겪고 있는 설악산의 자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화자원의 풀을 한데 묶어 상생하며 의미를 강화하는 ‘풀묶음 속초정신’으로 실향민인문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향민의 고향’ 속초는 ‘통일문화교육장’으로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민속예술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남북의 이질화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민속예술에 대한 전반적 연구와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현대적 미감에 맞게, 사상성과 주체적 시대정신에 맞게, 역사주의적 입장에 맞게 등의 논리로 민속예술의 작의적 주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황해도 봉산탈춤과 함경남도의 북청사자놀음도 남북한간 이질화가 심각한 형편이다. 봉산탈춤의 경우 춤을 위주로 하도록 하고, 가면을 살색이 나도록 개작하는 등 전통적 민속문화가 이른바 일인에 의한 교시문화에 의해 바뀌었다. 따라서 이북5도 실향민문화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주한 월남민들의 민속예술을 정확하게 복원하

고 이를 자료화하고 계승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이북5도자료관의 건립과 함께 실내공연장, 영상관도 조속히 건립하여 북한의 고유한 민속예술을 감상하고 계승하며 관광자원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실향민문화연구소를 개설하여 실향민민속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연구자들로 하여금 ‘실향민고향 문화원형콘텐츠’를 개발하게 함으로써 ‘속초실향민학’을 속초지역발전의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 과학원출판사, 1958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조선의 민속놀이,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재미나는 유희와 오락, 사로청출판사, 1974
홍종혁, 한국분단의 역사적 고찰, 인문출판사, 1974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출판부, 1982
최인학, 북한의 민속,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6
리제오, 조선민속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최철 · 전경욱, 북한의 민속예술, 고려원, 1990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 1991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문화부,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1992
한성겸, 재미있는 민속놀이, 금성청년출판사, 1994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명절과 놀이, 과학백과종합출판사, 1994
문화재관리국, 북한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97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속초문화원, 1997
장정룡 · 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속초문화원, 1998
장정룡 외,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속초문화원, 2000
리정순, 열두달 민속놀이, 균로단체출판사, 2002
김의숙 · 이창식,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장정룡, 강원도출신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 거주 실향민생애사 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장정룡 외, 속초지역실향민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 · 속초시박물관, 2007

실향민 테마축제의 방향과 구성

함석종(강릉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1. 시작하는 말
2. 지역축제의 의의
3. 속초시 관광이벤트의 현황
4. 실향민 테마축제의 방향과 구성
5. 맺음말



1. 시작하는 말

1) 현대는 축제와 이벤트의 시대

현대는 축제와 이벤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세계도처에서 시시각각으로 공사대소의 축제와 이벤트들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와 이벤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심분야의 이벤트에 직접 참가하여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관광자와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비일상성을 충족시켜 주는 하나의 축제이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다.

공업화 사회는 인간의 욕구가 규격화, 표준화, 단일화 사회였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성숙으로 인한 가치관의 다양화는 대중이 소집단으로 분해되는 대중소비社会의 붕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을 사회의 소프트화라고 부른다. 사회의 소프트화는 탈공업사회를 향한 변화이며 이에 호응하여 이벤트의 봄을 맞게 된다. 축제와 이벤트는 『놀이』요소와 함께 지적 욕구의 충족, 창조성의 연출, 만남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성숙한 소비자가 추구하는 욕구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축제와 이벤트이다. 범람하는 정보를 축제와 이벤트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현장에서 오감을 동원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축제와 이벤트는 본질적으로 소프트화 한 탈공업화 사회에 대응한 메디아이며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제3의 메디아로서 그 중요

성은 증대될 것이다.

2) 지역문화의 시대

지방의 시대는 지역문화의 창조와 육성에 지역의 구성요소들이 보다 적극적,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지역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지역문화의 꽃을 피우며, 개성이 풍부한 지역건설을 시도하는 지역문화의 시대이다. 지역의 각계각층을 이러한 지역문화의 창조와 육성 활동에 참여시키고 또한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지역의 축제이다. 전통문화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와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 것으로서 시간, 공간, 주체라는 세 가지의 필연적 문제가 개입된다. 첫째, 시간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전통문화는 지역의 풍토, 역사, 생활 속에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생성되고 전승된 지역문화이며, 둘째,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통문화가 형성되고 전승된다는 것이고 셋째, 주체라는 관점에서는 그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존재하며 그 주민의 생활문화 속에서 지역문화가 형성되고 전승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문화는 그 지역만이 갖는 고유성과 개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속에서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는 지역의 세계화를 이루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측면도 강조된다.

3) 지역문화의 창달은 지역의 축제에서

지역의 문화는 전통과 개성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전통이란 이전시대에 어떤 당사자가 해왔던 것을 후대의 계승자가 자각과 긍지를 갖고 전승시켜 가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의 전통이란 지역의 생활양식 또는 행동양식을 지역주민들이 자각과 긍지를 갖고 전승시켜 가는 것이다. 지역의 개성이란 지역의 활력 또는 매력이다. 이것은 지역의 인구나 재정규모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적, 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한 그 지역의 이미지, 정보의 수신·발신량과 균형에 수반되는 것이다. 개성이 넘치는 지역이란 건물, 공원, 도로, 경관 등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의 집합(하드웨어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지역 내의 모든 활동으로부터 생겨나며 그 지역 생활문화의 총체(소프트웨어 측면)와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지역색이 풍부한 개성 있는 지역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풍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지역의 축제나 특별이벤트를 통해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축제는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담아 연출시킨 지역문화 창달의 장이다.

2. 지역축제의 의의

1) 축제와 관광이벤트 융성의 배경

관광 자체가 일상생활자인 현대인에게 탈일상화는 하나의 이벤트이다. 관광이벤트란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이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상품으로서 효용을 갖고서 관광수입을 창출



해내는 기획된 행사나 지역의 향토축제를 말한다. 오늘날 축제와 관광이벤트가 융성하여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많은 효용을 가져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분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이다. 소득의 증대로 인한 소비액의 증가는 사업적 이벤트의 수와 종류의 증가를 가져왔고 여가시간의 증가는 관광레저활동, 여행의 증가와 문화·예술이벤트 뿐만 아니라 축제의 참가자수, 참여회수를 증대시키고 있다.

둘째, 이벤트를 통한 지역 및 산업활성화의 추구이다.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성 있는 지역건설, 상가 활성화,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이벤트가 개최된다.

셋째, 교류의 장으로 역할의 증대이다. 이벤트는 지역 구성원들 간의 단결과 공동체적 연대감 함양 그리고 제3의 메디아로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류, 지역과 지역의 교류, 기업 간·산업 간의 상호교류, 인적인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된다.

2) 이벤트의 역할과 효용

이벤트가 사람을 모이게 하는 특성 중 이벤트가 개최되는 지역 이외의 장소로부터 관광자들을 유인하는 것, 이벤트의 가치를 추구하여 타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에 관광과 연계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관광자와 관광지 주민을 위한 사회·문화적 이벤트(a socio-cultural event)이다’. 왜냐하면 이벤트는 연결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방법, 즉 사람과 사람, 물건과 사람, 사상과 사람, 정보와 사람, 현재와 과거 또는 미래, 지역과 지역 등이 연결되며, 원인과 결과, 창조와 창조, 상상과 상상의 복합화, 존재물과 존재물, 요소와 요소의 결합을 시도하는 방법이 이벤트이다.

이벤트의 형태 중에는 연례행사나 통과의례 외에 특별이벤트가 있다. ‘특별이벤트(special events)는 관광제품(tourism product)의 독특한 형태이고, 이벤트들은 관광개발과 관광마케팅계획에 통합시켜야 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나 관광지들에서 이벤트를 관광대상(tourism attractions)으로 고려하거나 지역 및 관광지 촉진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축제와 이벤트들은 특화되어 있거나 고유할수록 여행을 강하게 동기부여하며, 다른 정태적 관광대상(static attractions)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시키고, 개발을 위한 촉매로서 작용하며, 커뮤니티의 관광계획의 수행을 원활하게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인적, 지역적 관계증진에 기여하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이 새로운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축제와 특별행사의 관광에 있어서의 역할(Tourism-related roles of festival and special events)은 상당히 크며, ① 관광매력요인(관광자원과 상품으로서의 역할), ② 관광이미지 형성요인, ③ 관광지 활성화 요인, ④ 관광지 개발 촉매요인, ⑤ 대안관광과 지속 가능한 개발요인으로 기능한다.

지역별로 개최되는 이벤트는 관광진흥 외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양한 목적들이 중충적으로 조합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수반한다. 그리고 관광대상으

로서의 이벤트는 타 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커다란 매력물로서 관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면 이벤트는 인문관광자원으로써 상당히 매력 있는 관광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벤트의 관광대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이벤트는 관광대상으로서, 관광객을 유인하며 관광지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시간적으로는 성수기의 연장과 비수기 대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공간적으로는 관광을 지리적으로 확대시켜 주게 된다.

둘째, 지역이벤트는 관광촉진활동의 수단으로서, 지역을 위한 광고·홍보 및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셋째, 지역이벤트는 관광활성화 요인으로서, 정적 관광대상과 시설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자원 및 시설활용도를 높여 주며, 관광객이 이를 시설이용에 따른 수익증대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다.

넷째, 지역이벤트는 지역발전의 촉매요인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직접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며, 지역의 특산물 판매 및 판매망 구축, 향토음식의 개발·판매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의 진흥효과도 가져오게 한다.

다섯째, 지역이벤트는 고유한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전통문화의 보전을 통하여, 자연관광자원의 물리적 변형이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지역이벤트는 지역주민 끼리의 지역 내(이웃 간) 교류, 관광객과 주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간 교류, 더 나아가서는 국제간 교류를 활발하게 한다.

3. 속초시 관광이벤트의 현황

현대를 축제와 이벤트의 시대라고 말한다. 시시각각으로 세계도처에서 각종 이벤트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관광과 연계된 향토문화 축제는 지역의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관광은 관광자와 관광지의 주민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이벤트이며 특별이벤트(special events)는 매력적이고 가치창조적인 관광제품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1) 한국의 축제 및 관광이벤트

현재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와 관광이벤트는 572건(서울 32, 부산 52, 대구 13, 인천 13, 광주 16, 대전 8, 울산 9, 경기 60, 강원 74, 충북 37, 충남 41, 전북 34, 전남 43, 경북 56, 경남 69, 제주 15)이며 비공식적으로 1000여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는 52건이다. <표1> (참조).



〈표1〉 한국의 문화관광축제

축제명	축제기간	축제명	축제기간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1.7~30	괴산청결고추축제	8.25~27
태백산 눈꽃축제	1.14~23	평창 효석문화제	9.8~17
인제 빙어축제	2.2~5	원주 한지문화제	9.20~24
정월대보름들불축제	2.9~11	김제지평선축제	9.20~24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4.15~17	금산인삼축제	9.22~10.1
경주 한국의술과떡잔치	4.15~20	양양송이축제	9.28~10.4
전국음성품바축제	4.20~23	생거진천화랑축제	9.29~10.1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4.27~5.1	대전한밭선비축제	9.29~10.1
담양 대나무축제	4.29~2.7	봉화춘양목송이축제	9.29~10.2
문경 찻사발축제	4.29~5.7	서귀포 칠십리축제	9.29~10.2
함평 나비축제	4.29~5.8	천안 흥타령축제	9.29~10.3
한산 모시문화제	5.4~9	풍기인삼축제	9.29~10.3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5.3~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9.29~10.8
하이서울페스티벌	5.4~7	충주세계무술축제	9.30~10.8
지리산한방약초축제	5.4~8	진주남강유등축제	10.1~12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5.4~8	강진청자문화제	10.14~22
남원춘향제	5.4~8	부산자갈치축제	10.18~22
보성다향제	5.5~9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0.18~23
하동야생차문화축제	5.18~21	울산 외고산옹기축제	10.19~22
춘천국제마임축제	5.29~6.4	강경젓갈축제	10.19~23
무주반딧불축제	6.2~11	이천쌀문화축제	10.26~29
보령머드축제	7.15~21	고창 모양성제	10.27~30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8.10~12	합천 팔만대창경축제	10.27~31
통영 한산대첩축제	8.10~14	광주김치대축제	11.16~20
무안 백련대축제	8.11~15	파주 장단콩축제	11.17~19
영동난계국악축제	8.25~28	강안 고인돌 축제	취소

자료 : <http://www.mct.go.kr/web/dataCourt/assemblyInfo/assemblyInfoView>

2) 강원의 축제와 관광이벤트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관광이벤트는 100여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강원도의 축제 중에는 강릉단오제와 같은 세계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 춘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 태백산눈꽃축제, 인제빙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원주한지문화제 등과 같은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도 있지만 마을단위의 소규모 관광이벤트들도 많이 개최되고 있다. 다음(< 표2 >)은 강원지역의 축제이벤트의 현황이다.

<표2> 강원지역의 축제이벤트 현황

축제명	개최시기	시/군
양미리축제	11월 16일 - 12월 02일	속초시
망상전국바다릴낚시대회	11월 11일 - 11월 11일	동해시
편치볼시래기축제	11월 09일 - 11월 10일	양구군
민동산억새꽃축제	09월 28일 - 10월 28일	정선군
학사평순두부축제	10월 27일 - 10월 28일	속초시
한국국제걷기대회	10월 26일 - 10월 28일	원주시
대현율곡이이선생제	10월 25일 - 10월 26일	강릉시
대관령단풍걷기 및 청소년문화축제	10월 21일 - 10월 22일	강릉시
횡성한우축제	10월 18일 - 10월 22일	횡성군
장난감축제	10월 21일 - 10월 22일	원주시
군인추억페스티발	10월 19일 - 10월 21일	인제군
양양연어축제	10월 20일 - 10월 21일	양양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10월 21일 - 10월 21일	원주시
해맑은강릉바다낚시대회	10월 20일 - 10월 20일	강릉시
삼척종합예술축제	10월 10일 - 10월 19일	삼척시
소금강청학제	10월 13일 - 10월 14일	강릉시
설악문화제	10월 11일 - 10월 14일	속초시
한서문화제	10월 12일 - 10월 14일	홍천군
정선아리랑제	10월 11일 - 10월 14일	정선군
강릉주문진오징어축제	10월 11일 - 10월 14일	강릉시
주천섶다리마을한우축제	10월 12일 - 10월 14일	영월군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10월 14일 - 10월 14일	춘천시
안흥찐빵축제	10월 12일 - 10월 14일	횡성군
화진포호수전국마라톤대회	10월 14일 - 10월 14일	고성군



축제명	개최시기	시/군
전국바이애슬론대회	10월 13일 - 10월 14일	평창군
국제서바이벌대회	10월 13일 - 10월 14일	철원군
대관령단풍축제	10월 13일 - 10월 13일	강릉시
환선제	10월 13일 - 10월 13일	삼척시
합강문화제	10월 09일 - 10월 12일	인제군
태백예술제	10월 01일 - 10월 10일	태백시
우리잡곡축제	10월 10일 - 10월 10일	원주시
노성제	10월 06일 - 10월 08일	평창군
무릉제	10월 05일 - 10월 07일	동해시
소양강문화제	10월 05일 - 10월 07일	춘천시
오대산불교문화대축전	10월 05일 - 10월 07일	평창군
홍천인삼축제	10월 03일 - 10월 07일	홍천군
홍천단호박축제	10월 06일 - 10월 07일	홍천군
강원감원제	10월 03일 - 10월 07일	원주시
호반마라톤대회	10월 07일 - 10월 07일	춘천시
도원버섯마을축제	10월 07일 - 10월 07일	고성군
태봉제	10월 04일 - 10월 06일	철원군
영월꼴두바우축제	10월 06일 - 10월 06일	영월군
양록제 및 지상군페스티발	10월 04일 - 10월 06일	양구군
용화축제	10월 05일 - 10월 06일	화천군
허수아비축제	10월 06일 - 10월 06일	횡성군
태백제	10월 01일 - 10월 03일	태백시
양양송이축제	09월 29일 - 10월 03일	양양군
왕산개천국제문화예술제	10월 02일 - 10월 02일	강릉시
해바라기축제	08월 25일 - 09월 30일	태백시
삼굿축제 및 송이따기체험	09월 22일 - 10월 23일	영월군
고랭지배추축제	09월 21일 - 09월 22일	삼척시
수성문화제	09월 19일 - 09월 21일	고성군
동해오징어축제	09월 15일 - 09월 16일	동해시
효석문화제	09월 14일 - 09월 16일	평창군
김삿갓문화큰잔치	09월 14일 - 09월 16일	영월군
에밀촌포도축제	09월 16일 - 09월 16일	영월군
춘천애니타운페스티발	09월 08일 - 09월 10일	춘천시
강원 축산한마당 큰잔치	09월 08일 - 09월 09일	홍천군
전국레저경기대회	09월 08일 - 09월 09일	춘천시

축제명	개최시기	시/군
봉평달빛극장페스티벌	08월 24일 - 09월 09일	평창군
한지문화제	09월 05일 - 09월 09일	원주시
허균허난설헤문화제	09월 07일 - 09월 08일	강릉시
코스모스축제	09월 07일 - 09월 07일	삼척시
파뚜마칭밴드페스티벌	08월 24일 - 08월 26일	원주시
대관령국제음악제	08월 03일 - 08월 26일	평창군
동강사진축제	08월 03일 - 08월 12일	영월군
청정여름해변축제	07월 10일 - 08월 20일	삼척시
춘천막국수축제	08월 08일 - 08월 16일	춘천시
춘천인형극제	08월 09일 - 08월 15일	춘천시
대한민국음악대향연	08월 10일 - 08월 15일	속초시
여린모래톱축제	07월 23일 - 08월 15일	양양군
만해축전	08월 10일 - 08월 13일	인제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08월 10일 - 08월 13일	삼척시
백두대간 함백산 야생화축제	08월 03일 - 08월 12일	정선군
강원감자큰잔치	08월 08일 - 08월 12일	평창군
여름바다예술제	07월 21일 - 08월 10일	강릉시
삼척해변축제	07월 25일 - 08월 10일	삼척시
쿨시네마페스티벌	08월 01일 - 08월 08일	태백시
수평선축제	08월 04일 - 08월 08일	동해시
찰옥수수축제	08월 03일 - 08월 05일	홍천군
허수아비축제	08월 03일 - 08월 05일	횡성군
화악산토마토축제	08월 03일 - 08월 05일	화천군
하늘다음 태백농산물축제	08월 03일 - 08월 05일	태백시
정동진독립영화제	07월 21일 - 08월 05일	강릉시
한탄강레포츠축제	07월 30일 - 08월 04일	철원시
춘천국제연극제	07월 30일 - 08월 04일	춘천시
태백산쿨시네마페스티벌	07월 27일 - 08월 04일	태백시
섬강축제	08월 04일 - 08월 04일	원주시
영월동강축제	07월 21일 - 07월 29일	영월군
물의나라 화천쪽배축제	07월 27일 - 07월 29일	화천군
경포바다마라톤대회	07월 01일 - 07월 01일	강릉시
남이섬 세계책 나라축제	05월 01일 - 07월 01일	춘천시
강릉단오제	05월 05일(음)전후 1주일	강릉시
도솔산 전적문화제	06월 15일 - 06월 17일	양구군



축제명	개최시기	시/군
부영이페밀리 오토캠핑대회	05월 11일 - 05월 13일	춘천시
닭갈비축제	05월 01일 - 05월 06일	춘천시
유채꽃축제	04월 10일 - 04월 30일	삼척시
영산홍축제	04월 30일 - 04월 30일	춘천시
개두읍축제	04월 27일 - 04월 29일	강릉시
단종문화제	04월 27일 - 04월 29일	영월군
김유정문학제	04월 27일 - 04월 29일	춘천시
화암약수제	04월 28일 - 04월 29일	정선군
장덕리복사꽃축제	04월 21일 - 04월 22일	강릉시
화랑영랑축제	04월 14일 - 04월 15일	속초시
연어의 꿈잔치	04월 13일 - 04월 14일	고성군
경포벗꽃축제	04월 04일 - 04월 13일	강릉시
고슴도치섬 벗꽃축제	04월 30일 - 04월 31일	춘천시
동강할미꽃축제	03월 30일 - 04월 01일	영월군
태기문화제	03월 17일 - 03월 18일	횡성군
미산계곡고로쇠축제	03월 17일 - 03월 18일	인제군
용대리황태축제	03월 01일 - 03월 04일	인제군
대관령눈꽃축제	01월 31일 - 02월 06일	평창군
인제빙어축제	01월 26일 - 02월 04일	인제군
태백산눈축제	01월 26일 - 02월 04일	태백시
고성명태축제	02월 01일 - 02월 04일	고성군
설악눈꽃축제	02월 02일 - 02월 04일	속초시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01월 06일 - 01월 28일	화천군
양미리축제	11월 20일 - 12월 20일	속초시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09월 29일 - 10월 01일	영월군
원주한지문화제	09월 20일 - 09월 24일	원주시
동해오징어축제	09월 23일 - 09월 24일	동해시
효석문화제	09월 08일 - 09월 17일	평창군

자료 : <http://www.gangwon.to/home/page/sub04>

3) 속초시 축제 및 관광이벤트 개최현황

속초시는 14건의 축제 및 관광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이 중에서 향토축제 1건, 스포츠이벤트 2건, 관광이벤트 4건, 음악예술제 5건, 기타 2건으로 여름철에 6건, 겨울철에 4건, 봄철에 2건 가을철에 1건으로 구성되고 있다.

(1) 해맞이축제

- 행사일시 : 매년 1월 1일
- 행사장소 :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및 대포동 설악해맞이공원
- 행사주최 : 속초시
- 주요행사
 - 여명을 알리는 울림
 - 전통무용공연
 - 어선 선상페레이드 : 힘찬 벗고동과 환희의 집어등
 - 공감음악회
 - 테마가 있는 불꽃놀이
 - 함께하는 세상
 - 희망 촛불나무 만들기
 - 해오름과 함께 출발
 - 촛불기도
 - 해오름함성
 - 지역 특산물 무료시식회



(2) 정월 대보름맞이

- 일 시 : 매년 음력 1월 15일
- 장 소 :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 주 최 : 속초시, 속초문화원, 농협중앙회 속초지부와 7개기관단체
- 주요행사
 - 떡매치기경연
 - 액짚태우기
 - 연날리기
 - 제기차기
 - 널뛰기
 - 윷놀이
 - 투호
 - 자신밟기 등



(3) 설악건강달리기대회

- 일시 : 매년 4월
- 장소 : 영랑호 범바위 잔디구장
- 코스 : 건강(7km) : 영랑호변 1바퀴
- 참여대상 : 남녀
- 주최 : 속초시 ※ 사전 접수 후 진행됨
- 경기종목
 - 건강(7km) : 일반/단체, 제한시간 1시간30분
 - 기념품 : 마라톤 참가 기념 스포츠 타올, 완주메달, 배번



(4) 화랑영랑축전

- 일 시 : 매년 4월경
- 장 소 : 영랑호반(화랑도체험관광지 일대)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민예총, 세종예술음악협회, 속초생활체육협의회 등
- 행사내용
 - 체육행사 : 단축마라톤대회, 인라인마라톤대회, 화랑기사대회
 - 문화행사 : 모자(아동)사생대회 및 백일장, 신춘 음악회
 - 체험행사 : 라디엔티어링, 화랑도 체험행사, 전통놀이문화체험, 참여예술 창작 한마당, 인라인타기 강좌, 이벤트행사 등
- 문 의 : 관광과 관광축제 (033)639-2144,2159

(5) 설악트라이애슬론경기대회

- 일시 : 매년 6월 중순~7월초
- 장소 : 청호동 신수로교 및 청초호 유원지 일원
- 주최 : 속초시, (사)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
- 승인 : ITU & ASTC
- 후원 :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 접수처 : 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
- 접수방법
 - 국제연맹 회원국 : 국가별 연맹을 통한 신청 (연맹 접수)
 - 국내선수 : 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 개별접수(인터넷접수만 실시)

(6)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

- 일시 : 매년 7월 중순~8월 초순

- 장소 : 청초호 액스포광장
- 주최 : 속초시
- 문의 :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예술팀 (033)639-2792~5
- 행사소개

(7) 속초 해수욕장 페스티벌

- 일시 : 7월 중순~8월 초(속초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 장소 : 속초해수욕장
- 주최 : 속초시
- 행사소개

우리시 최고의 여름 휴양지로 대표되는 속초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속초 해수욕장 페스티벌은 7~8월 사이 뜨거운 여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원한 젊음의 축제로 대중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라이브 콘서트 록 페스티벌과 젊은이들의 분출하는 열기를 더해 줄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8)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 일시 : 매년 7-8월
- 장소 : 청초호 액스포 상징탑 광장 특설무대
- 주관 : 속초문화원, 예총속초지부, 민예총속초지부, 갯마당
- 행사소개

시원한 동해바다와 설악을 찾는 관광객과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야외로 나온 시민을 위해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지역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여름밤의 문화행사로 힙합댄스, 사물놀이, 품바공연, 섹소폰연주 및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및 시민의 많은 관심속에 문화관광의 도시 속초의 야간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 일시 : 7월 중순~8월 초(속초해양페스티벌 기간중)
- 장소 : 장사동 장사항 해변
- 주관 : 장사동 청년회 (횟집상가번영회)
- 행사소개

속초의 명물, 살아 꿈틀거리는 오징어의 싱싱함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 피서 절정기에 속초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해양페스티벌과 함께 여름 축제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오징어맨손잡기는 장사동 사진항 바닷가에서 피서도 즐기며 살아있는 오징어를 직접 잡아 싱싱한 회로 맛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10) 설악문화제

- 기간 : 매년 10월 중순, 4일간
- 장소 : 청초호 유원지 행사장, 설악산 일원, 중앙시장
- 주최 : 속초시 · 설악문화제위원회
- 주관 : 각 추진위원회, 기관, 단체

주제별 행사

○ 설악 산악제

- 제례 : 산신제, 용왕제, 성황제, 망향제, 삼신합동제, 조전제, 송신제
- 산악제 : 전국 산악인 등반대회, 산악인 추모행사 등
- 체험 및 전시 : 꽃누르미 전시 및 체험, 훈춘촬영가협회 초청사진전, 분재작품전 시회,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아동화 거리전, 천연향수 만들기, 찾아가는 국립공원, 설악의 사계 포토존 등

○ 해양

- 민속제
- 경연 : 전국 갯배끌기대회, 오징어 할복경기 대회, 전국 바다낚시대회
- 공연 : 동해안 별신굿 22마당
- 체험 및 전시 : 건오징어 · 야채 · 공예전시회, 오징어 요리 시식회, 어선 무료승선 체험 등

○ 실향민 축제

- 공연 : 훈춘소년예술단 초청공연, 통일가요제
- 체험 및 전시 : 통일시화전, 6·25 음식 회상전, 팔도음식 시식회, 울산바위 힘겨루기, 아바이 마을을 아시나요? 등

○ 체험문화행사

- 특화사업 : 논뫼호 불꽃놀이, 흔들바위 굴리기, 청룡황룡 겨루기, 송편빚기대회
- 부대행사 :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강원도 청소년 댄싱 경연대회, 도자기체험교실 농촌문화체험, 당신도예술가, 마상무예, 도문메나리농요, 시민강좌 발표전시회, 한지공예, 무료캡쳐 사진 등
- 공연행사 : 개막 축하공연, 라이브 콘서트, 오케스트라 및 훈춘 소년예술단 초청 공연

(11) 학사평 순두부축제

- 일시 : 12월 31일 ~ 1월 1일
- 장소 : 강원도 속초시 학사평 순두부촌일대
- 주관 : 학사평 순두부축제 운영위원회

[공식행사]

- 식전행사, 개막식, 폐막식

[공연행사]

- 농악대, 사물놀이, 축하공연, 락공연, 학사평장기자랑, 매직쇼

[체험행사]

- 순두부 · 모두부 무료시식회, 순두부 OX퀴즈, 두부콩 갈기대회, 두부요리경연대회
- 두부버거 요리대회, 두부 빨리먹기대회, 두유 빨리마시기, 맷돌장사 선발대회,
- 모두부 높이쌓기 대회, 풋콩 구워먹기, 키질하기, 삶은 콩 절구로 빨리 찧기,
- 메주 예쁘게 만들기, 찰떡 절구로 찧어 만들기 등

[문화참여행사]

- 전통 메주 만들기, 된장 · 간장 담그기 재연, 전통 결혼식, 콩타작 놀이마당(도리 깨질)
- 뼈에로, PaintBall 사격게임, 순두부체험사진공모, 짚공예(이엉엮기/새끼꼬기/멍석만들기 등)

[농 · 특산물 관련행사]

- 농 · 특산물 할인판매, 즉석 두부판매

[부대행사]

- 두부 만드는 과정 재연, 국산콩 구별법, 농 · 특산물 경매, 전통 메주 만들기
- 된장 · 간장 담그기 재연 등

(12) 양미리축제

▶ 기간 : 11월 중순~12월 중순

▶ 장소 : 수복탑 (동명항) 뒤 물량장 (양미리 부두)

▶ 내용

- 먹거리 직거래 장터 : 양미리, 젓갈, 김장류 등
- 체험행사 (매일) : 양미리 무료 시식회, 양미리 베끼기, 양미리 엮기
- 공연행사 (토 · 일) : 두드락 공연, 자유공연
- 부대행사 : 양미리 요리 경연대회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

▶ 문의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033)639-2735

(13) 설악 미니콘서트

- 기간 : 매년 7월~8월경

- 장소 : 엑스포상징탑 광장



- 주 죄 : 속초시
- 문 의 :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033)639-2144

(14)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 기 간 : 7월~8월 중
- 장 소 :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
- 주 죄 : 속초시
- 문 의 :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033-639-2144)
- 주요행사
 - 전통상설공연
 - 전통무용
 - 색소폰
 - 락그룹
 - 힙합댄스
 - 주부풍물단
 - 통기타
 - 초청가수 공연 등



〈표3〉 속초시 개최 축제 및 관광이벤트

축제 및 이벤트명	개최시기	성격	비고
(1) 해맞이축제	1월 1일	관광이벤트	
(2) 정월 대보름맞이	1월 15일(음)	세시풍속	
(3) 설악건강달리기대회	4월경	스포츠이벤트	
(4) 화랑영랑축전	4월경	문화축제	
(5) 설아트라이애슬론경기대회	6월 중순~7월 초순	스포츠이벤트	
(6)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	7월 중순~8월 초순	음악예술제	
(7) 속초 해수욕장 페스티벌	7월 중순~8월 초순	음악예술제	
(8)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7-8월	음악예술제	
(9)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7월 중순~8월 초순	관광이벤트	
(10) 설악문화제	10월중순, 4일간	향토축제	
(11) 학사평 순두부축제	12월 31일~1월 1일	관광이벤트	
(12) 양미리축제	11월 중순~12월 중순	관광이벤트	
(13) 설악의 미니콘서트	7월~8월경	음악예술제	
(14)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작은콘서트	7월~8월 중	음악술제	

4. 실향민 테마축제의 방향과 구성

1. 배경

- 국토의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000만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남북간 경제적, 정치적 교류가 확대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지역 관광도 확대되고 있지만 이산가족의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이 국내 유일의 실향민 문화촌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을 실향민의 메카로 만드는 시발점(starting point)으로 활용한다.
- 실향민들이 모여서 서로 공감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교류하는 장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속초시는 국내 유일의 실향민 문화촌을 보존하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축제를 개최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

2. 목적

- 실향민 문화의 정착과 보전
- 실향민 문화의 재조명을 통한 통일환경의 조성
- 통일교육의 장 마련
- 천만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마련
- 관광자원화 및 지역활성화

3. 동원대책

- 이산가족 50만명 유치
- 관광객 50만명(내·외국인) 유치

4. 실시장소·규모·시기

- 장소 : 청호동 및 속초시 청초호 EXPO공원
- 규모 : 관광객 등 100만명
- 시기 및 기간 : 9월 하순부터 3주 동안

5. 주최·협찬·후원

- 주최 : 속초시, 강원도
- 협찬 : 이북 5도청, 천만 이산가족 찾기 단체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현대산업개발, 대북투자기업

6. 개최테마

- “실향민 문화축제”



1) “失鄉民：고향을 잊은 사람”

- 주로 타의에 의해 고향을 떠나게 되어 다시돌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 협의적으로는 6·25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해서 타향에서 사는 천만 이산가족을 의미하며
 - 광의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의 살던 땅에 살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해외동포들까지 포함한다.
- 고향에 살지 못하고 단계

2) “문화축제：문화관련 이벤트들의 총집결체”

- 음악, 연극, 연극, 회화, 예술, 세미나, 민속, 놀이, 문화강연회, 심포지움, 문학, 공예, 음식 등과 관련된 테마들이 있다

3) “실향민 문화축제：실향민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부문들의 총집결된 행사”

- 축제, 잔치, 만남, 정보, 교류, 공감, 공유가 있고
-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나고, 나누고, 느끼고, 만들고, 돋고, 요구하는 시간적·공간적인 장(場)으로 구성된다.

4) 관광이벤트로 개최 :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장으로 현재 북한 지역의 문화 및 예술인 초청 공연, 중국의 연길지역 교포 공연단의 초청 공연, 국내의 국악 및 예술단체 초청 공연 등을 개최한다.

5) 실향민 문화축제는 “실향민의 과거-현재-미래”를 제한된 시공간에 창출해내어야 한다.

7. 추진체제

- 속초시, 실향민 단체

8. 예산확보

- 국비, 도비, 속초시비, 현대, 이산가족 단체, 대북관련기업의 지원

9. 준비

- 기획서 작성, 추진조직의 구성, 사무국 설치, 이벤트 프로듀서 초빙

10. 실시

- 이벤트 스케줄에 따라 9월 하순경부터 3주간 개최함

11. 이벤트의 효과

- 관광부문
 - 관광시즌의 연장 및 지리적 확대

- 관광진흥의 촉매제 역할
- 정태적 관광자원 및 시설의 활성화
- 대안관광 : 관광자원의 다양화
- 통일과 남북관계의 역할
 - 실향민 문화의 재조명을 통한 통일환경의 조성
 - 통일교육의 장 마련
 - 천만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마련
 - 통일과 남북교류에서 강원도의 역할 강화
- 경제적 효과
 - 지역상권과의 연계효과
 - 산업교류(지역특산품의 판로 개척, 타부문 및 동일부문의 교류)
 - 지역경제 승수효과
 - 지역산업의 활성화
 - 고용증대
 - 지방자치체의 세수효과
- 사회문화적 영향
 - 지역문화의 창달
 - 지역주민의 단결
 - 지역정체성확립
 - 청소년선도 및 교육
- 지역교류의 영향
 - 개인적 교류 증대
 - 지역의 단체와 타 지역의 단체와 교류 증대
 - 국내 타 지역과 교류증대
 - 국제교류증대

5. 맷음말

지방의 시대는 지역문화의 시대이다. 지역주민들을 지역문화의 창조와 육성 활동에 참여시키고 참여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지역의 축제이다. 지역색이 풍부한 개성 있는 지역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풍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지역의 축제나 특별이벤트를 통해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축제는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담아 연출시킨 지역문화 창달의 장이다.

국내 유일의 실향민 문화촌인 아바이 마을은 지난 시대의 증거로서 이곳의 문화를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아바이 마을 및 속초시)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향민 문화축제이다.

따라서 실향민 문화축제는 아바이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전통과 매력을 연출하고 속초시민과 관광객들과 만남의 장, 교류의 장, 공감하고 공유하는 장소로 구성하되 아바이 마을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아내는 구상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실향민 음식의 상품화 개발방안

송 주 은(동우대 호텔조리과 교수)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 핵가족화, 자가운전자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라 주말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매스컴의 영향으로 맛 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음식이 여행을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관광객들의 외식소비형태도 각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향토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지역성이 가미된 고유의 향토음식을 맛보는 경험은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친밀감이 생기게 되며, 과거의 생활상을 추적하고 현대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향토음식의 매력은 지역의 전통성, 개성, 창조성, 역사성, 문화성 등이 결집될 때 나타난다. 향토음식의 독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지역색이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속초의 실향민 음식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음식은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수단이며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속초는 동해바다, 설악산과 온천 등이 있어 이름 난 관광지일 뿐 아니라 6·25전쟁 이후의 피난민 주거 밀집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다. 속초에서 실향민들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속초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실향민 음식의 관광 상품화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오징어순대와 아바이순대 등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음식들도 있지만 이들 상품의 활성화와 새로운 음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속초에서는 속초원주민의 음식뿐만 아니라 실향민의 음식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향민 음식의 관광 상품화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의해 본다.

1. 실향민 음식 상품화의 문제점

1) 현대인의 기호와 동떨어진 맛

젊은이들의 현대화된 입맛과 건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음식이 부족하



다. 예를 들어 속초의 대표적인 음식인 가자미식해나 젓갈류는 젊은이들이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소금섭취를 줄이려는 현대인의 성향에도 맞지 않다.

2)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의 단절

1세대 실향민들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실향민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 등에 대한 정보가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3) 홍보부족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속초시 거주자들조차도 속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실향민 음식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강원도의 여러 시와 군에서는 다양한 축제를 통하여 지역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있다.

〈표1〉 강원도 시, 군별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현황

시 · 군명	관광 상품화 사용
춘천시	닭갈비축제 : 시식행사 막국수축제 : 막국수 먹기 대회
원주시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축제 : 올챙이국수 등 옥수수 이용한 음식 전시 산나물축제 : 산나물 채취대회
강릉시	초당두부축제 : 두부 시식회
속초시	양미리축제 : 양미리 시식회
양양군	송이축제 : 송이를 이용한 음식 전시 연어축제 : 연어를 이용한 음식 전시
동해시 주문진	오징어축제 : 오징어회 썰기
고성군	명태축제 : 시식회, 요리대회
인제군	황태축제 : 황태요리경연대회 인제빙어축제 : 무료시식회
홍천군	찰옥수수축제 : 찰옥수수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 요리전시, 시식회
화천군	화악산토마토축제 : 토마토 먹기 대회
평창군	감자 큰잔치, 메밀꽃 축제 : 감자와 메밀 이용한 요리경연대회
양구군	뽕잎 막국수 대 축제 : 뽕국수 요리경진대회, 국수 가공품 전시

4) 음식점의 낙후된 환경

이름난 향토음식점들 중에서도 깔끔하고 위생적인 느낌을 주는 외관, 실내, 주방 그리고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음식점들이 많지 않다. 특히 음식점의 청결한 화장실은 매우 중요하다.

2. 실향민 음식의 상품화 방안

1) 실향민 음식 발굴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면담 혹은, 실향민 음식 요리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그들 고유의 음식들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을 선별한 후 시제품을 만들어 속초를 방문한 관광객들, 외국인과 속초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겸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선호도가 나타난 음식에 대하여 상품화를 추진한다면 상품화에 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차석빈 등은 향토음식의 문제점으로 대중성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실향민 음식을 상품화 할 때는 음식의 질과 맛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다.

〈표2〉 실향민들의 주 출신지역 및 강원도의 향토음식

지역	향 토 음 식
함경도	회냉면, 돼지순대, 동태순대, 장국밥, 감자녹말국수, 감자지짐, 다시마냉국, 동태매운탕, 동태내장찌개, 가릿국, 두부장, 두부전, 두부회, 콩부침, 북어전, 이면수구이, 이면수찌개, 처념국, 행적, 닭튀각, 닭섬산적, 비웃구이, 수수죽, 원산잡채, 갓김치, 강냉이 녹말지짐, 가자미식해, 감자막가리만두, 삼수갑산 돌배말국, 도루묵구이, 원산잡채, 고등어회, 귀밀떡, 인절미, 오그랑떡, 감자떡 등
평안도	온반(장국밥), 평양냉면, 쟁반, 메밀국수, 강냉이국수, 비지밥, 원반죽, 닭죽, 어죽, (꿩)만두국, 호박만두, 갈비국, 숭어국, 녹두지짐, 가지나물, 내포중탕, 순대, 전어된장국, 노티, 콩비지, 녹두부침, 도라지산적, 돼지머리편육, 두부회, 무청곰, 콩국, 콩비지, 빈대떡, 약식, 꽂게찜, 송기떡, 꼬장떡, 노치, 뽕떡, 골미떡 등
황해도	메밀국수, 잡곡밥, 숭어회밥, 조개으름비빔밥, 김치밥, 비지밥, 녹두국수, 밀낭화(칼국수), 남매죽(국수), 호박김치찌개, 숭어찜, 김쌈, 조기국, 순두부찌개, 냉콩국, 밀범벅, 되비지장, 녹두묵, 김치적, 김치국, 청포묵행적, 연안식해, 들깻잎자반, 잡곡전, 황해도고기전, 녹두고물시루떡, 오쟁이떡, 큰송편 등
강원도	강냉이밥, 감자밥, 차수수밥, 올챙이묵죽, 강릉방풍죽, 섭죽, 삼숙이탕, 쏘가리탕, 동태국, 팔국수, 토장아육국수, 미역냉국, 오징어순대, 감자부침, 북어식해, 도토리묵, 강냉이범벅, 고구마범벅, 감자범벅, 정어리찜, 취쌈, 미역쌈, 산채, 다시마튀각, 석이볶음, 오징어무침, 오징어불고기, 오징어회, 콩나물잡채, 콩죽, 호박범벅, 지누아리장아찌, 메밀총떡, 감자송편, 감자경단, 감자떡 등



2) 메뉴개발팀에 의한 지속적인 메뉴개발

전통 방식 그대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다양하고 세련된 현대인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음식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젊은이와 어린아이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대와 외국인의 기호에 맞게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요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메뉴개발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메뉴개발을 하여야 한다.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은 어린 자녀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우선적으로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개발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리의 표준화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실향민들의 음식 또한 일정한 조리법 없이 가정에 따라, 만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재료와 조리법을 쓰고 있어 일정한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 음식의 상품화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리법을 표준화하는 일은 중요하다. 표준화된 조리법은 실향민음식을 전문으로 만드는 조리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한다.

4) 실향민 음식 전문점 선정

현재 관광지에 소재한 많은 음식점들은 음식, 상차림, 인테리어와 분위기 등이 세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속초시 혹은 관련 기관에서는 사명감과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향민음식 전문점으로 지정하고 홍보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실향민음식을 주 메뉴로 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노학동에는 이미 시립박물관과 속초 실향민 문화촌이 마련되어 있고 주변에는 많은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인근에 실향민음식 전문점이 생긴다면 관광객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호감가는 환경 조성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한식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맛, 가격, 음식분량, 음식종류, 음식제공 방법, 음식위생 등의 항목 중에서 ‘위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이 ‘맛’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위생관념이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토색이 묻어나는 토속적인 인테리어는 호기심과 친근감을,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오픈주방은 믿음과 재미를,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관광객들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 입구 등에 실향민들이 사용하던 전통 주방도구나 음식과 관련된 옛날 자료 사진 등을 전시하여 작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실향민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유발할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 적극적인 홍보

실향민 음식은 토종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과 실향민음식의 역사, 기원, 영양성 및 건강성, 조리법 등을 시청이나 실향민 문화촌의 홈페이지 등에싣고 실향민 음식 안내 책자를 제작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3대 면(麵) 음식은 함흥 비빔냉면, 평양 물냉면과 강원도 메밀 막국수인데 특히 냉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철에 가장 즐기는 음식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름철에 먹는 냉면도 맛있지만 북쪽지방에서는 원래 추운 겨울 날 따끈한 아랫목에 앉아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면을 별미로 먹어왔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에서나 함흥식 냉면과 평양식 냉면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맛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속초이다. 청호동의 아바이 마을에는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이 가장 많고 다음이 평안도 출신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속초에서는 강원도의 대표 산물인 메밀을 이용한 메밀막국수의 고유한 맛뿐만 아니라 향토 음식화되어 버린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의 특징적인 맛까지도 경험 할 수도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7) 적절한 가격

실향민 음식 중에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손이 아주 많이 가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다. 그러나 음식의 가격이 너무 높으면 관광객들이 쉽게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음식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8) 포장판매

실향민음식 중에는 꼬장떡, 달떡, 언감자떡, 괴명떡, 오그랑떡 등 기교를 부리지 않고 소박한 멋이 있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떡들이 많다. 이러한 떡류는 후식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선물용으로 포장 판매한다면 관광객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속초를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꼬장떡

꼬장떡은 맵쌀가루나 좁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노란 콩을 넣고 손으로 대강 눌러 동그랗게 빚은 뒤 끓는 물에 삶아 건져서 콩고물이나 팥고물을 묻힌 것이다. 주로 겨울에 먹던 것인데 겨울에 콩을 열린 후 만들어 먹으면 더 달고 맛있다고 한다.



② 달떡

손바닥 크기만큼 크게 빚은 절편을 말하는데 보름달처럼 둥글고 커서 달떡이라 한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정월 대보름 행사 후 달 모양의 이 떡으로 달에게 소원을 빌었고 함경도에서는 혼례상에 빼지지 않고 올라갔던 떡이다. 나무판으로 가로, 세로로 줄을 찍어 참기름을 발라 먹거나 석쇠에 구워 먹는다.

③ 언감자떡

감자를 썩혀 얻은 녹말로 만든 떡이다. 겨우내 언 감자를 봄에 개울에서 밟아가며 우려내어 앙금만 남으면 햇빛에 말린 다음 방아에 찧어 두고 겨우내 해 먹었던 떡이다.

④ 괴명떡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어 석쇠나 아궁이, 잿더미, 무쇠가마 등에 묻어 익힌 다음 식으면 소금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고 참기름을 발라 다시 구워 먹던 독특한 떡이다.

⑤ 오그랑떡

팥죽과 비슷한 형태의 떡으로 팥을 삶다가 거의 익으면 맵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만든 경단을 넣고 팥과 함께 끓인 것이다. 경단이 익으면 설탕과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주걱으로 버무려 팥물이 고루 스며들도록 한다.

⑥ 용떡

용모양의 떡이라 해서 용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굵은 가래떡을 용 모양으로 만들고 입에 대추와 밤을 물린 것으로 용왕굿을 할 때 용떡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⑦ 백바리떡

함경도에서는 한해(10월~다음해 1월)동안 명태를 100발을 잡으면 기념으로 떡을 해서 선원들과 그 가족, 동네사람들에게 두루 나눠 먹였는데 그 떡을 백바리떡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1발은 100두름을 의미하므로 100발이란 10,000두름을 잡은 것을 의미하므로 농사로 치면 대풍년이 든 것을 자축하는 의미이다. 명태잡이가 주 소득이었던 예전의 아바이마을 주민들은 한 동안 백바리떡을 해서 나누어 먹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풍습이 되었다.

속초 실버 문화 종합기관 구축 연계 사업

–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양성을 중심으로

편집부

1. 실버예술단 양성 배경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버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다양해지고 있다. 실버세대에 대한 초창기의 접근법은 노인복지와 노인 대상 산업으로, 사회복지의 그늘에서 힘들어 하는 노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살피고, 그들에게 산업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진행 중인 복권기금 예술산업인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문화를 매개로 노년세대가 지역과 세대와 소통하며, 노인세대 스스로의 창조적 문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여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나아가 장기적으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의 실버세대에 대한 접근법이 문화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르신을 수혜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문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여, 숨겨진 아마추어 및 프로급 실버스타들을 발굴하여 실버문화 예술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속초문화원은 2007년부터 ‘땡땡땡! 실버문화학교’에 참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속초문화원이 이 사업에 동참하면서 가장 큰 역점을 둔 것은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지역 문화의 새로운 경향성 담보이다. 즉,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의 완성이 지역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활력이 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교육사업과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것이 실버예술단의 창단이다. 기존의 문화동아리 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실버예술단은 노인세대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작품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노인들이 예술단의 멤버가 된다. 또한 연극을 비롯해, 풍물, 민요 등 다양한 공연예술을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들이 지역 문화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할 계획이다.

2. 실버예술단과 실향민 문화

속초는 실향민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실향민 문화촌 형성’, ‘실향민 문화축제’ 등 실향민 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속초시의 주력 문화 사

업의 하나이다.

속초문화원은 이같은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실버예술단이 지향해야 할 컨텐츠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버세대들이 실향민 문화의 원형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단을 육성하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교육 수료 후 속초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향민 문화축제’의 중요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함과 동시에 기존의 ‘실향민 문화촌’과 연계하여 상설 정기공연 등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의 목표는 ‘악극’으로 정했다. 연극의 경우 참여 인원의 제약과 체력의 저하, 대본 작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반해 악극은 노래와 연극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 공연으로 기존 노래학교 등 모집대상이 널리 펴져있으며, 보다 많은 인원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극 훈련을 통해 추후 실향민 문화해설사, 실향민 이야기 구연, 실향민 연극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래의 선정과 이야기 구성에 교육참가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노인참여의 역할을 높일 수 있었다.

3. 사업 추진 과정

1) 사업개요

- 기간 : 2007. 05 ~10.
- 장소 : 속초 문화원 문화사랑방 및 속초 문화회관 소강당
- 대상 : 속초에 거주 하는 60대 이상 실버 32명, 50~60대 예비 실버 3명

2) 홍보

모집인원은 총 35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노인건강센터와 노인대학, 문화학교 등의 사회교육기관에서 수강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존의 지역노인단체와도 협의하였다.

홍보는 우선 지역신문인 강원일보, 도민일보, 설악신문에 모집요강 및 사업소개서를 보냈다. 또한 관내 유관단체의 홈페이지와 속초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 게시, 수강생 모집 안내 전단을 제작하여 신문삽지로 배포하였고, 지역 신문인 ‘설악신문사’에 모집광고를 2회 게재하였다.

3) 강사의 구성

속초는 시립풍물단과 함께 극단 ‘굴렁쇠’라는 좋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국 연극제 대통령상에 빛나는 이 극단은 문화예술강사로서 다양한 연극교육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속초문화원은 극단 ‘굴렁쇠’의 대표강사 세 명과 강사계약을 맺고, 연극제 작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강사소개〉

성 명	주 요 경 력	나 이
김귀선 (강사,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굴렁쇠 대표 - 전국연극제 대통령 표창 - 날 보러와요 외 다수 연극출연 - 연극강사풀제 강사 	남(45)
석경환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굴렁쇠 단원 - 강원연극제 개인상 수상 - 연극강사풀제 강사 	남(36)
추교미 (보조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굴렁쇠 단원 - 인형극 지도 연출 - 동화구연 강사 	여(30)

4)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6~9월까지로 노래와 연극을 집중교육받는 문화예술교육, 2단계는 직접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사회참여, 3단계는 독립적인 소득창출이다.

1단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극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연극 놀이를 통한 창조적 상상력과 열정의 개발이었다. 기존의 문화교육과는 달리 사회 일자리를 전제로 한 교육이었기에 자발적 참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2단계 사회참여는 속초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설악문화제’에서 공연을 하였다. ‘설악문화제’는 가을에 열리는 행사로 교육종료 시점과 맞았고, 대부분의 속초시민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실버예술단’의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3단계 독립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속초시 여성가족과 협의하여 속초시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관처인 속초시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관내 각급 학교 및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2008년도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의 일부분을 위탁받아 ‘실버예술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일정표〉

교육목표	일자	활동내용	세부 활동
연극과 친해지기	6월 7일	입학식	속초박물관 견학 강사소개, 교육일정발표, 서로 인사나누기 실기 위주의 교육이 아닌 노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정중심의 교육, 이야기 구조 속의 역할을 통해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사회 속 일원이라는 확신 즉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
	6월 13일	첫 만남	
	6월 14일	연극놀이	
	6월 20일	연극놀이	
	6월 21일	연극놀이	
	6월 27일	연극놀이	
연극 이해하기	6월 28일	연극놀이	
	7월 4일	공연보기	연극, 신파극 동영상 시청(대본수정완료)
	7월 5일	연극 알아보기	연극의 특징, 드라마, 영화화 차이점알기
	7월 11일	연극알기	연극 기초 교육 (발성, 움직임, 표현 등)
	7월 12일	연극알기	
	7월 18일	연극알기	
공연연습	7월 19일	실향민문화알기	실향민의 문화, 생활특성 알아보기
	7월 25일	대본읽기	배역 선정하기
	7월 26일	대본읽기	
	8월 1일	연기, 노래 율동배우기	연기배우기, 대본읽기
	8월 2일		노래배우기, 대본읽기
	8월 8일		율동배우기, 대본읽기
	8월 9일		연기배우기, 대본읽기
	8월 16일		율동, 노래배우기, 작품 분석하기
	8월 22일	기획, 작품연습 (공연을 위한 총제적 연습)	기획, 스텝회의(의상, 음악, 소품, 무대)
	8월 23일		악극 동영상 감상
	8월 29일		작품 분석하기
	8월 30일		의상, 음악, 소품 완료
	9월 5일		무대 완료
	9월 6일		
	9월 8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7일		
	10월 14일	설악문화제 공연	

4. 향후 계획

속초문화원의 실버예술단 양성 사업은 향후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우선 2007년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수강생으로 구성된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1기생들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극단 ‘굴렁쇠’와 풍물단인 ‘갯마당’, ‘신천무용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연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속초시의 2008년도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주관하여 문화향유는 물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 시행하게 될 2기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수강생들과 1기 수강생들이 교류하여 실버예술단이 속초 지역 실버들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개방형 예술단’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실버예술단이 조직된다면 속초문화원은 속초 지역 실버문화의 거점센터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향후 속초 실버문화 종합센터 구축을 위한 연계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 실버예술단 사업의 기대 효과

속초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실버예술단 사업은 실버세대와 문화원, 지역사회가 함께 ‘문화’를 매개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교육의 대상자인 실버세대는 지역의 특화사업에 스스로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며, 지속적인 자기계발 욕구와 사회적 역할의 참여를 통해 의미있는 삶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속초문화원은 ‘실버문화’의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관계 유지로 문화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문화의 맥을 전달하는 종합문화예술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속초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도 보다 다양한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향민 문화’ 조성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악극 ‘사랑일레라’는 어떤 작품?

▶ 작품설명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의 첫 작품인 〈사랑일레라〉는 전국에서 실향민이 가장 많은 속초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작품으로 전쟁의 아픔,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과 만남을 구성진 노랫가락으로 전하는 작품이다. 실버예술단의 이름인 ‘아바이, 아마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는 북한 사투리에서 따온 것이다.

다양한 노래도 악극의 재미를 살렸다. ‘감격시대’, ‘굳세어라 금순아’, ‘희망의 나라로’, ‘이별의 부산정거장’, ‘가거라 삼팔선이’ 등의 주옥같은 옛노래가 악극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극단 굴렁쇠의 전문 연극인들이 이 작품의 스텝을 맡은 점도 또 다른 볼거리다. 안무를 맡은 추예인씨와 석경환 씨의 희곡, 김귀선 대표의 세심한 연출이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주었다.

▶ 줄거리

해방의 감격도 잠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언제 전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순애는 연인 철민을 몰래 숨겨주며 사랑을 키워간다. 그러나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순애는 철민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헤어지게 된다. 실향민이자 미혼모가 되어 힘들게 피난생활을 하는 순애. 전쟁이 끝난 후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속초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옛 연인 철민을 만나며 새로운 희망을 가꾸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발해역사문화 보존의 의의

–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김 지 윤(속초시박물관장)

1. 사업추진의 배경¹⁾

가. 환동해권 거점도시 속초

지난 2000년 4월 속초-자루비노-훈춘을 연결하는 북방항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어 운항을 시작함으로써 속초시는 국제적인 교역도시로 발전하는 교두보를 개척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3년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까지 연장 운항을 하면서 북방항로 첫 출항이후 약 3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무역상의 주된 해상교통망으로 자리 잡았고, 연간 약 7천대의 중고차가 북방항로를 통해서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 호황을 이루고 있는 북방항로와 일본 나이가타를 연결하는 신항로개설을 추진하여 일본 중북부지역과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여객과 물류수출의 거점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동해권 국가간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환동해권을 지배하였던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며, 동북아지역의 역사와 문물교류, 문화전파 경로 등의 체험루트를 완성하고 시민의 발해사 교육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환동해권 문화교류의 중심 역할을 위해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강릉대학교·속초시박물관, 발해사 자료 기초조사 학술연구 보고서, 2007.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학술 조사용역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배경과 조성방향, 활용방안, 소요예산 판단, 대조영 촬영장과 연계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주제발표에 있어서 위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인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나. 중국의 동북공정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국경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동북공정은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 안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학자들의 중국 변방사 연구를 넘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여 동북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주도권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며, 남북한이 통일이후 동북아 역사학구도에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춰놓고, 동북지역 역사와 유물·유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자 역사적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과욕으로 나타난 동북공정은,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키며 중국왕조의 지방정권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우리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도 그 동안 민간학계위주로 전개된 고구려·발해사 연구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많은 학술적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고구려·발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성과와 함께 고구려·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국민들이 체득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전무한 형편이다. 한강 이남에 있는 고구려 유적과 일부 발견된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고구려 역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없으며, 발해역사의 경우에는 전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남한지역이 고구려·발해의 영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민족 고대사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고구려·발해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시설은 국민들의 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게 하는 꼭 필요한 문화기반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사업은 한민족의 기상을 드높인 고구려역사를 체험하여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문화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속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역사를 통해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은 동북공정에 범국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 고구려·발해 드라마 방영

MBC의 「주몽」을 시작으로, SBS 「연개소문」과 KBS 「대조영」으로 이어진 각 방송사가 제작한 고구려·발해 관련 드라마는 찬란했던 우리민족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설정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고, 고구려·발해역사에 대한 국민의 역사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KBS 드라마 「대조영」의 오픈세트장이 속초 한화리조트내에 조성되면서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속초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발해사를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조영 오픈세트장과 드라마의 인기는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을 통해 활동해권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속초시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속초시가 갖고 있는 설악산·동해바다·호수·온천 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하면서 오픈세트장 개장 이후 약 70만명이 관람하는 등 중요 문화체험관광지로 정착되고 있다.

라.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산과 바다 등 자연경관을 유람하는 관광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형태로의 급속한 관광패턴의 변화와 함께 금강산 관광의 열풍은 설악권 관광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제일의 관광도시로 자부해 온 속초에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실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1,200만명이 속초를 방문하였으나, 2005년에는 관광객수가 1,100만명에 못 미치고 있으며, 설악산 입장객수도 점점 줄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해안권의 개발과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등 외적 요인이 적지 않으나,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낙후와 함께 자연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문화체험관광시설 부족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속초시에서는 속초시립박물관 건립과 실향민문화촌을 조성하여 향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설악산과 동해바다 그리고 관광휴양시설을 연계하는 통일관광·실향민문화타운을 조성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통일관광·실향민문화타운 조성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해역사문화체험장 또한, 문화체험형으로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대사인 발해사, 고구려사를 비교 연계체험하며, 근대사인 실향민역사와 6·25분단사 등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사업추진 근거

가. 민족적 동질성

발해는 종족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은 고구려인들이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발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정체성을 계승한 국가로서 기충민족이 강원도의 고대종족인 예맥족들이 세웠다는 점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강원도 북부지역에 발해역사문화체험장이 조성되는 것은 종족학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

나. 역사·문화적 연관성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부터 철기문화의 주된 전파경로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반도 동해안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쪽구들과 같은 발해 출토유물과 속초지역 출토유물이 유사한 점은 러시아 연해주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한 해동성국 발해의 문화가 속초지역까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생활문화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지리적 합리성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발해 무왕(대무예)이 동북쪽으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721년(성덕왕 20)에 하슬라도(何瑟羅道 : 지금의 강릉) 지역의 장정 2,000명을 동원하여 북쪽에 장성을 쌓았다고 전하고 있다.²⁾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단대사(발해사 3)에서는 발해의 남쪽영역을 강릉의 북니하(연곡천)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나당 연합군이 발해 남부국경에 침입하자 발해는 2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나당 연합군을 물리치고 강릉의 니하계선까지 밀고나가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라고 하여 “발해와 신라는 니하로써 경계를 삼았은 즉 양양이 북의 땅은 발해의 땅이 되었다”라고 비정하고 있다.³⁾

이러한 두 가지 사례로 볼 때 속초를 중심으로 하는 강원영동의 양양·속초·고성 등 영북지역은 발해와 신라의 접경지이자 완충지대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에는 5개의 중요한 교통로가 있었다. 그중 하나인 신라도(新羅道)는 발해에서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이르는 길로 크게 육상교통로와 해상교통로 나누어지며, 동부 육상교통로는 발해와 신라사이에 설치된 상설 교통로로서 신라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해의 동경(현재 중국 훈춘지역)에서부터 신라 정천군(현재 함경남도 덕원)까지 39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⁴⁾ 함경남도 덕원부터 경주에 이르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주요 교통로는 옛 동해북부선(원산↔양양) 지역과 함께 동해안지역(현재 7번국도)이 발해와 신라의 주요 육상교통로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상 교통로 중 동해를 통하는 길은 남해부의 토호포에서 떠나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경주에 이르는 길로⁵⁾ 항해도중 동해안 항포구를 거치면서 지역민과 교역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환동해권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속초는 고대 발해와 신라의 육상·해상 교통로에서 속해 있었으므로, 발해역사를 통해 환동해권 문화교류 거점으로서의 충분한 지리적 연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2) 동북아역사재단편, 발해역사화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145쪽

3) 차태형, 조선단대사(발해사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136쪽

4)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146쪽·232쪽

5) 위의 책, 23쪽

발해의 대외 교통로⁶⁾

라. 현실적 필요성

발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발해 유적 : 성곽, 궁궐터, 고분 등)을 갖고 있는 곳은 남한지역에는 없다. 다만 KBS에서 드라마 대조영을 제작하기 위하여 속초에 오픈세트장을 건립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발해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의 관심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 고조된 곳이 속초이다.

대조영세트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모색함은 물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발해역사에 대한 대국민 의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처한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들의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그 동안의 발해사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급한 실정이다.

6) 앞의 책, 231쪽

3. 사업추진 현황

가. 기본구상

- 1) 중국과 러시아에 산재되어 있는 발해관련 유물과 자료를 집대성
- 2) KBS 대조영 세트장은 물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창출
- 3) 단순한 자료와 유물위주의 전시관이 아닌 멀티형 역사문화체험장으로 조성
- 4) 한국·중국·러시아·일본을 아우르는 발해사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

나. 조성방향

1) 발해역사 야외전시장

- 가) 발해관련 집터, 성터 및 고분을 중심으로 야외전시관을 조성하여 실감나는 체험공간을 마련
- 나) 발해상경의 토성과 성곽을 복원하고 고분과 집터, 유적, 유물을 재현
- 다) 정효공주 고분은 실측도면을 토대로 실물크기로 고분을 재현하여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동선을 만들어 찬란한 발해의 복색과 문화를 소개
- 라) 전시장 입구는 정효공주 고분에 그려진 12명 인물상을 실물크기로 재현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발해복색을 전체적으로 재현
- 마) 현재 고구려와 당나라 건물 중심으로 축조된 대조영 세트장과 차별하여 발해성곽이나 발해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현

2) 발해역사관

발해역사관에는 자료실, 발해애니메이션 영상관, 발해사국제회의장을 중심 배치하며, 상호연계 및 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동선유지

가) 발해역사 자료실

- 발해와 관련된 고문서, 고지도, 고문헌, 기타 각국의 연구논문과 저서 등 자료를 전시
- 발해 고지도를 통해서 영토적 주권을 강조하고 국가적 차원의 국민역사교육에 대한 이해 추진
- 러시아 극동대학교와 발해유적 공동발굴 교류협약을 통해서 확보되는 유물의 전시

나) 발해애니메이션영상관

- 자료관의 정태적 전시를 보완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성인들의 역사이해를 돋고 흥미유발을 위한 동태적 방식으로 구성
- 직접 제작한 공연물과 인형극, 만화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제작 상영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

다) 발해사국제회의장

- 국내 발해연구자는 한반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발해사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국제회의 개최하여 발해사연구의 주도권 확보
- 발해연구자들의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와 언론매체 브리핑을 하고 향후 발해 연구센터로 활용

3) 발해민속체험장

- 가) 발해역사 야외전시장과 연계하는 실습체험장으로 조성
- 나) 격구장, 축국장 등 발해민속놀이 직접체험과 생활풍습을 재현하는 공간
- 다) 발해토기만들기, 발해왕행차 재현, 말타기, 발해먹거리촌 등

다. 활용방안

- 1) 발해역사문화체험장은 발해역사를 재현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고대사를 현재로 끌어와 과거와 오늘을 이어나가도록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정신사와 문화사, 생활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민족사 다시 익히기 공간
- 2) 발해역사테마파크의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생산적 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문화자원이 될 수 있고, 주변의 다른 자원과 연계하여 상승효과와 점유효과를 거둘 수 있게 차별화·특성화
- 3) 실질적인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단순한 발해사의 세트장이나 재현만으로는 의미가 줄어들게 되므로, 발해역사와 전통계승의 장, 발해역사 재인식의장, 발해를 미래지향적 한국사로 발전시키는 문화창조의 장으로 활용
- 4) 발해라는 주제에 집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천여 년 전 발해사가 오늘의 역사로 되살아나도록 운영
- 5) 발해유적 유물의 전시공간, 발해사료의 이해, 발해역사의 체험, 발해문화의 공감, 발해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순한 영상물의 촬영장이나 세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으로 발해사를 살아있는 역사전승으로 이해
- 6) 영랑호 신라화랑도체험장과 더불어 속초의 역사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공간활용도를 높여 실향민문화촌의 근대사와 연계 함으로써 고대사와 근현대사를 링크하는 역사체험코스로 개발
- 7)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그것이 미래의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역사교육의 새로운 접근방식이며, 민족사의 자부심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발해국가의 긍지를 미래지향적 국가동력으로 환치

라. 추진실적

- 1)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 지방재정투용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승인 : 강원도

- 승인조건 : 국비 등 재원확보 추진
-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조 요청
 - 협의부처 :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 협의결과
 - ⇒ 발해역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부재를 확인, 부처별로 소관업무가 아니며, 국비보조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상황
 - ⇒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개발사업 추진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확보에 많은 기간이 소요,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예산확보가 지연

2) 발해사 자료 기초조사 용역 실시

발해와 관련한 지식과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었고 「발해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발해역사와 속초 또는 동해안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발해사 연구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였고 발해역사문화체험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3) 문화지구지정 타당성조사 및 시설배치계획 용역 실시



통일관광 · 실향민문화타운 조성계획 조감도⁷⁾

7) 조감도낸 점선으로 그려진 타원내가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 계획부지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일대를 전국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통일관광·실향민문화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며 설악산 등 일대의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문화단지 지정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용역이다.

사업부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통일관광·실향민문화타운 시설의 적정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4) 발해역사의 공동발굴과 교환전시에 관한 국제교류 협정 체결

러시아 극동대학교 발해연구소를 설립한 고려학술문화재단과 동반 노력을 통해 발해사 관련 전시유물의 확보와 학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2월 22일 속초시박물관장과 고려학술문화재단 사무총장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대학교 발해연구소·박물관·한국학대학 등을 방문하여, 발해역사 공동연구를 위해 발굴사업, 학술 연구, 인적·물적 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주고받게 되었다.

극동대학교 발해연구소 방문을 통해 고려학술문화재단과 공동발굴로 수집된 상당히 많은 발해역사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연구소측 연구인력의 부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연해주 지역에 밝혀지거나 또는 추정되는 발해유적이 많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시굴형태의 초보적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스테클랴누하 발해토성을 답사하면서 유적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조사와 함께 속초시박물관과 발해연구소 간의 공동발굴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어서 지난 6월 28일에는 극동대학교 총장·고려학술문화재단 설립자 장치혁이 사장·속초시장이 「발해유물 공동발굴 및 전시 등에 관한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극동대학교로부터 발해사 전시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으며, 속초시는 국내 전시를 위한 유적의 발굴과 관련된 비용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공동발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5) 발해고분 전시관 및 대조영 전시·영상관 건립 추진

KBS 드라마 대조영 오픈세트장 조성에 따른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4억5천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발해역사 전반을 소개하고 드라마 대조영에 사용한 의상과 소품 그리고 발해의 복색을 고증을 통해 전시하며, 드라마 요약물 상영을 위한 전시·영상관과 함께 지하층에는 발해 정효공주 고분과 고분벽화를 재현하는 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드라마 대조영에서 사용되었던 의상과 소품 그리고 드라마 요약본에 대한 기증을 KBS와 한화리조트에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교

대한민국 고려학술문화재단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 관

국 제 교 류 협 정 서

러시아 극동대학교와 대한민국 고려학술문화재단 그리고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특히 발해역사의 공동발굴과 교환전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1. 3개기관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음사항을 협력한다.
 - 가. 발해유물 공동발굴 및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의 교환
 - 유물 공동발굴 및 연구시 속초시박물관 관계자의 참여(1~2명)
 - 공동발굴·전시에 필요한 인적·물적교류
 - 나. 발해역사 자료의 수집·관리·보전 및 상호 정보교환
 - 다. 발굴유물의 한국내 전시 및 전시유물 전체의 복제
 - 대한민국내 유물전시는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장기 전시도 가능하며, 기존의 유물도 교환전시
 - 라. 발해역사는 물론, 한국사에 대한 학술자료, 간행물 및 학술정보의 교환
 - 마. 기타 교육·문화·학술 등 3개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 바. 교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 다만, 대한민국에 전시하는데 필요한 유물의 발굴과 관련된 비용은 대한민국 속초시측이 부담한다.
2. 상기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3개기관간 충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한다.
3. 본 협정서는 3개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개기관 중 일방이 서면으로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07년 6월 27일

러시아 극동대학교
총장 쿠릴로프

고려학술문화재단
설립자 장치혁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장 채용생

장치혁

발해역사문화체험장 본격 조성

속초시-러시아 극동대 공동발굴 등 협정… 내달 기본계획 수립

속초시가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채용생시장을 비롯한 발해학술교류협력단은 지난 27일 러시아 블리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대학교를 방문, 발해역사 공동발굴과 유물 교환전시 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주요 협정내용에는 발해유물 공동발굴과 학술조사·연구 교환, 발해 역사자료 수집·관리와 정보교환, 발해유물 국내 전시를 비롯해 극동대학교 대한민국 고려학술문화재단 속초시 등 3개 기관의 교육·문화·학술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 담겨있다.

시는 이번 러시아 극동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시립박물관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7월 초 발해사자료 기초조사·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발해 역사



◇속초시는 지난 27일 러시아 블리디보스토크 극동대와 발해역사 공동발굴 및 유물 교환전시 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문화체험장 조성방향과 발해유적 전시계획, 발해문물과 민속체험장 조성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환동해권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속초에서 해동성국 발해의 꿈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초=권원근기자 stone1@

그림 2. 발해유적 공동발굴과 교류전시 협정체결 보도사진

4. 향후계획과 과제

가. 발해역사에 대한 시민인식의 확대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배우지 못한 국민이 대다수이며, 발해사를 우리 민족 남북국시대의 역사를 인식하고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도 그리 오래되지 못하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문제와 외교적 노력부족으로 발해역사에 대한 대국민의식 매우 낮은 상황에서 발해역사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학술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역사의 한 페이지로 발해사를 인식하고, 발해사를 통해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발해역사를 집대성하는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은 시급한 국가적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나. 사업예산의 확보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시설배치계획 용역을 통해서 약 171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사업비 모두를 속초시에서 모두 부담할 수 없으며, 사업의 성격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2007년 각 부처별 국비예산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각 부처별 예산지원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통일관광·실향민문화타운 조성사업이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북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발해사 전문학자와 기관·단체를 통한 발해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를 위해 측면지원을 요청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다. 발해사 전시자료의 확보

우수한 발해사 자료의 전시를 통해 발해문화가 훌륭한 우리민족문화임을 확인하고 발해역사문화를 체험하며 발해사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발해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 위해서는 발해역사 유물과 연구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속초시는 발해역사자료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발해사 연구와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대학교 발해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해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발굴유물 등 소장자료와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중국·일본 등 환동해 주변국가의 발해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성과와 발굴유물의 교류를 위해 2008년에는 발해사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속초, 문화로 거닐다

엄 선 미(속초시립박물관 에듀큐레이터)

이 글은 속초에 오게된지 보름여만인 2007년 3월 1일 쓰여진 글이며, 새로운 둉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반드시 머물러야하는 도시에 대한 예의와 호기심으로 둘러본 곳곳의 느낌을 적은 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처럼 배타적이지 않은 이곳 사람들의 정서와 아름다운 자연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다.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늦잠을 자고 대충 씻는 듯 마는 듯 양 주사님(내 자리와 마주보고 계시는 분)이 챙겨주신 속초여행 지도를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오늘 둘러볼 곳을 표시한다. 우선 석봉도자기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그 다음 갯배를 타고 아바이 마을을 둘러본 후 중앙재래시장에서 장 구경을 하고, 영랑호에서 신라 화랑들의 숨결을 체험해 보기로 한다.

석봉도자기미술관은 석봉 조무호 선생의 도자기 벽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백토를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초벌을 한 후 도자기 안료로 그림을 그린 후 유약을 칠해서 다시 재벌 하여 펴줄처럼 하나하나 다시 맞추는 것이다. 방법은 일반 채색도자와 다를 바 없으나 일단 크기로 비교했을 때 세계 최대라고 하니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2층 설악관에는 기네스북에 실린 세계 최대의 접시가 있다. 접시의 문양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상징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세종관에는 명성왕후와 세종대왕의 영정과 조선의 역사적 증거와 사료를 담은 도자기 벽화가 웅장하게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표제와 안내표지판 아트샵 상품 등이 일관성 없이 펼쳐져 있어 전시가 매우 산만하게 느껴졌다.

석봉도자기미술관에서 한 시간 정도 전시 관람을 한 후 갯배를 탈 수 있는 시청 앞 선착장으로 이동하였다.



석봉도자기미술관

결국 어선이 즐비한 바닷가에 주차를 하고 선착장이라 하기엔 웬지 미심쩍은 갯배가 닿아있는 곳으로 한참을 걸었다. 걷는 동안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과 아낙네들을 사진촬영하고 낮 선 곳에서 혼자 여행하는 짜릿함에 슬쩍 미소도 지어본다.

갯배에는 열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타 있었다. 몸이 거의 붙어 있어 이란성 삼 쌍둥이처럼 보이는 연인,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 50대 가량으로 보이는 거센 말투를 지닌 짹눈의 사공 아저씨 그리고 나 이렇게 일곱 명이다.



청호동 아바이 마을 갯배 나루터

100미터도 안되어 보이는 지금의 청호동 갯배 나루터. 실향민 1세대들은 당시 이곳에서 저 건너에 있는 중앙재래시장에 물건을 팔아 끼니를 때우기 위해 내가 지금 타고 온 이 갯배의 쇠 줄을 매일같이 끌며 오갔던 것이리라. 오징어며 명태, 멸치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던 그들의 지난했던 흔빛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건너편에서부터 가을동화(송승현, 송혜교 주연)의 간판이 크게 보이고 갯배를 건너 아바이 마을에 도착하니 갯배 샷으로 200원을 받는다. 마을입구에는 아바이 순대며 함흥냉면 오징어 순대의 원조집들이 즐비하다. 사실 이들이 모두 원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면 그들은 모두 이북에서 태어나고 살았으며, 그곳의 음식문화를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동화의 은서네 집은 이젠 관광 상품을 파는 구멍가게가 되어 있었다.



현재 관광상품을 파는 은서네집



박물관에 있는 은서네집

앞으로 박물관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곳 아바이 마을 실향민에 대한 연구라 오늘 이 답사는 내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곳 사람들의 말투,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낯설기보다는 오히려 라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바이 마을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사진을 찍어댄다.

박물관의 문화촌에 복원해 놓은 은서네 집이나 하꼬방과는 사뭇 다르기만 하다. 박물관에 있는 은서네 집은 관광 상품점이 되기 이전의 은서네 집을 복원해 놓은 것이었고, 하꼬방은 속초 역사에 있는 하꼬방이 아니고 전시 관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 역사에 있는 실향민들이 생활했던 하꼬방과는 달리 매우 튼튼한 목재 건물이다. 다행히 박물관 전시장 안에는 과거의 하꼬방이 그대로 복원이 되어있다.

이곳 아바이 마을의 하꼬방들을 실제로 보니 피난시절 바다로 떠내려 오던 레이슨 박스나 나무판자를 얼기설기 엮어 만들었던 역사에 있는 하꼬방은 더 이상 아니었지만 그간 많은 변화

와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대도시나 일반 농촌만큼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이곳 가옥들이 좀 의아하기도 하다. 아직 복잡한 골목의 구조와 폐쇄된 집안의 구조, 그리고 나열식 방의 구조들은 여전한 것 같다. 특이한 것은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공간이었다. 사람이 다닐만한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엇을 저장해놓기에도 매우 어정쩡한 공간이었는데, 과연 이 공간을 남겨놓고 집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청호동 하꼬방 풍경



집과 집사이에 있는 좁은 골목들

골목을 빠져나가면 모래가 하얀 바닷가가 나온다. 나처럼 혼자 온 사람보다는 가족과 함께 여행 온 사람들이 많았다. 난 바닷가에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아마도 혼자 이곳에 이렇게 여유롭게 있는 것이 가족에게 미안해서인 것 같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며 구경하는 동안 조금 출출했다. 아니 그보단 <피난민 정착사>를 읽을 때 가셨던 이곳 음식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식당을 찾게 만들었다고나 할까.

'단천 식당 원조50년 3대째 식당운영'이라는 홍보 판넬을 보며 길을 찾아가다가 단천 식당 앞에 있는 '다신식당 원조 50년'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식당으로 들어선다. 단천 식당의 문에는 많은 연예인들과 식당주인이 찍은 사진들이 썬팅되어 있었고 이미 각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녀간 모양이었다. 사람들이 벼글벼글하다.

난 손님이 아무도 없는 다신식당 방안에 자리를 잡았다. 오징어순대 한 접시와 맥주 한 병을 시키고 메모지와 펜을 꺼내 기록을 남긴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훌깃훌깃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본다. 30분이 흘렀다. 맛있게 먹으라는 여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맘이 놓여 너무 맛있다며 너스레를 떤다. 남은 오징어순대는 저녁끼니로 먹으리란 심사로 5개의 오징어순대를 포장 해 달라고 한다.



이북음식이다. 오징어 순대

온서네 집을 중심으로 그 뒤쪽이 신포마을이다. 실향민들끼리 이북 고향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마을 이름을 붙인 것이란다. 신포마을 끝 쪽으로 가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과 며느리가 어망을 손질하고 있다. 그때가 이미 세시 가량 되었었는데 아마도 어망을 다 손질 하려면 저녁 때쯤은 되어야 할 듯 했다.



어망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

다시 갯배를 타고 중앙재래시장을 갔다. 이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승선해 있었다. 갯배를 끄는데 배삯을 안 깎아 주냐며 한 아저씨가 제안을 하니 승선한 관광객들이 맞다며 깎아주라고 한마디씩 한다. 그래서 다들 한바탕 웃었다.

중앙재래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었다. 좌판마다 갖 잡아 올렸을 법한 생선들이 펼쳐져 있고 여러 블록에 걸쳐 줄지어 좌판들이 펼쳐져 있었다. 어느 블록은 건어물, 어느 블록은 채소

와 잡화, 지하에는 활어횟집들이 파티션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싱싱하고 쌈 활어 회를 맛 보기위해 관광객들은 흥정을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먹기도 했다. 입맛을 다시며 빠져나와 다음 행선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일단 차에 올라 한길로 쭈욱 나오니 동명항이다.

영금정이 바라다보이고 복잡한 차들의 풍경에 차를 돌려 영랑호 쪽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즐겨 수련을 했다는 그 곳. 영랑호 둘레엔 드라이브 코스와 자전거 도로가 제법 잘 정비가 되어있었다. 일방통로여서 마주 오는 차를 피하거나 뒤쫓아 오는 차에 쫓겨 속도를 낼 필요도 없었다. 생태공원과 휴양 방갈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휴일을 만끽하고 있는 연인들과 가족들, 마스크를 착용한 휴양촌 이용객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이들의 여유를 보며 잠시 내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영랑호

차에 올라 천천히 돌아오니 호수건너편에 범 바위가 넉넉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날카롭지도 않고 소박하고 넉넉한 범 바위의 모습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편안할 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다.

호수를 빠져나와 동명동 성당에 들렀다. 후평동 성당에 계시던 김정식 도마 신부님이 계시는 곳이다. 속초 감리교회와 마주 보고 있는 동명동 성당은 작고 아담한 비밀의 방 같은 곳이었다. 낯선 곳에서는 성당만 보아도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진다.

성모상에 인사를 드리고 성당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가 성체조배를 올린다.

그동안 죄송했다고… 많이 바빴노라고… 이해해달라고… 맘속에 그토록 많은 상심과 고민을 풀어놓자고 생각한 순간 간밤에 꾸었던 꿈이 생각난다. 내가 여기 오려고 그런 꿈을 꾸었었나 보다.



동명동성당

신부님은 운동가시고 안계셨다. 사무실에 들러 사정을 말씀드렸다.
보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또 오겠다고… 건강하시라고 신부님께 메모를 남기고 집으로 향했다.

오는 길에 집 근처에서 아이스크림과 우유를 샀다.

북한지역 북청사자놀음

장정룡(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I. 머리말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음은 북청군 산하 14개명 3개읍에 속한 마을에서 정월 대보름날에 주로 추었던 세시풍속탈놀이다. 이것은 함남 북청·정평·영흥·홍원 등지와 함북 경성·명천·무산·종성·경원 등지에서 1950년대까지 전승되다가 중단되었는데, 6·25때 월북한 연희자들에 의해 복원되었으며 근래 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남쪽에서 연행된 북청사자놀음은 월남한 함경도민들이 집거하고 있는 속초에서 가장 먼저 전승되었다. 1957년 정월대보름날 속초에서 북청출신 김수석, 김하륜 씨 등에 의해 처음 공연되었으며¹⁾ 1961년에 처음 전국에 선을 보였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열린 1961년 9월 24일~29일, 육군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대회 때 함남 북청사자놀음이 참가하였으며, 공로상으로 윤영준, 마후섭 씨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덕수궁에서 열린 제3회 대회인 1962년 장려상을 차지하면서 마후섭 씨가 개인상을 받았다.²⁾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탈놀이로 인정되어 1967년 3월 31일 중요무형문화재 15호가 되었다.

북한에서 1·4후퇴 때 월남하여 고향과 가까운 속초에서 살다가 타계한 북청사자놀음 앞사자 김수석 기능보유자³⁾ 뿐 아니라, 지금도 고령으로 고생하는 통소의 명인 김하륜 옹, 그리고

1)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98~216쪽

2) 북청사자놀음이 제7회(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당시 대통령상은 전북농악이 차지하였고, 함남북청사자놀이는 공로상을 받았다. 당시 북청출신 김수석 씨 등이 사자앞머리로 출연하였다.

3) 崔琳圭, 〈北青獅子놀음〉 《江原民俗學》 창간호, 1983, 113~114쪽 “제보자 金壽石 씨는 현재 속초시 영랑동 41통 1반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금년 76세의 고령이시다. 1907년 함경남도 북청군 주평리에서 출생하여 1·4후퇴 때 월남하신 분이다. 학력은 보통학교를 졸업했으며 북청 사자놀음을 배우게 된 때는 우연히 정월대보름날 사자놀음을 구경하다가 흥미를 느껴 13세 때 배우게 되었다 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혼자서 흥내도 내고 연습하여 그 다음해 사자탈을 쓰고 연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북청사자놀음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라 한다.”

최근 속초로 이주한 사자놀음 이수자 김덕례 여사⁴⁾ 등은 속초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사자놀음의 고향만들기에 노력한 공로가 크다.

북한에서는 민속예술 가운데 탈놀이를 특히 높게 평가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것이 봉건사회 인민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그 사상 감정을 반영한 우수한 인민창작으로 낙천적이고 폐기에 찬 투쟁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민속예술뿐 아니라 전통문화 전반에 있어 애국적·인민적·진보적인 것을 계승하되,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는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실적이고 발전적 계승을 주장한다.⁵⁾

특히 전승탈놀이에는 봉건착취자에 대한 비행의 폭로, 행복한 근로인민들의 사상이 배어 있어서 민족의 주체사상을 드높이고, 악을 미워하고 착취와 억압에 뿌리박고 있는 낡은 생활을 짓밟고 뒤집어엎어야 되겠다는 사상이 넘친다고 한다. 따라서 인민들의 참을 수 없이 가난한 생활의 원인과 그들의 행복과 사랑이 뜻대로 실현될 수 없는 원인이 바로 양반 통치자들의 착취와 약탈, 억압에 있음을 묘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 사회의 모습을 뚜렷이 밝혀낸다고 극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청사자놀음은 극적 줄거리가 선명하며 탈춤과 우스꽝스런 재담으로서 양반통치 계급의 탐욕과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전개를 이룬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해석과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가면극은 전승이 중단되었거나 활발하게 전승시키지 못한 채 북한체제 축하공연으로 내용과 형식이 바뀌어 전승되는 실정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문예이론, 김일성·김정일의 현장교시, 착취계급과 괴착취계급으로 무장한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당의 문화정책에 부합된 예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면극은 오로지 계급투쟁과 저항정신을 강조하며 혁명적 본질을 수행하는 장르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현장교시인 ‘귀중한 가르침’이라는 즉흥적 지도가 근본적으로 북한 가면극의 변질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세시풍속에 전래한 민속놀이나 민속극이 차츰 새로운 방식의 세시풍속으로 변환되어 각종 북한기념일(5.1절, 9.9절 등) 행사가 되었으며, 군사훈련·체육경기와 결부되거나 국장 또는 야외공연종목, 곡예 등으로 나아가고 있다.⁶⁾ 더욱이 호방하고 자유로운 춤사위로 전승된 세시풍속의 마당극인 탈춤공연을 경연방식, 무대공연 등으로 바꾸고 탈의 모습도 시대에 맞게 한다는 명분으로 교체하여 연행하고 있음은 원형을 강조하는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⁷⁾ 이러한 여러 이유로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이 정월 대보름날 세시풍속 연행놀이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⁸⁾

4) <설악신문>2006.8.28, 사람·사람들 ‘고향 속초 정착한 북청사자놀음 이수자 김덕례씨’ -사라져가는 이북 춤 전수 힘쓸 터- “우리나라 전통춤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북청사자놀음 이수자인 김덕례씨(56, 중앙동)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66년 고 김수석 씨 등이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의 명맥을 이어온 그는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기력이 쇠하기 전, 북청사자놀음 뿐 아니라 이북 전통춤을 고향에 전수하기 위해 내려오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5) 최철·전경욱, 『북한의 민속예술』고려원, 1990, 53쪽

6) 주강현, <북한민속놀이의 현단계> 『조선의 민속놀이』 해제, 푸른숲, 1988, 304쪽

궁극적으로 민속놀이·민속극·민속무용·인형극·민요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민속예술은 예술성보다는 문화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계급의식을 반영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목표로 지배층이나 부르조아 사상이 깃든 문화, 봉건유교사상이 내재한 문화 등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모든 민속예술이 일인독재의 현장교시로 그 지속과 단절이 결정되고 있음은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대적 미감에 맞게, 사상성과 주체적인 시대정신에 맞게, 그리고 역사주의적 입장에 맞도록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민속예술의 주체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북청사자놀음과 황해도 봉산탈춤 역시 남북간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북녘 땅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이해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긴요한 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과제로 속초사자놀음으로 정착된 북청사자놀음의 북한전승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단시대를 넘어서 통일지향의 가면극을 지향하고자 남북한간 변이양상과 이질화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북한전승 북청사자놀음의 실제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지역을 본거지로 한 동해안 북부의 대표적인 사자놀음이다. 현재 북한의 사자놀음은 사자춤과 놀이를 기본으로 구성되며 대사가 없는 극의 양상을 띠고 있다. 큰 짐승인 사자를 무대에 내 세운 것은 경기도의〈양주소놀이굿〉과 비슷하지만 대사와 노래가 있는 소놀이굿과 달리 대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가면극에는 사자탈이 등장하는 것으로〈봉산탈춤〉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자를 기본으로 전개되는 것은 북청사자놀음이 유일하다.

7) 《민족문화유산》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6~7쪽 <민속무용 봉산탈춤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 “오랜 역사의 힘을 가진 탈춤이 일제놈들에 의하여 파묻혀 있었지만 봉산지방에서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선조들이 남긴 유산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아내여 우리 인민들의 사상 감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봉산탈춤을 더 훌륭한 민속무용으로 완성한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었다. 탈춤에 나오는 춤가락들은 활달하고 독특한 맛이 있지만 야외에서 추던 춤을 무대에서 추었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야외에서 추던 춤을 무대에 옮길 때에는 거기에 맞게 추려서 해야 한다고, 탈을 쓰고 하는 녁두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고 춤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였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적 재부를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민속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과분한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작품의 가면문제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전통적인 민속무용을 널리 보급하여 더욱 발전시켜나갈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8) 리정순 외, 『열두달 민속이야기』근로단체출판사, 2002, 70쪽에서는 음력 3월 세시풍속으로 청명전후에 불리는 함경도 북청지방 돈돌라리 노래와 달래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대보름 북청사자놀음은 빠지고, 정월대보름 놀이로 흐블놀이, 바람개비놀이, 바줄당기기, 놋다리놀이, 다리밟이, 봉죽놀이, 쥐불놀이만 다루고 있다.

9) 장정룡, 〈속초실향민속놀이의 콘텐츠개발〉 발표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12. 15

현행의 북청사자놀음은 1950년대 후반 중단되었다가 복원된 것으로 설날을 계기로 정월대 보름날 각 고을에서 모인 출연자들이 경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색이다. 명절분위기에 어울리게 밝고 약동적인 사자춤으로 흥겨운 명절맞이를 하는데, 이와 같이 사자춤을 힘찬 동작이 중심인 즐거운 공연물로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이 지역민들의 남성적 성격과 어울려 인기가 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 인정하는데, 인민의 감정을 반영하는 등 줄거리가 선명하다고 평가한다. 그것은 양반통치계급의 탐욕과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극적 줄거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춤이 중심인 탓에 극적 형상은 약하다고 지적한다. 전체적으로 대사가 전승되지 않고 구성줄거리만 기록되어 구전되나 내용은 계급의식을 반영하고 투쟁의식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북청사자놀이는 실로 우리나라 근로 농민대중이 장구한 봉건적 억압착취와 또 후에는 일제의 혹심한 억압착취하에서 신음하면서도 일년에 한 차례씩 정월 보름날 밤을 기하여 자기들의 우렁찬 기세를 시위하는 행사였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그 해 년사의 풍작을 빌고 병마와 사귀를 물리칠 것을 기대하는 행사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자놀이는 우리나라 괴압박 농민계급의 건전한 계급의식의 반영이었으며, 민속행사를 통한 투쟁의식의 집중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북한에서 전승되는 북청사자놀음은 북한체제를 위한 민속놀이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사상은 조국에 대한 사랑,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 사회적 모순의 묘사 등으로 본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현존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을 살펴보고 남한의 북청사자놀음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1.《조선중세민간극문학》 수록 대본¹¹⁾

최근 권택무에 의해 정리된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은 ‘북청사자탈극’이라 부르며 북상리(대별)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대본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과장은 제1 도청과장, 제2 길군악과장, 제3 경연과장, 제4 마을돌이과장, 제5 마감과장으로 나누었으며, 나오는 탈은 사자탈, 꼭쇠(또는 꽉쇠), 양반, 중, 점바치, 의원, 굴중(상모)돌리는 사람, 소고든 거사(2명)¹²⁾, 무동,¹³⁾ 아이(또는 기생) 등이다. 이 내용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¹⁴⁾

10)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과학원출판사, 1958, 80쪽

11)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평양출판사, 2006, 86~91쪽

12) 거사(乞士, 居士)는 유랑예술인집단인 사당패 가운데 남자를 이르는 말.

13) 무동, 무동(舞童)은 걸립패라는 유랑예술인들의 집단에서 다른 출연자의 어깨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아이.

14) 원문은 1차 자료의 가치를 살려 북한의 용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단어만 한글맞춤법에 맞게 고쳤다.

1) 도청과장¹⁵⁾

정월대보름달 달 밝은 밤이다. 사자탈극 출연자들이 마을사람(관중)과 함께 도청에 모인다. 초저녁이다. 도청 안에서 장단을 잡고 소리와 춤으로 탈극을 시작한다. 반주를 맡은 '장단재비'는 피리 4명, 통소 4명, 팽매기 1명, 증(징) 1명, 새납 1명, 소고 1명, 큰북 1명이다. 통소, 피리 그리고 피리에 장단을 맞추는 큰북이 주동이 되고 기타 재비들이 장단을 맞추면서 쉼 없이 '사자닐리리' 곡을 반주한다. '사자닐리리' 곡은 단조로운 애상적 색조를 띠고 있으나 신명나게 울리는 북소리와 어울려 흥겨운 춤을 자아내는데 알맞는다.

음악이 울려 이윽고 출연자들이 도청마당 앞에 나온다. 꼭쇠는 험상궂게 생겼다. 남루한 푸른 두루마기를 걸치고 그 위에 각띠를 디고 방울을 달았다. 머리에는 종이수술을 얹는다. 양반은 수염이 길고 관을 썼으며 도포를 입었다. 손에 부채를 들고 긴 담뱃대를 문다. 거사는 탈을 쓴 머리에 고깔을 얹었다. 출연자들은 도청마당을 무대로 하여 장단에 맞추어 한마당 춤을 벌린다. 마을사람들(관중)도 흥이 나면 자유롭게 춤판에 끼어들 수 있다. 이 과정은 서막과 같다.

2) 길군악¹⁶⁾과장

출연자들과 마을사람들(관중)은 달이 밝지만(정월대보름이 아닌 날, 비록 달이 뜨지 않은 때라 하여도 같지만) 여러 개의 횃불(또는 등불)을 켜서 선두에 들고 마을을 떠나 행렬을 짓고 길군악에 맞추어 북청읍으로 간다. 기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간다. 여러 마을에서 출발한 출연자들과 군중은 북청읍 남병영¹⁷⁾ 앞마당에 모여든다.

3) 경연과장

출연자들이 모여들 때까지 먼저 온 집단들이 장내의 분위기를 돌군다. 다 모이면 저마끔 승벽내기로 사자놀이를 벌린다. 통소, 해금, 피리의 조화된 사자닐리리에 팽매기와 큰북이 우렁차게 장단을 맞춘다. 무대에는 응장하고 흥겨운 분위기가 가득찬다. 마을사람들도 사자가 춤을 추는데 어울려 마음껏 즐긴다.

4) 마을돌이과장

남병영 앞마당에서 승벽내기로 사자놀이를 한 뒤에 마을단위의 출연자들과 군중은 이어서 각기 호별 방문을 한다. 그리하여 마을돌이가 벌어진다. 앞장 선 꼭쇠가 찾아간 집의 어

15) 도청(都廳)은 마을에서 도감(일거리를 맡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16) 길군악은 길을 행진하면서 울리는 음악의 한 가지. 길-군악(軍樂)

17) 남병영(南兵營)은 북청에 있었던 병마절도사(지방주둔군 사령관)가 주둔하는 군영.

른을 만나 인사한다. 사자를 이끌고 마당 안을 신명나게 한바퀴 돈다. 장단은 사자닐리리의 초장인 ‘마당장단’에서 시작된다. 사자는 마당장단에 맞추어 동작이 느린 ‘넘놀이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윽고 반주는 사자닐리리의 중장인 ‘닐리리장단’(또는 승모장단)으로 넘어간다. 사자는 동작이 한층 빠른 ‘잦은녁두리춤’(또는 승모춤)을 춘다. 이 장면에서 용맹한 사자의 기상이 아주 뚜렷이 표현된다. 사자닐리리는 말장인 ‘건모리장단’(또는 영풍장단이 듣기 도드라미)으로 넘어간다. 음률은 한층 더 급해지고 북소리는 숨쉴 사이도 없을 만큼 격동한다. 사자는 날래고 재빠른 급한 동작인 환희에 넘치는 ‘건모리춤’을 춘다.

아이 하나가 마당 가운데 나온다. 사자가 달려들어 아이를 잡아 삼킨다.(남병영 앞뜰에서 놀 때는 판가에서 기생을 내여준다. 사자는 그때 기생도 삼킨다.) 희생자를 삼킨 사자는 곧 체기를 받고 병들어 쓰러진다. 점쟁이가 나타나서 사자가 무슨 병을 앓는지 점을 친다. 한편 꼭쇠가 달려가서 의원을 업고 들어온다. 의원이 긴 막대기침을 사자에게 놓는다. 사자가 소생하여 다시 흥겨운 춤을 춘다. ‘건모리춤’이 끝난다.

5) 마감과장

집주인의 요청으로 사자가 ‘바당문’(부엌문)으로 해서 ‘조양간’(부엌)으로 들어간다. 사자가 ‘조양’을 향해 세 번 절한다. ‘조양’에는 흔히 ‘성조’(집수호신)를 위하는 단지(쌀과 옥전이 들어 있다)가 있고 ‘조왕’을 표시한 ‘배 현것’을 매어둔다. 사자는 거기서 눈에 뜨인 양푼이나 그릇을 입에 물고 밖으로 나온다. 집주인이 사자가 물고 나온 그릇에 음식물을 가져다놓고 술과 안주를 차린다. 사자는 한바탕 흥겨운 춤을 춘다. 이것으로 탈곡이 끝난다.

2. 《조선민속사전》수록대본¹⁸⁾

북청사자탈춤은 우리나라 동부지방 대표적인 탈춤으로 함경도 북청읍의 도청에서 정월대보름날에 성황리에 진행되던 사자탈놀이 때 추어진 춤이다. 북청사자탈놀이에는 피리, 통소, 새납, 팽과리, 징, 소고, 북으로 편성된 재비들과 꼭쇠, 양반, 중, 의생(의원), 상모군, 소고를 든 거사, 무동 등으로 구성된 놀이꾼들과 춤꾼들, 읍주변의 여러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북청사자탈춤은 개별적인 집들을 찾아다니며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사자탈놀이를 하면 묵은 해의 온갖 부정한 것이 다 물러간다는 이 고장의 옛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시기 북청지방 사람들은 자기고장의 풍습과 잇닿은 인민적인 사자탈춤을 통하여 재앙을 없애고 새해 풍년들기를 한껏 바라곤 하였다. 사자탈놀이는 모두 6개 마당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사자놀이마당은 초장, 중장, 말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놀이가 진행되었다.

1) 사자놀이 초장

사자가 춤판을 한바퀴 위엄 있게 돌고 이에 재비들이 연주하는 마상장단(닐리리장단의 초

18) 조대일 외, 『조선민속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181~182쪽

장격인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오른발, 왼발 또는 앞 뒤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위엄이 있으면서도 무엇을 노리는 듯한 기상을 보여주는 사자춤이 진행된다.

2) 사자놀이 중장

좀 빠른 날리리장단(타령장단)에 맞추어 밀림을 돌아치는 용맹스러운 사자의 기상을 형상한 사자춤을 춘다.

3) 사자놀이 말장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에 맞추어 사자가 탈놀이판에 나타나는 아이와 기생을 삼켜버리고 체기를 만나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자춤이다. 이때 탈놀이판에 점쟁이가 나와 점을 치고 꼭쇠가 업고 나온 의생이 긴 막대기로 사자에게 침을 놓자 사자는 소생되어 기쁨의 춤을 춘다. 말장이 끝나면 처음 탈놀이판에 등장하였던 놀이꾼들이 뛰어나와 본격적인 춤판을 벌린다.

3. 《조선의 민속전통》 수록대본¹⁹⁾

이 대본은 ‘북청사자탈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청지방에서 해마다 정월대보름 날 재앙이 없기를 바라고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뜻에서 가장 크게 놀고 신창, 신포일대에도 널리 퍼졌다고 한다. 사자탈춤은 독자적인 구성체계와 이야기 줄거리를 가진 큰사자탈춤으로 독립적인 탈춤이다.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사자탈춤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마을사람들과 도청에 모인다. 초저녁에 모이면 피리, 통소 각각 4명, 팽매기, 징, 새납, 소고, 큰북 각각 1명의 재비들이 치는 장단에 맞추어 장쾌하고 신명나게 한바탕 춤을 춘다.

놀이꾼은 사자탈이외에 꼭쇠(꽉쇠), 양반, 중, 의생, 상모꾼, 소고를 든 거사 2명, 무동 등이 출연한다. 꼭쇠는 험상궂은 가면에 남루한 푸른 두루마기를 걸치고 각띠를 띠며 방울을 달고 머리에는 종이수술을 얹은 차림을 한다. 그는 긴 수염을 날리며 부채를 들고 장죽(통소)을 분다. 거사도 가면을 쓰고 고깔을 쓴다. 이러한 사자놀이패들이 도청에 모여 흥겹게 노는데 여기 까지는 사자탈춤놀이의 서막이다. 뒤이어 사자놀이패들이 등불(혹은 햇불)을 선두로 길군악에 맞추어 북청읍에 다다르고, 여러 마을에서 이처럼 북청읍으로 모여든다. 북청읍에 사자놀이꾼들이 다 모이면 경연이 벌어진다고 한다. 경연이 끝나면 사자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집집을 돌아다니는데 부엌문을 거쳐 방안에 들어간다. 사자는 거기서 양푼이나 그릇을 입에다 물고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는 데는 집안에 끼었던 모든 부정한 것을 쫓아버리고 그

19) 리순신 · 리금산 편집, 《조선의 민속전통》6, 민속음악과 무용,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37~338쪽

집 사람들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있다. 주인은 사자가 들고 나온 그릇에 먹을 것을 담아놓고 주안상을 차린다. 사자는 한바탕 흥겨운 춤을 추고 나서 음식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사자놀이는 사자춤을 추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끝이 난다.

사자탈춤의 동작은 특색이 있는데 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동작,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쪼는 동작,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등이 있으며 사자의 행동을 그대로 형상하면서도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게 된다.

사자탈춤에서 사용되는 사자널리리 반주음악의 첫장은 심산유곡에서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하였고, 중간장에는 성낸 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인 선율을 연주하고, 마지막장에서는 부정을 타승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훌륭히 형상한다고 한다.²⁰⁾

1) 첫장

널리리의 초장격인 ‘마상장단’(굿거리장단)으로 시작된다. 사자는 장단에 맞추어 동작이 느린 ‘널리리춤’을 추기 시작한다. 위엄이 있으면서도 무엇을 노리는 듯한 기상을 안고 있다.

2) 중간장

널리리장단(타령장단)에 맞추어 추는 ‘넉두리춤’이다.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은 이 넉두리춤에서 남김없이 표현된다. 밀림을 돌아치는 용맹한 사자의 기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마지막장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으로 넘어가면서 음악은 더 속도를 내고 북소리는 매우 격동적이다. 사자는 재빠른 동작을 환희에 넘치는 춤을 준다. 이때 아이 하나가 마당에 나온다. 사자는 달려들어 아이를 삼켜버리는데 이번에는 또 관가에서 기생이 나오는 것도 삼킨다. 사자는 춤을 추다가 체기를 만나 쓰러진다. 점쟁이가 점을 치고 꼭쇠가 달려가서 의생을 업고 나온다. 의생이 긴 막대기로 사자에게 침을 놓자 사자는 다시 소생하여 기쁨의 춤을 준다. 이렇게 되면 놀이꾼 모두가 뛰어나와 본격적인 춤판을 벌린다.

20) 전장석, <탈놀이> 《조선의 민속놀이》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민속학연구실, 1964, 푸른숲 재판, 1988, 32쪽

III. 북청사자놀음의 변이양상

필자는 1991년 7월 16일 북청출신으로 속초에 거주한 김수석, 김하륜옹을 조사한 바 있다. 1957년부터 속초에서 행해진 북청사자놀음은 9곳거리 12마당이었다. 9곳거리 ①입장곡 ②애원성곡 ③에구내딸봉섬이 ④연풍대 ⑤칼춤 ⑥사자춤초장 ⑦중장 ⑧말장 ⑨자유곡, 12마당 ①양반꼭쇠의 해학마당정리 ②애원성노래 ③사당춤 ④무동춤 ⑤꼽새춤 ⑥칼춤 ⑦사자춤초장 ⑧중장 ⑨말장 ⑩승무 ⑪풍자 ⑫군무다.

이외에도 2마당 9거리로도 나뉘는데 첫째마당인 애원성마당에는 ①해학 ②애원성(노래와 춤) ③사당춤 ④칼춤 ⑤무동춤 ⑥꼽새춤이 들어간다. 둘째마당인 사자놀이마당은 ⑦사자춤과 승무 ⑧풍자 ⑨군무(넋두리춤)로 나뉜다.²¹⁾

현재의 연희내용은 마당놀이과장에서 ①마당돌이과장 ②애원성춤과장 ③사당·거사춤과장 ④무동춤과장 ⑤넉두리춤과장 ⑥꼽추춤과장 ⑦칼춤과장이 있고, 사자놀이과장은 ①사자춤 초장 ②사자춤 중장 ③사자춤 말장으로 구성된다.²²⁾

북청사자놀음의 변이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1950년대 자료는 참고로 활용하고 놀이마당, 등장인물, 춤사위, 장단 등은 최근에 나온《조선중세민간극문학》(2005), 《조선민속사전》(2004), 《조선의 민속전통》(1995)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들 자료를 근래 출간된 순서로 살펴보는 것은 최근 연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내용 대본	조선중세민간극문학 수록대본(2006)	조민민속사전 수록대본(2004)	조선의 민속전통 수록대본(1995)
놀이마당 (과장)	북청사자탈극 5과장 ①도청과장②길군악과장③경연과장④마을돌이과장⑤마감과장	북청사자탈춤 6마당 (사자놀이3장) ①사자놀이초장 ②사자놀이중장③사자놀이말장	북청사자탈춤 3장 ①첫장②중간장③마지막장
등장인물 (가면)	나오는 탈 11명 ①사자탈②꼭쇠(꼭쇠: 험상궂게 생김, 푸른두루마기, 각띠, 방울달음, 머리에 종이수술었음)③양반(수염길고 관을 쓰고 도포입음, 부채, 담뱃대)④중⑤점바치⑥의원⑦굴중(상모) 돌리는사람⑧소고든거사(2명: 고깔씀)⑨무동⑩아이(기생)	놀이군·춤군 7명 ①사자탈②꼭쇠③중④의생(의원)⑤상모군⑥소고든거사⑦무동	놀이꾼 8명 ①사자탈②꼭쇠(꼭쇠) ③양반④중⑤의생⑥상모군⑦소고를 든 거사2명⑧무동

21) (사)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대본》확정판, 1979년 9월 3일

22) 전경욱, 《북청사자놀음 전수교본》북청사자놀음보존회, 1996, 130~137쪽

춤사위	①넘놀이 춤②잦은 넉두리 춤(승모춤)③건모리 춤	사자춤	①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②머리를 숙였다 들었다하는 동작 ③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④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쪼는 동작 ⑤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⑥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반주음악	①사자널리리곡②마당장단③닐리리장단(승모장단)④건모리장단(영풍장단, 도드라미)	①마상장단(굿거리 장단)②닐리리장단(타령장단)③검모리장단(빠른타령장단)	①마상장단(굿거리 장단)②닐리리장단(타령장단)③검모리장단(빠른타령장단) ①첫 장: 심산유곡에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 ②중간장: 성낸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 선율 ③마지막 장: 부정을 타승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형상
반주악기	장단재비 14명 ①파리4명 ②통소4명 ③팽매기1명 ④증(징)1명 ⑤새납1명 ⑥소고1명 ⑦큰북1명 ⑧해금	재비 7명 ①파리 ②통소 ③새납 ④팽과리 ⑤징 ⑥소고 ⑦북	재비 13명 ①파리4명 ②통소4명 ③팽매기 ④징 ⑤새납 ⑥소고 ⑦큰북 각각1명

북한에서 발간된 근래 민속예술 자료들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누락된 것이 많거나 각색되었다. 예를 들면 선정된 내용은 집체성이 있고, 노동과 직결된 것, 공산주의 주체사상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고, 신앙성이 강한 것, 미신이라고 하는 속신적 내용이 많은 것은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전승에서 제외하였다.²³⁾

위의 도표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여도 사자놀음 중심의 북청사자놀음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5과장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전체 6과장으로도 행했으며 이 가운데 사자춤이 3과장 들어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행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은 전체 5과장 가운데 경연과장에서 북청사자춤 3장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은 변화가 없으나 춤사위와 반주음악은 넘놀이춤, 건모리장단 등의 용어처럼 남쪽과 다른 독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남쪽의 북청사자놀음은 마당놀이과장 7개과장, 사자놀이과장 3개과장으로 전체 10과장으로 놀이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지역은 5과장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용어상으로도 ‘탈춤’이라는 용어보다 ‘사자탈극’이라하여 연극적·공연적 측면을 강조하고 대사를 삭제하고 춤과 동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남쪽과 차이가 나고 마당극보다는 무대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사자놀음의 변화는 시대나 체제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본래의 원형으로 파악되는 1930년대 조사 보고된 북청사자놀음 자료, 1968년 함경남도지 수록본, 1991년 필자조사본(김수석, 김하륜 조사)을 참고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²⁴⁾

獅子놀음(사자놀음이라고 發音함)은 正月十五日 저녁에 細瑟標, 笛, 杖鼓를 樂隊로 한 一群의 선두로 鬼, 獐, 꺥쇠 등 假面을 쓴 一群이 뒤에서 舞踊을 하면서 집집을 돌아다닌다. 이 一隊가 남의 집 안마당에 들어가서 亂舞를 할 즈음에 실로서 몸체를 하고 붉은 面貌를 한 사자가(속에는 前後各一人式 入함) 갑자기 群衆을 헤치고 안방을 열고 큰 입을 벌리면서 무엇을 잡아먹는 形容을 하고 다시 부엌(廚房)에서도 如是하게 한다. 그리하면 그 집에서는 應分의 喜捨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僻邪進慶의 目적이 達成된다고 믿는 것이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獅子舞를 행하던 곳은 沙里院, 통영, 김해, 동래 군, 수영등지이나 사리원을 제외한 전부는 廢止되고 말았다.²⁵⁾

북청군 각면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자놀이의 실태를 간단히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북청읍: 사자계가 있어 이를 주관한다. 죽평리의 댓별사자가 유명하다. 이것은 다시 동리에 따라 이촌사자, 증촌사자, 넘은개사자, 동문밖사자, 북리사자, 당포사자로 나누어진다. ②가회면: 학계가 있어 이를 주관한다. ③신북청면: 양천리에는 영락계가 조직되어 이를 주관한다. ④신창읍: 토성리에

23) 최인학, 『북한의 民俗』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6, 40쪽

24) 宋錫夏, 〈韓國民俗大觀〉《新東亞》1935년 12월~1936년 8월 연재, 《韓國民俗考》日新社, 1960, 75~79쪽 재수록 ‘北青의 獅子놀음 及 官員놀음’

25) 宋錫夏, 《韓國民俗考》日新社, 1960, 76~77쪽

서는 음력 정월보름을 전후하여 관원놀이와 함께 행하여진다.

사자놀음은 토성에서는 舊正月 13일밤 관원놀이의 전 프로로부터,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구정 월 14일부터 논다. 달이 뜬 뒤(흔히 밤 8~9시)부터 사자놀음을 시작하면 15일 새벽까지 논다. 서당이나 도처의 앞뜰에서 酒食을 갖추어 놓고 논 뒤에 해산한다. 16일 이후는 초청하는 유지의 집들을 돌며 논다. 통소, 장고, 소고, 북, 팽과리 등의 반주 하에 사자와 사령, 꼽쇠, 양반, 무동, 승무, 꼽추춤과 기타 잡패들이 일단이 되어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먼저 이 무용단이 목표하여 둔 집의 마당으로 들어가서 난무하면 사자(假獅子 속에 2명이 들어감)가 맹렬한 자세로 안뜰을 거쳐 안방 문을 열고 큰 입을 벌리고 무엇을 잡아먹는 시늉을 한다. 다음에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전과 같이 한 후에 다시 안뜰 한 복판에 나와서 활발하고 기교적인 무용을 한 후에 단원보다 먼저 退出한다. 때에 따라서는 주인의 요청에 따라 부엌의 조왕과 시렁 앞에 엎드려 祖靈에게 절한다. 이때 어린이들을 사자에게 태워주면 수명이 길다고 하며, 사자털(헝겊)을 몰래 베어다두면 장수한다고 하여 그렇게 한다. 이제 오늘날의 사자놀이의 연기의 전모를 차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입장: 통소, 북의 반주음악과 함께 애원성을 부르며 노래와 음악에 맞춰 ‘애원성춤’을 춘다. 춤추는 사람은 여인으로 분홍치마, 색동저고리에 남색배자를 걸치고 고깔을 쓴다. 악사들은 흰바지 저고리에 분홍띠를 어깨에 가로 질러매고 고깔을 쓴다. 음악은 이때에 ‘늦은 궂거리’ ‘잦은 궂거리’ 등을 연주하고 승무의 일종인 애원성춤을 춘다. 사자놀이에 쓰이는 음악은 길군악과 재울리는 음악, 애원성, 무곡(연풍대)이다. 그리고 춤은 경복궁춤, 애원성춤, 성주풀이춤, 사당춤으로 구분한다. ②사자놀이: 양반과 그 하인(꼽쇠)가 등장한다. 꼽쇠는 양반의 허리끈을 매고 이끌어들인다. 양반은 부채를 흔들며 거드름을 피운다.(음악은 길군악) 장내를 한바퀴 돈 다음 꼽쇠가 허리끈을 놓으면 양반은 혼자 말로 지껄인다.(대사 중략) 사자가 퇴장한 다음 악사들과 동리 사람들이 원형을 그리면서 신고산타령 등 함경도 민요를 부르면서 군무로써 끝낸다. 사용되는 도구와 인원수: ①사자가면(2개) ②양반가면(1개) ③꼽쇠가면(1개) ④꼽추가면(1개) ⑤사령가면(1개) ⑥무동(2명) ⑦사당(1명) ⑧중(1명) ⑨의사(중국인 1명) ⑩거사(2명) ⑪반주악기²⁶⁾

구연된 내용과 사자탈의 크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연희시기: 정월대보름 전후 2~3일간
- (ㄴ) 연희장소: 도청마당(각 가가호호 방문 후)
- (ㄷ) 등장인물: 악사, 양반, 꼽쇠, 애원성춤 2인, 거사춤 2, 사당춤 2, 칼춤 2, 무동춤 4, 꼽새춤 2인
- (ㄹ) 가면: 양반, 꼽쇠, 사자탈(모두 종이탈)
- (ㅁ) 악기: 통소 3~4개, 팽과리, 장고, 북, 징
- (ㅂ) 소요시간: 40~50분(전체), 사자춤은 5~10분 정도
- (ㅅ) 연희내용: 벽사진경
- (ㅇ) 연희마당: [아홉궁거리(춤)] ①입장곡 ②애원성곡 ③에구내딸 봉섬이 ④연풍대 ⑤칼춤 ⑥사자춤초장 ⑦중장 ⑧말장 ⑨자유곡 [열두마당(내용)] ①양반꼭쇠의 해학마당정리 ②애원

26) 《咸鏡南道誌》1968, 44~47쪽

성노래 ③사당춤 ④무동춤 ⑤꼽새춤 ⑥칼춤 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 ⑩승무 ⑪풍자
⑫군무

(자) 사자탈의 크기: 1958년 남한에서 최초로 만든 사자탈은 크기가 사자전면 가로 70cm, 세로 62cm, 이마에서 눈썹까지 15cm, 눈썹의 길이 20cm, 한쪽 눈의 크기 14cm, 코길이 22cm, 입의 길이 21cm, 입높이 3cm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칠을 했으나 종이로 만들었으며 사자탈은 폐그물을 색칠함.²⁷⁾

IV. 맷음말

함경도의 대표적인 탈춤인 북청사자놀음은 남북분단이후 50년 넘게 속초로 옮겨 정착하였다. 황해도 은율탈춤이 연희자의 월남이후 본거지를 인천으로 삼고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듯이, 북청사자놀음의 속초정착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음은 희망적이다. 속초시에 조성된 북한 실향민문화촌과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사자놀음 전수회를 열고 사자탈춤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하겠다.

남북한은 분단 50년이 넘도록 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유한 한민족문화는 이질화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의 함경도 지역은 1930년대까지 사자놀음의 발상지였으나 1950년대 이후 북한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고유성을 훼손하여 체제수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일인독재의 교시적 주체민속예술로 전락시켰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남쪽은 북청사자놀음 탈과 놀이, 춤사위에 있어서 분단이전의 원형을 유지한 반면에 북한지역의 북청사자탈놀음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초는 함경도에서 출발한 북청사자놀음이나 우리들이 북한지역에 탈놀이 원형을 역수출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바라건대, 순수한 학술적 측면에서 북청사자놀음에 대한 남북한 현지조사 공동연구가 실현되고, 남북학술교환을 통해서 이질화된 분단민속학을 극복해야 하겠다. 나아가 민족공동체적 통일민속학을 지향하여 한민족 고유의 민족문화유산을 올곧게 전승해야 할 과제가 북청사자놀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지되는 바다.

최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시적 사자극놀음 또는 경연식 무대극으로 변화된 북청사자놀음의 원형복원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나, 함경도민의 제2고향으로 자처하고 있는 속초 지역에서는 사자춤 원형을 견지하여 실향민의 한이 담긴 사자춤의 포효와 호방한 춤사위를 통해 민족분단의 한을 뛰어넘어 통일한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실향민의 고향인 속초지역이 한반도 사자놀음의 메카로서 남북을 아우르는 사자춤 원형복원과 함께 그 전승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되어야 하겠다.

27)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214쪽

[참고문헌]

- 권택무, 조선민간극, 조선문학예술동맹출판부, 1966
-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 과학원출판사, 1958
- 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0
- 조선의 민속놀이,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 합경남도지, 합경남도지편찬위원회, 1968
- 이두현, 한국가면극, 문화재관리국, 1969
- 재미나는 유희와 오락, 사로청출판사, 1974
-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홍성사, 1979
- 조규희, 북청사자놀음대본(화정판),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1979
-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출판부, 1982
- 최인학, 북한의 민속,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6
- 서연호, 산대탈놀이, 열화당, 1987
- 리제오, 조선민속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 장정룡, 강릉관노가면극연구, 집문당, 1989
- 최철 · 전경욱, 북한의 민속예술, 고려원, 1990
-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 1991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문화부,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1992
- 한성겸, 재미있는 민속놀이, 금성청년출판사, 1994
-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명절과 놀이, 과학백과종합출판사, 1994
- 전경욱, 북청사자놀음 전수교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1996
- 문화재관리국, 북한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97
-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 장정룡 · 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 장정룡 외,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 리정순, 열두달 민속놀이, 근로단체출판사, 2002
- 조대일 외, 조선민속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 장정룡 외, 속초지역실향민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 · 속초시박물관, 2007

설악동 장재터 서낭제

한정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조선시대 부·면·리 제도가 실시되면서 속초지역은 양양도호부의 도문면(설악동, 대포동 일대)과 소천면(현, 속초시내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가 속했으며,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속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로 지방 제도가 바뀌면서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통합되었으며 장재터가 속했던 설악동은 양양군 도천면 장항리가 되었다. 1937년 7월 1일 속초면 장항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104호로 속초읍 장항리,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로 속초시 장항리가 되었다.

1966년 동제(洞制)를 실시하면서 장항리는 설악동으로 개칭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가 설악동에 편입되었으며, 1998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법정동인 대포동과 도문동, 설악동이 행정동 대포동으로 통합되었다.

설악동의 명칭이 된 설악산은 속초, 양양, 인제, 고성을 걸쳐있는 산으로 주봉인 대청봉은 해발 1,708m이다. 설악산은 설산, 설봉산, 설화산 으로도 불리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32 「잡지(雜誌)」 1 제사(祭祀)에는 설악(雪岳)에서 소사(小祀)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신라 이전부터 설악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강원도(江原道)」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에 의하면, 8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이 되어야 녹기 때문에 이름을 설악이라 지었다 한다. 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 금원(錦園)의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므로 설악이란 명칭은 눈이 일찍오고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악동의 면적은 54.5제곱킬로미터로 5개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72세대에, 1,3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설악동의 수려한 자연과 함께 신흥사와 향성사지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도 문화자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동제의 내용

1) 제당의 명칭과 형태

장재터의 제당은 ‘장재터 제당’ 또는 ‘장재평 제당’이라 칭해지며, 대포동(설악동) 15통인 장재터에 위치해 있다. 장재터는 장재평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 서쪽에 장자(부자)가 살던 터가 있었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으로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 상복교 건너편에 위치한다.



상복교



마을입구

본래 이곳은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 였으나 1983년 신단지 핏골과 함께 설악동에 편입되었다. 장재터 제당은 장재터와 상도문리를 연결하는 상복교와 벼락바위를 지나 마을길로 5분 정도 거리인 송림 속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솔무정 제당’이라고도 불린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장재터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제를 지내 왔으며, 마을의 어른신을 중심으로 제반 사항을 결정했다고 한다. 특히 노인회장에게 권한이 전하여 내려오고 있다.

제당은 마을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가량의 1칸 규모의 건물이다. 시멘트 벽에, 함석 지붕과 함석 문을 달았으며 주변으로 40센티미터의 나지막한 돌담을 쌓아 놓았다.



제당



위패

제당 내부에는 약 30센티미터의 목조 위패에 ‘장재평 남성황님 여성황님’이라고 검은 글씨로 써 놓았다. 위패 상단에는 한지와 실을 매달아 놓았으며 촛대와 제기(祭器)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과거의 제당은 현 위치가 아닌 지금의 마을회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를 지내도 효험이 없고 좋지 않은 일들이 간혹 생긴다고 해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때문에 마을이 더 풍요롭게 되어 다른 마을의 부러움을 산다고 믿고 있다.

2) 동제의 준비

(1) 제관(祭官) 선정

음력 12월 중순에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서낭제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때 생기가 맞는 집을 도가집으로 정하는데 선택된 집은 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경건히 하고 경조사 및 바깥출입을 자제한다.

마을에서는 동제를 위한 도가집이 선정되면 마을 어른들을 위주로 제관을 구성하고 주민에게 알린다. 노인회장이 당연직으로 제주(祭主)가 되어 당제를 주관하고 통장이 보좌한다. 제관은 연장자 순으로 마을 어르신 위주로 선정하며 노인회장과 통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

제관이 선정되면 동제 2주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제당을 찾아 환경을 정리하고 새끼줄로 주위에 금줄을 쳐서 부정이 근접치 못하게 한다. 마을 우물도 마찬가지로 주변정리를 하고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는다.

(2) 제비(祭費)와 제물(祭物)

예전에는 제를 올릴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운영 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마을회의에서 마을공동발전기금을 조성토록 결정하여 동제를 비롯한 마을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제례의 규모, 비용, 참석인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회장과 통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운영주체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제물로는 주파포, 어물, 탕, 시루떡 1말, 돼지머리를 놓으며, 제주(祭酒)는 꼭 막걸리를 쓴다. 제당과 우물에 금줄을 친지 사흘째 되는 날, 그 우물물로 막걸리를 담아 도가집 뒤틀에 묻어 놓는다. 이 술은 동제 전일에 꺼내어 상태를 보고 제의에 사용한다.

(3) 제수(祭需) 준비

동제 전날에 노인회장과 통장, 제관 2명이 함께 시내 재래시장에서 제수를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제물에 대해서는 흥정을 하지 않고 판매상이 부르는 가격대로 구입한다. 이는 조금이라도 실랑이가 있게 되면 부정을 타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재터 주민들은 동제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수 구입이 끝나면 이를 도가집에 전달해 주고 도가집에서는 목욕재계를 한 후 음식을 준비 한다. 이때는 마을 주민들도 도가집 근처에 근접치 못 할뿐만 아니라 마을의 각 가정마다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일찍 소등을 하고 잠을 청한다고 한다. 제물이 다 마련되면 음식을 가지런히 다반상에 차려놓고, 잡귀가 근접치 못하도록 촛불을 켜 놓는다.

동제일 새벽 1시 무렵에 마을회관에 노인회장과 통장, 제관들이 모여 의관을 갖추고 제물을 제당에 진설하는데, 우선 제관들이 제당에 쳐진 금줄을 걷고 준비를 한 후 정각 3시부터 제를 지낸다.



제물



진설

3) 동제의 진행

(1) 제의절차

장재터마을의 서낭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생기를 맞추어 설과 정월 대보름 사이의 날을 정한다. 제의는 봉주취위(奉主就位), 분향강신(焚香降神),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소지(燒紙)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일시(2005년 2월) 제의에서는 초헌관과 종헌관은 노인회장이 담당하였으며 아헌관은 통장이 맡았다. 종헌이 끝난 뒤 제관 2명이 소지를 올리는데 장재터 주민 45세대의 소지와 함께 가축 소지까지 올리며 무사기원을 빈다. 그 후에 마을안녕 소지를 올리고 한지와 실을 제당 상단에 옮겨 놓은 다음 “다 올렸습니다.”라고 진행자가 외치면, 참석자 모두가 함께 절을 2번 올림으로써 제의가 종료된다. 음복은 제당에서 하지 않고 음식을 모두 거두어 도가집으로 다시 이동한다. 음복은 제관들이 먼저 한 후 마을 주민들에게 “제의를 마쳤습니다.”하고 알리면 온 마을주민들이 도가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분향강신



초헌



아헌



종헌



소지



한지와 실 묶기

(2) 축문(祝文)

장재터 동제에서 사용되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正月 00朔 乙酉年 獻官 000 敢昭告于
 城隍大神之位 伏以 司天司地 神氏分屬
 祈誓遺與 稀有 祝菴刷新 不勝永慕
 人依於神 神依於人 人神相資 乃成祀事 非人無祀
 非神無賴 每當此時 惟我遺禮 鑑此徵誠 降福消災
 照臨于上 旣蒙舊德 便彼新思 三農豐登 六畜繁殖
 子子孫孫 世世吉昌 消盡火災 維神所護
 勤以 清酌庶羞 乙酉年 所願
 老人會長 윤금중 統長 김만수 尚饗

4) 영험담

1960년대 이후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회관 자리에 있던 제당을 현재의 송림이 우거진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그 덕택으로 인근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던 천재지변이나 재앙도 미치지 않는 영험한 지역이 되었다고 마을 주민들은 믿고 있다. 당제를 지낸 후로 마을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마을이 번영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는 대풍을, 설악산 인근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주민에게는 수입의 증대를 당신(堂神)이 가져다준다고 한다. 즉, 장재터 주민들은 제당을 마을 사람들을 상시 보살펴 주며 평안함과 부를 안겨주는 곳으로

믿고 있다.

5) 동제의 운영과 결산

동제 결산은 당제를 마치고 노인회장과 통장이 주관하여 마을회관에서 개최되며 매년 동제 운영비는 1백 만원 선으로 운영된다. 이 자리는 당제를 시작으로 한 해의 마을 일정과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3. 동제의 특징

제당에 묶어 두었던 한지를 일부 거둬 연을 만드는 것은 이 마을만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은 제당의 한지로 연을 만들어 높이 띄워 날라다 놓아주며, 이것은 묵은 액을 날려 보내며 마을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행위이다. 장재터의 동제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제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성황신을 마을에 도움을 주는 신으로 믿고 있다.

조사일자 : 2005년 2월 20~21일

조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장재터

조사자 : 한정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제보자(2005년 현재)

- 윤금중(남, 71세, 노인회장)

- 김만수(남, 53세, 통장)

- 김태호(남, 81세), 윤찬중(남, 69세), 천주문(남, 69세)

김종하(남, 69세), 이덕희(남, 65세), 김성래(남, 49세)

박문식(남, 49세)

인간과 산(山)을 사랑한 강원의 슈바이처

이기섭 박사

지난 2006년 12월 25일, 속초문화의 큰 별이 떨어졌다. 1962년 속초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한 이후 무의총 진료활동과 속초 지역 최대의 축제인 설악제를 창설하는 등 큰 공적을 남긴 이기섭 박사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속초시사회장으로 치러진 그의 영결식은 인술의 바다로 나아가 기나긴 항해를 떠난 여정을 돌아보며 많은 이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린 시간이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모친 때문에 인술의 꿈을 꾸다

이기섭 박사는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도리에서 1913년 11월 9일 1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8세까지 서당에서 천자문을 수학하다 마을의 사립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 수료 후 수안공립 보통학교에 전학, 16세 되던 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보통학교 4학년 때에 식민교육반대와 일본인 교사의 배척을 내걸고 단신 동맹휴학에 가담하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단식동맹휴학에 의한 퇴학처분으로 국내에서는 면학의 길이 막혔고 다음 해 일본으로 건너가 광도에 있는 광릉중학교 4학년에 편입, 무사히 졸업을 마칠 수 있었다.

졸업과 함께 귀국한 이 박사는 유년시절 농촌에서 간염을 앓던 모친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뜨자 이 일을 계기로 시골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해 세브란스 의전에 지원, 입학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전 4학년 겨울, 평양에서 함동실(당시 이화의전 1년생) 여사와 결혼하고, 38년 졸업과 함께 모교 조수로 남아 의학연수를 계속하다 40년 10월 경도대제대학으로 유학, 수학을 마치고 1943년 귀국해 세브란스의전 전임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2차 대전 말이라 국내에는 한국민들이 군사시설 노역장에 동원되어 하루에도 수백명

썩 부상과 각종 질병에 죽어가던 때인지라 이들의 치료만도 모든 의사들의 몸을 쪼개서 써도 모자랄 때였다. 그 역시 조선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수영비행장에 파견되어 인부들의 치료에 나섰다.

해방을 맞이한 다음 해 서울 적십자병원 외과 과장으로 취임하여, 여순반란 사건시 아군과 민간인들의 치료에 헌신하고, 1949년 6월 26일 저격당한 백범 김구 선생의 시체를 검안하기도 했다.

이박사는 늘 그 당시를 생각하며 “세상에 그 위대한 애국지사를 일개의 군졸개가 총구를 들이대다니, 밤잠을 이를 수 없을만큼 분하다”며 격정적인 토로를 하곤 했다고 한다.

1950년 6·25가 발발하면서 피난민과 전상자들의 치료에 임했던 그는 1953년 1월 해군 예비역 대위로 제대, 귀원했다.

제대 이후인 1953년 4월, 이화여대 부교수로서 미군 민사처로부터 1만 달러어치의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원조 받아 5층 건물로 증축하고 과(科) 늘리는 등 병원을 확충하는데 앞장서며 의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썼다.

이박사는 4·19혁명 이듬해인 지난 1961년 정치적으로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돌연 속초로 내려와 속초시 중앙동에 의원을 개설했다. 그때가 1962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 이화여대 병원장에서 시골 의사로 변신한 것이다

그는 이때부터 틈나는대로 무의총 진료를 나섰다. 이어 속초시보건소장, 도립속초병원(현 속초의료원) 원장 등을 거치며 지역 의료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83년 도립속초병원장을 마지막으로 병원문을 나선 후에도 무의총 진료활동을 계속했다.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양양서면 보건지소에서 무의총진료사업을 하며 설악권 지역의 농어촌 벽지를 찾아다니며 한달에 두세차례 왕진을 했던 것이다. 이같은 그의 인술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기에 이르렀고, 이 지역에서는 현장을 사랑했던 영원한 의료인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됐다.

설악문화제 창설의 산파이자 설악산의 명성을 만든 사람

이기섭 박사는 누구보다 산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서울에서도 한국산악회 이사와 서울산악회 2·3대 회장을 맡으면서 산사람들의 극기와 체계적인 산행을 가르치는 한편 조난자들의 구조에 노력했었다.

산을 좋아했던 그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흠뻑 빠져 설악산의 전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노학동으로 이주해서 살기도 했다.

이처럼 산을 좋아했던 그는 틈나는대로 설악산을 찾았고, 1964년 설악산악회를 조직,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특히 1966년에는 속초지역 최대 축제인 설악제를 창설하고, 초대 설악제위원장으로 추대돼 설악제를 통해 설악산을 아끼고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설악산을 후세에도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 그는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고, 자연보호현장을 손수 제작해 배포하는 등 설악산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설악산이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그의 역할이 컸다. 등산로 개설과 국제 자연자원보존연맹의 조사에서 인적침해를 받지 않은 원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된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이 설악산이 자연보존지구로 남은데는 이박사가 벌인 ‘자연보호캠페인’이 큰 몫을 했으며 또한 조사반에 제공한 이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의 수가 상당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설악산에 대한 사랑은 설악산을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었다. 설악산에서 매년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조난사고가 끊이지 않자 산악구조반을 편성해 조난사고 피해자 구조활동을 펼쳤다. 그 중 가장 안타까운 일은 1969년 해외원정 훈련대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계곡’ 조난사고로 그 때에도 구조반을 총지휘해 3일만에 시신을 찾아 노루목고개에 안장시켰다.

이 박사의 이러한 살신성인적인 의료활동과 산악회 활동은 1974년 조선일보 사회봉사인상 수상과 2000년 중외제약과 의학신문사가 공동 선정한 제8회 중외박애상 수상, 2001년 보령제약 의료봉사상 수상으로 돌아왔다.

누구보다 설악권을 사랑했던 그는 생애 마지막 사업으로 두 가지를 계획하였다. 하나는 농어촌 보건의료사업협회 창설이고, 또 하나는 노인촌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노인촌의 경우 도문동 일대에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기력이 달려 자신이 추진할 수 없음을 느끼고, 2004년 속초감리교회에 사업 부지를 기증, 후일을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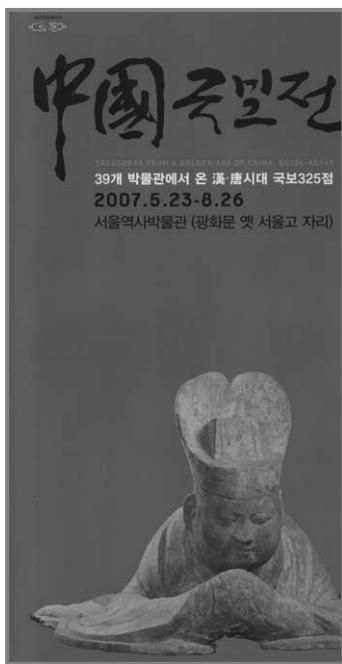
이러한 이기섭 박사의 고귀한 넋을 기리는 추모비가 1주기를 맞는 2007년 12월 24일 건립된다고 한다. 이박사의 유족과 속초시사회장위원회, 속초감리교회 교인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고성군 도원3리 저수지 입구에 건립되는 것. 묘비는 생전 산을 사랑했던 이 박사가 설악산에서 희생된 산악인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 지난 93년 제작한 ‘산악인의 문’(설악산 소공원 내)을 축소해 만들어졌으며, 크기는 900×600mm, 재질은 화강암이다. 이 추모비를 통해 이기섭 박사의 크고 높은 뜻이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200년의 긴 여행

- 중국국물전을 보고 와서

한 초 자(속초문화원 서예반)



일상에서의 탈출이었다.

知的인 호기심과 고대 중국의 보물전을 대한민국 안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슨 횡재라도 한 듯 한껏 부풀어 있었다.

아침 6시 속초소방소 앞에서 우리 서예반 학생들은 집결했다. 비는 부슬부슬 내렸지만 정시에 출발하여 서울 광화문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도착하니 아침 11시였다.

입장료가 어른은 만원이었고 학생들은 8,000원이었다. 누군가 “나이드신 분은 할인이 안됩니까”하고 물으니 “1943년생 이전 되시는 분은 이쪽으로 서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하였다.

입장료가 반값에 할인이 된다니까 좋았지만 어째 빛바랜 단청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열명 정도 쭈욱 일렬로 서 있는 모습에 그 속에 끼인 내가 자꾸 저쪽 만원씩 내고 입장하는 줄에 서고 싶은 것이다. 꽉, 하고 혼자서 웃음을 흘렸지만 아무리 짊은 척 해도 가을볕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유물을 하나하나 보면서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명력이 느껴지도록 오래 오래 보존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구경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더욱 감사하였다.

해치상과 기마문화 앞에서

한나라는 로마의 전성기와 견줄만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영주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놀라운 건축물과 탑모양, 무덤을 지키는 돌짐승, 봉황구슬 무늬의 견직물 그리고 돌짐승상 등 너무도 놀랍고 아름다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몇 천년 전으로의 우주 여행을 하는 듯 하였다.

해치상의 상징성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내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었다. 전국 시대 제 나라 선왕이 애자에게 고대 해치라고 부르는 동물을 보았는가 하고 물었다고 한다.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해치라고 불리는 맹수를 궁 안에서 키웠는데 이 동물이 좋고 나쁨의 구별을 알아 간사하고 음흉한 관리를 만나면 뿔로 찔러 넘어뜨린 후 먹어치웠다고 한다. 이처럼 해치상은 공명정대의 상징으로 우리 후대에게도 길이 길이 교훈이 될 것 같은 동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삼연의 기마문화로 상징되는 말재각, 말안장, 말띠구미, 말방울, 말갑옷 같은 유물들을 바라보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동아시아 나라에게도 공기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와 중국 도자기 문화는 남북조 시기에 그 영향으로 주로 백제지역에서 출토되었으며 청자, 백자, 흑자가 나온 곳이 서울 풍남동 무령왕릉 부여, 부소산, 안암지,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하며 그 당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의 거대한 문명권에 중국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실크와 철기 등은 서한에서 당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을 7000미터에 달하는 실크로드로 이어져 동서양의 문화교류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통로였다고 한다.

함께 간 지응준 선생은 그들이 실크를 그렇게 선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욕문화가 발달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주로 텔, 가죽, 무명 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가 옷에 붙고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살갗을 파고 피를 뺏아드리니 실크는 매끄러워 이가 서식을 못했으며 이가 생겼어도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한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실크의 그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이 그것을 접해보지 못한 아주 옛날 고대 서양인들에게는 참으로 귀족적인 체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식의 전수란 상품처럼 팔고 사는 금전수수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의 표시로 두손을 합장했다.

수호신, 진묘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을 진묘수라고 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한 진묘수, 사자의 모습을 한 진묘수. 죽어서도 문지기를 두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영혼들의 생전의 권력들이 어찌 무상치 않으랴. 앞다리는 곧게 세우고, 뒷다리는 웅크리고 있었고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물에도 저런 조각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며 어느 단체를 인솔하고 계신 “가이드”的 뒤를 졸졸 따르며 고귀한 얘기를 경청하였다.

사람의 얼굴을 한 진묘수의 표정은 입술을 앙다문듯 하고 그냥 멋밋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오른쪽이거나 왼쪽으로 조금 밀어낸 모습이 영락없는 모델 같지 않으냐며 웃었다. 얼굴이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모습이 옛날에는 저런 얼굴이 미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말씀도 계셨다.

정희태자의 무덤에 그려진 벽화는 춤추는 듯 노래하는 듯 그 시녀들의 나붓한 모습은 천상의 여인 같았고 말을 타고 격구를 하는 모습은 전하는 느낌이 강했다. 천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색채하며 사진보다 더 정교한 수준높은 그림을 그린 그때의 정희 태자는 당고종과 측천무후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로서 박식하고 재주가 출중하였으나 정변을 꾸민다는 구실로 어머니인 측천무후에 의하여 서인이 되었다가 자결한 그의 그때 나이는 32세였다고 한다.

권력의 구조란 이렇게 텁줄을 가른 자식도 하나의 천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 용이란 짐승은 잘 친하기만 하면 올라타고 놀 수도 있지만 목 아래 붙어있는 직경 한자쯤 되는 역린을 건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물어죽인다고 하니 임금이란 용의 상징이 아닌가.

시대의 아픔을 느낀 양귀비

사슴들은 들을 의지하고, 새들은 허공을 의지하고, 모든 법은 그 깊음으로 돌아가서 참 열반에 이른다는 법구경 한 구절에 가슴을 적시며 양귀비의 벼선 한쪽이 전시된 실물 앞에서 오래도록 발이 묶였다.

내가 여자라서일까. 나는 천이백여년 전의 그녀를 하나하나 해부하고 있었다. 양국충에 의해 성에 눈을 뜨고, 수왕에 의하여 성의 기초를 닦고, 현종에 의하여 성의 기교를, 아노사와의 관계에 이르러서는 한림학자가 된 이태백과의 정신적인 사랑으로 그 생을 마감하면서도 이백이 쓴 '청평조'를 읊으며 흰명주 수건에 목을 매어 자살로 끝난 그녀의 짧은 생애가 어찌보면 욕망의 화신같지만 타고난 미색으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녀만의 외로운 고행을 보는 듯 그 시대적인 아픔이 가슴이 될 듯도 싶었다.

1200년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나오니 빨리 사진을 찍어야 된다며 아단들이었다. 한시간 반 동안 주마간산일 뿐 그 진실에 어느만큼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되돌아가기가 너무도 아쉬운 시간들이었다.

하늘에는 흰구름이 둥둥 떠가고 맑은 햇살이 따갑도록 눈이 부셨다.  서울역사박물관



제19회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

1개부분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분

김 상 복

수상자 공적사항

【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

수상후보자	김상복(金相福)	
본적	속초 동명동 403번지	
주소	속초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소속	속초연탄은행	
직위(직급)	대표	
추천사유 (공적내용)	<p>1. 주요공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부터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은 물론 회원간 화합과 권익증진 사업에 전력함.○ FY 2000~2001 국제라이온스클럽 304-E(강원)지구 9지역 설악라이온스클럽 회장 직을 취임하면서 지역개발은 물론 회원간 화합과 권익증진 사업에 전력함○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 전개○ 2004년 제16회 설악문화제 행사기간 중 궁중혼례식을 유치하여 볼거리 제공 및 설악문화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함○ 2005년 “속초연탄은행”을 개원하여 어려운 이웃에 연탄 및 식료품 지원을 실시하여 이웃사랑의 솔선수범○ 2007년 “속초쌀은행”을 개원하여 어려운 이웃에 쌀 지원을 실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p>2. 주요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 4~현재 : [YBS 영동방송] (주) 금강케이블넷 고문- 2004. 2~현재 : 현 속초문화원 이사- 2005. 2~현재 : 현 속초연탄은행 대표(제2006-1 강원도-13호 비영리법인) <p>3. 수상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8. 8. 주월한국군 사령관 표창장- 1968. 8. 주월사 청룡 제2연대장 표창장- 1972. 11. 내무부장관 감사장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직위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자 택	핸 드 폰	
원 장	노광복	속초 중앙동 468-142	632-8907	010-7320-8907	
부원장	오윤근	교동 656-5 13/2	633-8817		청운독서실 대표
	최현식	조양동 코아루@ 102-1201	633-2632	011-363-2632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이 사	고석철	노학동 삼환@ 107-602	632-0811	011-366-0811	동해용역(주) 전무이사
	고재양	교동 780-60 15/3	633-4931		교사(전)
	김병학	중앙동 503-44	632-6400	016-9346-6400	속초요리학원 원장
	김상복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901	633-8512	016-757-8512	(주)금강케이블넷 대표
	박상열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1329호	637-5080	011-366-3339	풀원기업사 대표
	박영남	동명동 산 60-1	637-4040	010-8228-4040	(주)사공수산 대표
	어재석	중앙동 468-67	633-2069	011-9886-2069	속초시의회과장(전)
	엄시옹	노학동 1011-25	637-0337	010-7677-9655	성우산업 대표
	윤광훈	교동 692-2 이정종합광고	631-5704	011-375-5740	이정종합광고대표
	윤숙자	교동 627-42 19/5	633-4014	019-541-4014	설악유치원원장(전)
	이병선	교동 동부@ 107-1906	638-6386	011-9028-3419	강원도의회 의원
	전복식	금호동 E-편한 106-1502		011-373-4837	대우파크(설악산)회장
	허춘권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631-5767	010-3955-5078	속초간호학원 원장
	박정은	금호동 484-7 동제약국	633-2211	011-9939-2212	동제약국
	김계양	대포동 470-3	635-8073	011-9939-2212	대포하우스대표
	김동익	중앙동 476-12		017-370-2850	속초리복대리점
	박무웅	도문동 200	636-8087	011-308-1988	돌감자 장학회장
	이춘실	노학동 설악럭키1차@ 2-606	631-7489	011-364-7489	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탁동식	교동 로약골든@ 303호	631-0022	016-9780-9326	거진종합고 교감
	함봉식	교동 럭키설악타운 1-1108	632-3131	010-3023-3131	(주)세림
	곽철신	교동 럭키2차@ 103-1205	636-2709	011-375-2709	한일건업
감 사	박정기	조양동 230 연회동	636-7667	011-9791-7025	설청로타리클럽 대표
	양재호	교동 627-32 21/6	633-4661	011-362-4661	교육행정공무원(전)
사무국	한정규	교동 966-12	635-5933	011-362-1224	사무국장
	김인섭	조양동 부영@ 307호 1404호	632-6252	019-509-1310	사업과장
	김은중	동명동 44번지	632-0687	011-9373-2633	사무주임
	최택수	영랑동 동현@101-802호	632-9217	011-9879-6250	설악문화제위원회 간사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가나다 순)

성명	주 소	연 락 처	자 택
강경옥	속초시 동명동 577-18	010-3050-1532	636-1532
강대선	속초시 노학동 227	019-332-4765	637-4765
강용길	속초시 금호동 E-편한@ 103-304	011-374-8231	635-1131
고무순	속초시 중앙동 1통 5반 476-12(속초리복대리점)	016-518-0915	633-2805
권순옥	속초시 동명동 450-73	017-383-3466	633-3466
권영석	속초시 교동 737-1414호	011-365-2248	638-2999
권종식	속초시 교동 대명 늘푸른@ 101-1303	010-9169-9769	633-4042
김경선	속초시 조양동 1398-6	017-232-8189	633-4042
김계남	속초시 조양동 1516번지 금강산고속관광	010-3188-2244	638-0113
김경숙	속초시 교동 961-1 속초청초@ 105-701	010-6765-2025	633-5584
김귀선	속초시 조양동 코아루@ 104-805	017-317-8070	635-3118
김기순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66-5	011-9799-4173	633-2553
김남범	속초시 영랑동 570-5	017-371-7296	638-7296
김동연	속초시 노학동 신홍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9118-6749	369-2977
김동하	속초시 조양동 대명4차@ 804호	011-9879-9200	636-1063
김성하	속초시 청호동 1352-7	017-372-6717	632-6717
김영환	속초시 교동 1/4	018-514-5546	635-5546
김은경	속초시 조양동 1516번지	011-3118-2244	638-0113
김정환	속초시 동명동 우렁3길 5호	016-481-8462	
김철수	속초시 조양동 부영@ 604동 304호	016-523-7908	633-7908
김철한	속초시 조양동 부영@ 301-1002	011-9058-6523	632-6523
김춘형	속초시 동명동 6/2 450-176	016-212-9398	
김칠복	속초시 교동 동부@ 103동 404호	011-372-0966	632-1014
김태희	속초시 노학동 신홍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9023-5829	
남정이	속초시 도문동 200	016-278-1988	636-8087
박경순	속초시 교동 아남프라자 1305호	010-6379-5422	636-1515
박난영	속초시 중앙동 중앙빌딩 7층	011-362-2303	635-4925
박명선	속초시 영랑동 양우@ A동 504호	011-370-8085	633-8082
박봉근	속초시 금호동 17통 1반 400-11	018-272-6053	633-4346
박정숙	속초시 조양동 성호@ 104동 207호	010-8586-5758	
박찬웅	속초시 노학동 신홍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6-389-0138	
박치영	속초시 노학동 신홍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9878-8709	
박현숙	속초시 영랑동 570-25 문화로 76	011-9326-2883	632-2883
손병섭	속초시 교동 명지 미래힐@ 106동 1004호	011-368-2897	631-2897
신우근	속초시 노학동 신홍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367-2148	
신종우	속초시 교동 동부@ 103-304	011-360-9753	636-2040
안필순	속초시 노학동 남성연립 나동 102호		637-0718
양언석	속초시 교동 동부@ 107-202	011-9879-4300	
엄경선	속초시 교동 동부@ 106-305	016-272-2564	635-2564
오정선	속초시 동명동 567-26 14/2	011-9079-7866	632-7865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가나다 순)

성명	주 소	연락처	자 택
유영순	속초시 교동 속초대명 1차 1405호	010-3222-7344	637-7344
유인혜	속초시 조양동 부영@ 904-406	010-5688-3117	636-3117
이경우	속초시 영랑동 200번지 동현@ 102-904	011-207-4264	633-3907
이계남	속초시 영랑동 동현@ 102-102	019-585-7753	631-7753
이복례	속초시 노학동 980-83	010-6789-6884	636-6306
이승호	속초시 영랑동 114-5번지	011-376-4035	631-4034
이영주	속초시 영랑동 6/5		633-4748
이재선	속초시 노학동 삼환@ 105-1204		633-4748
이정옥	교동 럭키2차 설악타운 103-905	019-489-3564	633-3564
이정옥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 110-803	016-621-4065	633-4065
이태숙	속초시 부영@ 101-404	016-9778-1715	637-1715
이형찬	속초시 영랑동 대명드림빌 1207호	011-9244-6343	636-6343
이해정	속초시 영랑동 대양연립 나-103	010-9502-1113	
임희영	속초시 영랑동 570-2 갯마당	011-9155-5379	633-6250
장계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조지동 731번지 호수마을@ 115-603	011-9021-8664	480-4297
장성구	속초시 조양동 1500-1 삼성화재설악사업소	011-375-8505	632-0823
장용근	속초시 동명동 577-36	011-375-7569	631-0569
장재환	속초시 조양동 산수빌@ 1405	016-359-2748	631-2748
전성호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9737-2955	
전추자	속초시 영랑동 무궁화@ 203호	010-6383-7138	636-0815
정병옥	속초시 대우@ 101-401	016-603-4202	633-4202
정연숙	속초시 조양동 동명@ 디동 304호	010-6797-6550	633-6550
정재승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23번지	011-748-2630	
정정자	속초시 노학동 31통 4반	010-8869-6596	635-6596
정종천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347-5344	636-4344
정진무	속초시 금호동 대림 E- 편한@ 107-1501	011-258-6979	631-6979
정효남	속초시 대포동 350번지		635-0734
조광여	속초시 금호동 23/5	010-7496-3338	631-3331
조동대	속초시 조양동 1034-49 청조프라자 117호	017-589-8182	636-3844
조두영	속초시 교동 7481-1 동부@ 103-2006	011-371-5344	635-5344
주동진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7-370-6069	633-6069
지응준	속초시 교동 럭키@ 6동 506호	010-9798-8815	
최동춘	속초시 중앙동 1통 6반	632-5300	
탁동식	속초시 교동 로얄 골든@ 303호	016-9780-9326	631-0022
한경태	속초시 노학동 시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7-376-3738	
한남호	속초시 영랑동 대양연립 나-103	010-7329-1112	
한초자	속초시 교동 설악현대@ 102-1503	019-891-8255	632-8163
한태우	속초시 교동 삼환@ 107-301	011-9613-8182	637-9804
허용자	속초시 영랑동 209-6	010-9865-2492	633-2492



문화의 온기가 전해지는 속초문화원

문화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2008년 속초문화원 주요 사업

▣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 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 활발한 활동 및 기능 확대

▣ 사회 교육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정착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DB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계획
- 땅땡땡! 실버문화학교를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사자놀음 전승 및 보존
- 속초 도문농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향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속초시 도심 교통량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지난 12월 3일 개통식을 가졌다.

조양~교동 간 도로 공사는, 총 연장 3.6km에 사업비 59,890백만원이 투입되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관광성수기 도심 교통량 분산은 물론 도시 외곽지역의 균형발전과 해안 관광지와 설악산일대 내륙 관광지와의 연결도로기능으로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전화 (033)632-1231, 639-2439 전송 632-1241
홈페이지 : 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에서는 여러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속초문화원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에 뜻을 같이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 사무국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